

물의 정원
춘천



DESIGNED TO PERSIST™

THE SPERRO SV JACKET



ARC'TERYX



이달의 여행 066 물의 정원, 춘천

산을 겹겹이 두르고 강과 호수를 끼안은 강원 춘천은 거대한 물의 정원 같다. 사방이 산으로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 도시와 물길로 유연하게 연결되고, 잔잔한 물가에는 이야기가 꽃처럼 피어난다.



표지 이야기

강원 춘천 의암호

춘천댐을 시작으로 의암댐, 소양강댐이 차례로 생기면서 춘천은 거대한 호수의 도시가 됐다. 자전거를 타고 의암호 주변을 달리다 이국적인 풍광에 시선을 빼앗겼다. 잔잔한 호수에서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가는 나무 카누와 호수 너머로 파도치는 듯한 산그리메. 카누 위에서 천천히 노를 저으면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하다고 한다. 그래서 카누를 타는 사람을 '워터 워커(물 위를 걷는 사람)'라 부른다. 익숙해서 편안한 속도로 물 위를 지나다 수생식물 군락 앞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니 포동포동한 구름이 함께 노를 젓고 있다.



AHILO

- 016 듣는 여행
숲의 안내자
경북 김천의 수도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다.
- 018 촬영지 여행
핏빛 궁궐 아래 감춰진 비밀
현실과 귀(鬼)의 세계를 넘나드는 연출로 화제가 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동궁>의 주요 장면을 충북 옥천 부소담악에서 촬영했다.
- 020 여행자의 공간
70년 전 사보이호텔의 부활, 커피한약방 경동시장점
문인, 예술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담론을 나누던 사보이호텔이 카페로 부활했다.
- 022 여행자의 방
부산 원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 마티에 부산하버시티
부산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오션뷰 수영장을 갖춘 레지던스 호텔이 문을 열었다.
- 024 한국의 멋
시들지 않는 숲
금속공예가 포(foh)는 나뭇잎과 나뭇가지, 솔방울 같은 자연물을 금속 작품으로 되살린다.
- 026 한국의 맛
아침을 깨우는 비타민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사과는 추석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과일이다.
- 030 전국 행사 달력
9월의 전시·공연·축제 소식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가 모이는 글로벌 행사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끈다.
- 086 여행의 발견
옛 탄광의 기억을 잇다, 문경
경북 문경에서 탄광의 부흥기를 지나 새롭게 떠오른 여행지를 따라간다.



BOOK in BOOK 1

made in GIMCHEON
김천을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김밥 축제가 열리는 경북 김천에서 흥미로운 체험 공간을 방문했다.



BOOK in BOOK 2

올가을 새롭게 만나는 울주의 세 가지 풍경
가을빛 무르익는 9월, 꼭 가 봐야 할 울주 올주의 숨은 여행지를 발견했다.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다! 담았다!

서울우유 서울우유

한끼식사

데일리케어
• Nutrition Balance •

완전균형영양식 구수한맛
Healthy & Balanced Nutrition

고단백 고칼슘 식이섬유 5g 함유 저당설계

동·식물성 1:1 균형 단백질

190 mL (115 kcal)

쟁여놔도 좋겠네~!

제조원/판매원 : 서울우유협동조합

*본 제품은 특수이온화도식물(일반원지방 균형영양조제식물)으로
의사, 영양전문가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04 시절, 풍경
느긋한 계절의 입김
 경북 청송, 전남광주 신안과 담양에서 느긋한 가을의 정취를 담았다.

110 인터뷰
청년 단청장 안유진
 20대에 장인이 된 안유진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이수자를 만났다.

116 전시 보러 갑니다
유머와 진실 사이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에서 <마틴 파: We Are Martin Parr>전이 열리고 있다.

124 KTX 타고 도보 여행
오래된 도시의 취향, 남원
 전북 남원의 구도심에서 취향과 철학이 분명한 공간을 누볐다.

146 트렌드 읽기
촉감 장난감 전성시대
 손으로 깨고, 만지고, 누르는 촉감 완구가 시장의 흐름을 바꾼다.

148 이달의 소식
에디터가 선별한 9월의 소식
 추석 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화제작과 기대작을 모았다.

160 플레이리스트
너드커넥션과 떠나는 음악 여행
 철도 위를 달리는 너드커넥션의 노래가 방황하는 여행자의 마음을 위로한다.

INFORMATION

코레일 소식·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열차 이용 안내·비상시 행동 매뉴얼

+일러두기

〈KTX매거진〉은 대한민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약칭으로 표기합니다.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라는 표현을 생략합니다.

〈KTX매거진〉읽어 주는 프로그램, 보이스아이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드립니다.



보이스아이바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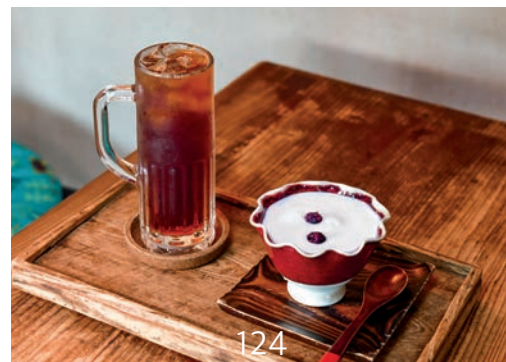
104



110



116



124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방법



응원하러가기!

당신의 응원이 건강한 스포츠를 만듭니다.
 2025년 스포츠토토로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 약 1.8조원

| 즐거운 스포츠, 즐거운 토토,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세요

• 회차당 1인 10만원까지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환불 기간은 공식 적중 결과 발표일 익일(지급개시일)부터 1년간입니다.
 (단, 적중결과 발표 당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기한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지급기한 종료일로 함)

• 미성년자 및 발행대상 운동경기 관계자는 투표권을 구매하거나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불법스포츠도박신고센터 1899-1119 / www.cleansports.kspo.or.kr
 •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www.sportstoto.co.kr / 1588-4900
 • 수탁사업자 : 한국스포츠레저(주)

2026년 09월호

KTX MAGAZINE

제23권 제9호 통권 제267호
2026년 9월 1일 발행

발행인 김태승(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홍영선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수석 기자 이미션 editorwhy@bandicom.com
기자 신승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오유리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심인보 inbou@bandicom.com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hspirt.com

<KTX매거진>은 KTX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신청받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배달의민족

부산행 KTX에 맛있는 응원이 탑승했어요

배민응원도시락

모든 아이들이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2020년부터 18만개의 도시락을 전해오고 있는 배달의민족. 이번에는 전국소년체전이 열리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먹는 것마저 참아야했던 어린 선수들이 배민응원도시락을 만나는 순간, 다시 소년이 됩니다.



두고 온 시간, 감탄할 결심

“속초에 가고 싶어.” 미국 포틀랜드에 사는 친구가 선언하듯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 온 친구. 20년 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간 그녀는 주위를 환하게 만드는 특유의 친화력과 긍정 에너지로 힘든 순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올봄 딸아이의 대학 졸업장을 훈장처럼 받아 든 기쁨 때문일까, 부모님 방문이나 경조사 등으로 한국을 찾던 친구가 이번엔 처음부터 여행을 걱정했습니다. 여름휴가철 주말의 강원도 행이라... 교통 체증과 북적이는 인파, 무더위가 예상돼 고개를 가웃했지만, 한국의 여름 바다가 그리웠다는 친구의 말에 두말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당혹스러울 만큼 뜨거운 태양을 온몸으로 받으며 속초로 향하는 길, 친구는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에 온 사람처럼 “어머 어머” “너무 아름다워!”를 연발했습니다. 산과 논, 집과 길, 하늘에 떠가는 구름마저 감탄스러워하는 친구를 바라보다 문득 그녀와 함께 한 20대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분절된 기억을 더듬어 도착한 곳, 오징어순대가 구수한 냄새를 피워 올리던 속초 바다엔 허리를 꺾고 손뼉을 치며 결심한 듯 탄성을 지르던 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고 온 시간이 아련해 친구의 감탄에 조금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든 9월, <KTX매거진>은 강원 춘천, 울산 울주, 경북 문경과 김천 등에서 맹활약한 기자들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합니다. 먼저 춘천의 소양아트스쿨이 흥미롭습니다. 소양호와 원도심이 만나는 교차로에 설치한 보행 전용 육교이자 공공 미술 프로젝트. 길이 188미터의 이 거대한 비행접시 위에서 버스킹과 코미디 쇼, 인형극 등이 열린다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불타오르는 듯한 노을을 배경으로 놀이기구를 타듯 육교를 건다 보면 감미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 상상. 당장 춘천행 열차를 타고 싶어집니다. 복합 생태 문화 테마파크인 문경 에코월드에는 모험심을 자극합니다. 석탄박물관과 가온오픈세트장에 에코타운, 자이언트 포레스트 등 체험 시설을 더했는데, 옛 은성탄광의 역사와 백두대간의 생태를 살펴보고 거인의 옷 속으로 들어가 길을 찾는 등 재미있는 요소가 가득합니다. 목숨 걸고 단종의 마지막 길을 지킨 엄홍도의 충의를 기리는 울산 울주의 원강서원, 해가 지면 김천의 마스코트 오삼이의 아지트로 변모하는 김천시립박물관도 이달 <KTX매거진>에 숨겨 둔 보물입니다.

국가문화유산 단청장 이수자 안유진과의 인터뷰도 꼭 살펴보세요. 2008년 국보 승례문 방화 사건을 본 후 단청장을 꿈꿨다는 그녀는 전통 단청의 문양과 안료의 규칙을 지키면서도 창의적 변주를 시도해 건축물에만 쓰였던 단청을 입체 조각과 설치미술로 확장했습니다. 안유진 단청장 이수자의 과감한 도전을 따라가다 보면 흐뭇한 미소와 함께 짜릿한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에서 열리는 <마틴 파: We Are Martin Parr>전도 놓칠 수 없습니다. 특유의 통찰력과 심미안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포착한 다큐멘터리 사진 거장, 마틴 파의 작품은 부조리에 환멸을 느끼면서도 허례허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통의 인간, 바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친구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9월호 마감이 한창인 지금, <KTX매거진>에는 연중 그 어느 때보다 축제 소식이 넘쳐납니다. 김천김밥축제, 강릉거피축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그리고 부산·경기·전남광주를 아우르는 비엔날레까지. 감탄할 곳이 이토록 많은데 함께할 그녀가 곁에 없어 쓸쓸하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KTX**

편집장 최현주



주최·주관 춘천인형극제

협력 UNIMAX

(사)한국인형극협회

춘천문화재단

수원시립예술대극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DOUZONE

신한은행

KBS JOB

ISF

수원시립예술대극단

AC/E

PI CE

INSTITUT FRANÇAIS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dbal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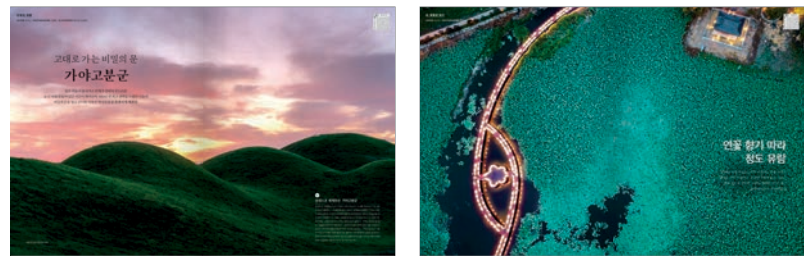
오직KTX에서만 볼수 있는 이잡지를 참 좋아한다. 웬만한곳은 모두 다녀와서 색다른 곳이 없나 물색하던차에 해남 기사를 보물찾기하듯 발견했다. 다음에는 해남으로 가 볼까. #KTX매거진 #8월호 #해남 #국내여행

@mangobo0ok



기차를 좋아하는 아이와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 중이다. "흐린 뒤 맑음. 데일 뜨거운 계절도 곧 지나갈 겁니다." <KTX매거진> 편집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KTX #방학육아 #서울여행 #KTX매거진

@ktxmag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희대구시동구봉무동

그동안 솔하게 기차를 탔지만 <KTX매거진>을 정독한 건 처음이다. "고대로 가는 비밀의 문 가야고분군"이라는 표지 문구를 보고 읽기 시작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다. 함안 말이산고분군에서 출토된 사슴모양뿔잔이 왠지 낯익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9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 주세요.
메일주소 KTX@bandicom.com 기간 9월 15일까지

김인선 경기 과천시 관문로

<KTX매거진>에 담긴 정갈하고 깊이있는 풍경은 그 자체로 다정한 위안이다. 이번 달은 신비로운 푸른빛의 유등연지사전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소개된 장소를 하나하나 저장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청도로 향한다. 다음 여행에서는 청도의 푸른빛에서 깊은 위로를 받기를.

소셜 미디어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계정으로 연결됩니다.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일로의 '물레 로고 우드 손거울'과 사연이 실린 달의잡지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일로 물레 로고를 새겨 감성을 더한 손거울로,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합니다.

제품문의 02-2256-7901



소노호텔앤리조트 신규회원 모집

뉴멤버십 '소노러스라임'

더 가벼워진 입회금액

20년 만기 입회금 반환
3,000만원대 멤버십

더 매력적인 혜택

소노호텔앤리조트 객실
창립 혜택 최대 50%

20년간 부대시설 할인

워터파크·골프·스키 등
주중 최대 70%

20년간
객실혜택 30%
[혜택 2] 선택 시 적용

▲ 쓸비치 남해



이용 가능 사업장 전국 18곳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쓸비치 양양 | 삼척 | 진도 | 남해 | 소노캄 고양 | 경주 | 거제 | 여수 | 제주 | 소노문 해운대 | 소노벨 양평 | 천안 | 단양 | 청송 | 변산 | 제주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시시오.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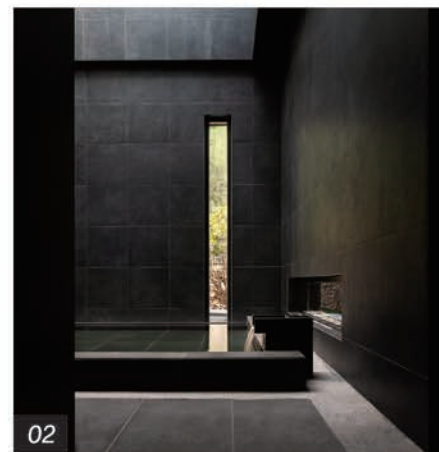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조식: 13첩 반상 한상 차림 & 석식: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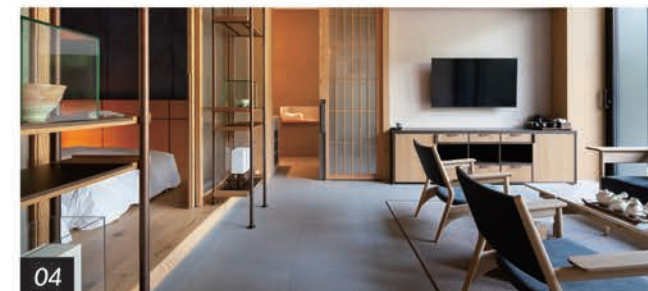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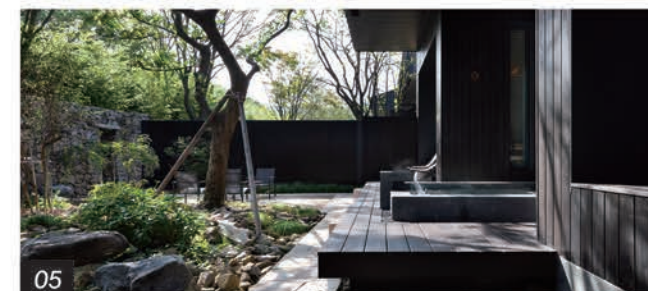
02



03



04



05



06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숲의 안내자

숲길을 산책하다 잠시 멈춘 순간, 이름 모를 새가 인사를 건네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청아한 새소리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경북 김천의 수도산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핏빛 궁궐 아래 감춰진 비밀

귀신을 보는 구천과 귀신 소리를 듣는 생강이 왕의 밀명을 받아 동궁에 갇든 저주의 실체를 추적한다.

왕세자가 머무는 동궁에서 세자들이 연이어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궁에는 30년 전에도 세자 세 명이 비슷한 방식으로 죽고, 후궁인 숙빈의 아들만 살아남아 지금의 왕이 됐다는 소문이 퍼진다. 마지막 남은 아들 영안군마저 위독해지자 왕은 극비리에 귀신을 보는 구천을 불러 “언뭇 귀신의 저주를 풀라”고 명한다. 그리고 귀신의 목소리를 듣는 궁녀 생강을 그의 조력자로 붙인다. 서로를 경계하며 위태로운 동행을 시작한 구천과 생강은 동궁의 기이한 죽음을 조사하며 소금광 귀신, 별감 귀신 등 귀(鬼)의 세계에 얽힌 진실을 하나씩 파헤친다. 두 사람은 동궁에 갇든 저주의 실체를 풀고 왕이 감춰 온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동궁>은 오컬트와 사극을 결합해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했다. 현실과 귀의 세계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시청자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현실 세계는 푸르게, 귀의 세계는 붉게 연출한 점도 인상적이다. 흥미로운 건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아름다운 장소들이 배경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세자의 시신을 발견한 곳은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소류지, 구천이 지내던 암자는 해남 도솔암, 귀신이 나오는 우물은 경주 오릉이다. 이 외에도 한국의 숨은 비경을 두루 화면에 담았다. 극 후반부, 생강은 구천의 생사를 알 수 없어 그의 어머니가 몸을 던졌다는 곳을 찾아가 울부짖는다. 물 위에 길게 펼쳐진 기암절벽이 생강의 막막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이곳은 충북 옥천군 부소무늬마을의 부소담악이다. 1980년 대청댐이 완공되면서 산자락이 물에 잠기고 바위 능선만 물 위에 남았는데, 길이가 무려 700미터에 이른다. <동궁>을 흥미롭게 봤다면, 오는 주말 전망대 역할을 하는 추소정에 올라 부소담악의 비경을 감상해도 좋겠다. **KTX**



드라마 <손 the guest> 작가진과 서늘한 영상 연출의 대가 최정규 PD가 뭉쳐 화제가 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미스터리 오컬트 사극 <동궁>. 남주혁이 귀신을 보는 능력자 구천으로, 노윤서가 귀신 소리를 듣는 궁녀 생강으로, 조승우가 비밀을 간직한 왕으로 분한다.

© 넷플릭스

<광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60223-중-208136호

“언제나 곁에”

큰 신뢰와 책임으로 함께합니다



중증질환의 최종치료기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Ⅰ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
(최초지정일: 2012. 1. 1. 지정기간: 2024. 1. 1. ~ 2026. 12. 31.)
- Ⅰ 서울특별시 지정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
(최초지정일: 2020. 9. 1. 지정기간: 2026. 1. 1. ~ 2028. 12. 31.)
- Ⅰ 보건복지부 선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
(선정기간: 2024. 10. 24. ~ 2027. 12. 31.)





70년 전 사보이호텔의 부활, 커피한약방 경동시장점

문인, 예술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담론을 나누던 사보이호텔.
서울 경동시장에 70여 년 전 그 시절로 데려다주는 카페가 등장했다.



때론 우연히 마주한 장면이 벼락같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눈이 펄펄 내리던 지난 1월 어느 날, 서울 경동시장을 거닐던 커피한약방 강윤석 대표도 그러한 장면과 마주했다. 청량리역을 에워싼 마천루 아래 경동시장 골목을 거닐다 나무 전봇대 뒤로 3층짜리 오래된 건물을 본 순간, 1950년대 서울로 타임슬립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발을 떼지 못하던 그는 반드시 이 건물을 매입해야겠다고 결심했다. 1950년대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이 건물은 본래 방이 50여 개인 여인숙이었다. 건축을 전공한 강 대표가 실력 좋은 목수와 함께 5개월간 건물 전체를 수리한 결과, 70여 년 전 서울 명동의 사보이호텔을 닮은 카페로 변모했다. 을지로, 혜화동에 이은 커피한약방 경동시장점. 그의 손에서 세 번째 커피한약방이 탄생했다.

전체 콘셉트는 사보이호텔이지만 층마다 다른 이야기를 입혔다. 1층 안쪽은 직각의 나무 의자와 격자 무늬 창, 과중시계 등으로 옛 청량리역을 재현했고, 2층은 빈티지 감성 물씬한 타일과 커튼, 그리고 총 천연색 물고기가 노니는 어항 등을 활용해 영화 <화양연화>를 연출했다. 3층은 문인과 예술가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공연도 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근엄한 자태로 중심부를 차지한 진한 초콜릿색 테이블은 강윤석 대표가 삼고초려해서 겨우 사들인 송나라 때 나무로 짠 것이다.

메뉴도 매력적인 공간에 어울릴 만큼 훌륭하다. 반드시 맛봐야 할 시그니처는 강 대표가 로스팅해 직접 내려 주는 필터 커피. 공간을 가득 채우는 커피 향이 마음을 평온하게 적셔 준다. 강 대표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헤민당'에서 매일 아침 구워 내는 수십 종의 베이커리도 눈과 입을 사로잡는다. 대표 메뉴는 설밤, 들세 캐러멜, 무스 오미자, 도몽 등의 무스 케이크. 부드럽고 달콤한 디저트에 커피 한잔 곁들이면 70년 전 모던 보이, 모던 걸이 된 기분이 든다. **KTX**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35길 38



옷에 대한 이로운 가치와 정성 아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일로의 산뜻한
계절감에 더한 깊이 있는 스타일링.

1 헤리티지 체크 재킷(APJJ610)

잔잔한 하운드투스 패턴과 곡선 패널이 돋보이는 울 혼방 재킷. 넓은 칼라와 가죽 볼 버튼으로 클래식한 무드를 살렸다.

2 헤리티지 체크 팬츠(APJP610)

잔잔한 하운드투스 패턴과 와이드 실루엣이 돋보이는 팬츠. 울 혼방 소재를 사용해 따뜻하고 편안하며, 다양한 스타일에 활용하기 좋다.

3 시그너처 코튼 블라우스(APJB300)

여유로운 A라인 실루엣과 부드러운 면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블라우스. 칼라의 자수와 소매의 볼륨 디테일로 포인트를 더했다. 데일리 룩부터 포멀 룩까지 자연스럽게 아우러진다.

4 스몰 핸드백(APIQ920)

절제된 버킷 실루엣과 엠보 텍스처가 돋보이는 버킷백. 탄탄한 PU 소재와 편안한 손잡이로 실용성을 높였으며, 데일리 룩부터 외출 룩까지 활용도가 높다.

5 플랫 레더 포멀 슈즈(APIX900)

절제된 스퀘어 토와 레이스업 디테일이 돋보이는 천연 가죽 로퍼. 부드러운 양가죽 안감을 사용해 착화감이 편안하며,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데일리 아이템이다.



부산 원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 마티에 부산하버시티

부산역에서 도보 10분,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오션 뷰 수영장과
스카이 카페 등을 갖춘
마티에 부산하버시티가
들어섰다.

지난 4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라이프스타일 레지던스 호텔 마티에 부산하버시티가 문을 열었다. 부산에 들어선 또 하나의 신상 호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압도적 입지부터 시선을 사로잡는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바로 앞에 자리해 부산역에서 도보 10분이면 닿는다. 바로 옆엔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이 있어 패들보드와 수상자전거, 카약 등을 즐길 수 있다. 주거 시설과 숙박 시설이 어우러진 롯데캐슬 드메르 복합 건물 내에 위치한 이 호텔에는 총 183개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다. 모두 넉넉한 크기의 스위트형이며, 일부 객실에서는 간단한 취사도 가능해 집처럼 편안히 머무르기 좋다. 부산으로 출장 온 사람부터 가족여행객, 호캉스나 장기 투숙을 목적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만족도가 높아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별다섯 개 수준의 최상급 시설로 평가받았다.

다채로운 부대시설도 빼놓을 수 없다. 51층 스카이에 들어서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부산항 풍경이 탄성을 자아낸다. 스카이 카페 '까사부사노'에서는 부산의 이국적인 밤 풍경을 감상하고,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휴양지에 온 기분을 만끽해 본다. 단, 입주민도 부대시설을 사용하므로 수영장 이용 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호텔 2층에는 크루즈를 콘셉트로 한 레스토랑 '라메르'와 테라피 스파 '무로라'가 자리한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라메르에서 조식을 먹다 보면 거대한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독보적 입지와 최고급 시설, 북항의 이국적 분위기와 활기찬 해양 레저까지, 올가을 부산에 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KTX**

주소 부산시동구충장대로 190



청담셀의원 조찬호 대표원장, 이시형 명예원장

줄기세포로 자연 치유력을 높이다

단순히 젊고 건강해 보이는 외모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는 방법은 없을까. 청담셀의원 조찬호 대표원장과 이시형 명예원장을 만나 건강 수명을 늘려 젊게 사는 비법을 들었다.

웰빙 트렌드가 젊고 건강해 보이는 외모를 만드는 것을 넘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진짜 항노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줄기세포 헬스케어 디자인에 특화된 청담셀의원은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선 면역력을 해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과 줄기세포 치료를 통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 주치의 이시형 명예원장과 항노화 줄기세포 치료 스페셜리스트 조찬호 대표원장에게 자연 치유력의 중요성에 대해 물었다.

두 분 모두 안티에이징의 핵심 개념으로 '자연 치유력'을 꼽았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시형 명예원장**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결국 '내 몸 안에 있는 힘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몸은 본래 항상성과 재생력, 면역력을 갖고 있어요. 몸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려는 힘이 자연 치유력의 근간입니다. **조찬호 대표원장** 항노화 의학도 결국 자연 치유력과 회복 시스템이 더욱 잘 작동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줄기세포 기반 재생의학을 설명할 때 자연 치유력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연 치유력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요. **이시형 명예원장** 누구나 움직이고 활동하는 '행동 체력'과 병을 막고 극복하는 '방어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행동 체력만으로 건강을 판단하지만, 방어 체력이 떨어지면 쉽게 지치고 잔병치레가 잦아지며 회복도 느려집니다. 젊은 시절의 건강을 오래 유지하려면 결국 면역력, 자연 치유력과 연관된 방어 체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조찬호 대표원장**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피로가 오래 지속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몸의 회복 기반이 흔들린 분이 많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로는 큰 이상이 없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이른바 '건강 회색 지대'에 있는 거죠. 방어 체력을 살펴야 한다는 이 명예원장님 말에 공감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면역과 재생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치료에 앞서 생활 습관을 먼저 파악합니다.

장수 비결도 생활 습관에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시형 명예원장** 맞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 꾸준한 명상과 운동, 그리고 만성피로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몸의 회복력을 해치지 않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 가는 게 중요하죠. **조찬호 대표원장**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이미 회복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노화가 누적됐을 때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변화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치나 면역력의 개인차도 작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의학적인 관리를 병행하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들 수 있어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찬호 대표원장** 줄기세포 치료는 본래 몸이 가진 회복 시스템을 돕는 관리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담셀의원은 건강검진 결과와 기능의학 검진, 유전자 검사를 종합해 개인별 건강 패턴을 다시 설계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신 정맥주사 '청셀(淸Cell)'부터 피부 개선 '미셀(美Cell)', 탈모 치료 '모셀(毛Cell)', 성기능 개선 '성셀(性Cell)', 통증 관리 '활셀(活Cell)' 등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합니다. **이시형 명예원장** 저도 수차례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몸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정맥으로 투여하는 방식이지요. 이 같은 관리는 몸을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이시형 명예원장** 내 몸은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의 식사와 수면, 마음가짐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티에이징 출발점이 아닐까요. **조찬호 대표원장** 줄기세포 기반 접근은 회복력이 떨어진 몸의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재생의학의 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회복 기반을 끌어올려도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의료 소비자들에게 늘 '시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시들지 않는 숲

단풍잎, 솔방울, 도토리 등 숲에서 만난 친구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금속공예가 포(foh)는 북한산 숲을 거닐며 벌레 먹은 나뭇잎과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 비바람에 꺾인 나뭇가지 같은 자연을 채집해 금속작품으로 되살린다. 나뭇잎의 섬세한 잎맥과 돌의 거친 표면이 그의 손을 거쳐 은과 황동, 주석과 알루미늄에 고스란히 새겨진다. 그렇게 단풍잎은 찻잔 받침이 되고, 솔방울은 문진이 되어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문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은 9월 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KCDF갤러리에서 열리는 <내가 던진 모든 질문>전에서 만날 수 있다. **KTX**



시간을 품고 예술을 잇다, '2026 인사동 엔틱&아트페어'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인사동의 거리와 골목 곳곳에서 전통과 오늘의 예술을 잇는 제39회 인사전통문화축제가 열린다.

오랜 시간 우리 문화와 예술의 이야기를 품어온 인사동. 대한민국 제1호 문화지구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거리인 이곳이 올가을 하나의 커다란 전시장으로 변한다. 오랜 세월 인사동을 지켜온 고미술과 화랑을 비롯해 표구, 지필묵, 공예, 전통차 등 인사동의 정체성을 만들어온 문화가 거리 곳곳에서 관람객을 만난다. 인사아트프라자에서는 고미술부터 민화, 회화, 조각, 차도구와 공예, 천연염색까지 전통과 오늘의 감각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안녕인사동에서는 전국의 차·공예 명인들과 인사동의 전통을 이어온 이들이 함께 참여해 우리 차와 공예의 멋과 가치를 선보인다. 오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전통을 이어온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의 깊이와 오늘의 감각이 어우러지는 인사동만의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특히 (사)한국고미술협회, (사)한국표구협회, (사)한국민화협회, (사)한국조각협회 등 인사동에 터전을 두고 우리 문화예술의 맥을 이어온 단체들이 함께해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단국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도예 전공자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어, 오랜 기술과 새로운 세대의 감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장면을 보여준다. 세월이 쌓아온 전통과 새로운 예술의 감각이 한데 어우러지는 이번 축제는, 인사동이 오랫동안 지켜온 문화적 가치와 오늘의 모습을 함께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오래된 것이 새롭게 보이고,
새로운 것이 다시 전통으로 이어지는 곳.
올가을, 인사동을 천천히 걸어보자.



2026 인사동 엔틱&아트페어

2026. 10. 1. THU — 10. 4. SUN
인사동 전역 · 안녕인사동 · 인사아트프라자
문의 | 02-737-7890
www.hiinsa.com · @insadong_official





아침을 깨우는 비타민

사과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 성경 속 아담과 이브가 따 먹은 금단의 열매가 사과였고, 아이작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통일신라 시대에 지은 ‘처용가’에는 능금(사과)의 일종인 머자가 등장한다. 추석 차례상에도 사과가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먹는 사과는 야생 사과를 교배한 것으로 홍옥, 아리수, 부사 등 품종이 다양하다. 9~10월은 일교차가 커 사과의 당도가 오르고 과육이 단단해지는 시기다. 사과는 비타민과 미네랄, 유기산이 풍부하며 껍질째 먹으면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까지 섭취할 수 있다. **KTX**



편안하고 즐거운 한가위, 안빈낙도(安賓樂都)영주

연중 가장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경북 영주가 안빈낙도 여행을 제안한다.

여행자를 손님(賓)으로 맞아 편안함(安)과 즐거움(樂)을 주는 도시(都), 안빈낙도(安賓樂都)가 그것이다. 유서 깊은 서원과 천년 고찰, 물길에 휘감아도는 옛 마을까지,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영주로 가을 여행을 떠나 보자.

경북 영주가 안빈낙도 여행지 다섯 곳을 제안한다. 소수서원, 부석사, 무섬마을, 선비세상, 소백산이다. 이 중 소수서원은 한국 최초의 서원이자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에 이름을 올렸다. 유려한 자태의 소나무 숲과 죽계천이 어우러진 경내를 거닐면 옛 선비들이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천년 고찰 부석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속한 화엄 종찰로 배흘림기둥으로 유명하다. 국보 무량수전 앞 안양루에 서면 소백산 자락의 능선이 파도처럼 펼쳐지고, 해 질 녘 풍경은 영주 여행의 백미로 꼽힌다. 무섬마을도 안빈낙도의 의미와 딱 맞는 영주의 대표 여행지다. 내성천이 태극 모양으로 휘감아 돌아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마을을 걷고, 강 위에 놓인 외나무다리를 건너다 보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하다. 보름달이 휘영청 뜬 한가위 밤이면 운치가 한층 더해진다.

한국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선비세상도 빼놓을 수 없다. 한옥·한복·한식·한글 등 한국 문화를 테마로 한 K-컬처 체험 공간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명절 나들이 코스로 제격이다. 부드러운 능선이 끝없이 이어지는 소백산국립공원은 영주 안빈낙도 여행의 대미를 장식한다. 초보자도 부담 없이 오를 수 있어 자연과 벗하며 여유롭게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1 내성천이 태극 모양으로 휘감아도는 무섬마을. 한가위 아침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2 단풍으로 물든 산자락에 안긴 천년 고찰 부석사. 3 한국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K-컬처 테마파크, 선비세상. 4 부드러운 능선이 이어지는 소백산 탐방로.



제작 지원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영주 안빈낙도 공식 계정



Panasonic

파나소닉
안마의자
추석
명절이벤트

2026년
추석에는
건강을
선물하세요

NEW

REAL PRO
MAN2

9.1 ~ 9.30

4년
무상보증
1년 + 3년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91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MAN2 안마의자 구매고객 대상
침구청소기 MC-DC10W 증정

그 외 모델 사은 행사 중!
자세한 내용은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MAN1



MAL1



MAK1



MAF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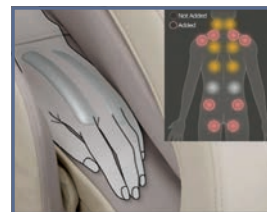
가까운 매장 찾기

고객상담실 1588-8452 panasonic.co.kr



추석 명절, 소중한 가족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파나소닉 플래그십 안마의자 REAL PRO MAN2



결림 부위를 감지하는 리얼프로 AI

EP-MAN2의 핵심은 파나소닉의 AI 기반 마사지 기술 '리얼프로 AI'다.
손바닥 경직도 감지 센서와 롤러 압력 데이터를 통해 결림 부위와 근육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어깨·견갑골·허리 위치까지 인식해 체형에 맞춘 압력과 동작을 설계한다.



체형 맞춤 영역 선택 6136개 포인트의 정밀 마사지

총 6136개 마사지 포인트의 조합으로 목,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입체적으로 관리하며,
SJ 프레임과 네 개의 롤러가 넓은 신체 부위를 섬세하게 자극한다. 울트라 니드(ultra knead) 기술은
엄지손가락의 섬세한 동작을 모티브로 근육 깊숙한 곳까지 부드럽게 풀어 준다.



마사지 전 예열로 긴장 완화 즉각 온열 시스템

무릎 뒤 오금 부위의 즉각 온열 시스템이 마사지 전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 주어
보다 깊은 휴식을 돕는다. 130~170도 리클라이닝과 수직형 터치 패널, 블루투스 오디오, USB 포트로
사용성 역시 플래그십에 걸맞게 완성했다.

9월 1일~30일, 파나소닉 안마의자 추석 명절 이벤트 운영 중

판매처 유명 백화점 및 온·오프라인 파나소닉 판매 대리점
문의 1588-8452, www.panasonic.co.kr

EXHIBITION

에스 데블린, '라인 오브 라이트', 2026 © Futura Seoul



에스 데블린, '다시 집으로', 2022 © Futura Seoul



〈세 번째 시: 에스 데블린, 다시 집으로〉

서울 08.20~2027.01.17

푸투라서울이 전개하는 '백 개의 시' 프로젝트의 세 번째 주인공은 에스 데블린이다. 그는 비욘세, 아델, 캔디스 라마 등 세계적 뮤지션의 공연 무대를 설계했으며, 2012년 런던 올림픽 폐막식과 2022년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비롯한 동시대의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피니트 라이브러리' '미러 메이즈' '다시 집으로' 등 작가의 주요 작업을 푸투라서울의 건축 구조와 동선, 빛의 흐름에 맞춰 구성한다. 서울역에서 푸투라서울까지 차로 15분 정도 걸린다.

장소 푸투라서울
문의 02-3676-1000



© 이요셉

〈알루미늄 오이: 정연두〉

창원 07.29~11.01

정연두는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개인의 삶과 사회적 기억을 예술적으로 풀어낸다. <알루미늄 오이: 정연두>전에서는 고려인의 역사와 한국으로 재이주한 고려인 후손들의 삶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한다. 알루미늄으로 주조한 501개의 오이 조각에 영상, 사운드를 결합한 대형 설치 작품 '알루미늄 오이', 발효 이미지와 가야금 산조를 엮은 사운드 설치 작품 '발효 산조' 등을 공개한다. 창원역에서 100번 버스를 타고 도립미술관 정류장에 내리면 경남도립미술관이 보인다.

장소 경남 창원 경남도립미술관
문의 055-254-4600



Gyeonggi Ceramics Biennale

경기도자
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광주비엔날레

Jeju
Biennale
제주
비엔
날레

Kiaf
SEOUL
키아프
서울

Frieze
Seoul
프리즈
서울

Busan
Biennale
부산
비엔날레

문화체육관광부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예술평가지원센터

2026
대한민국
미술축제

2026
KOREA ART FESTIVAL

9.1.-9.30.

SHOW



© 에스앤코

〈디어 에반 헨슨〉

서울 08.01~11.01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이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다. 디지털 시대의 관계와 연결에 대한 메시지를 진정성 있게 그려 공감을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지난해 한국뮤지컬어워즈 작품상(400석 이상 부문)과 프로듀서상을 수상했다. 주인공 에반 헨슨 역으로 박강현·임규형·나현우가 출연하고, 엄마 하이드리 헨슨 역을 김선영·신영숙이 맡아 호흡을 맞춘다. 서울역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해 10분 정도 걸으면 충무아트센터가 나온다.

장소 서울 충무아트센터
문의 1577-3363



© Danny Willem



© Eddie Taz_Festival de la cité

〈제29회 서울세계무용축제〉

서울 09.02~19

서울세계무용축제가 올해 29회를 맞아 단절된 시대에 '연결의 꿈'을 묻는다. 먼저 개막작으로 벨기에의 대표적 현대무용단 울티마 베스의 <보이드>가 무대에 오른다. 피아니스트 임현정과 안무가 김재덕이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을 토대로 음악과 움직임 사이의 새로운 대위법을 보여 주는 <댄싱 바흐>, 줄넘기를 신체 리듬을 만드는 타악기로 재해석한 파리니 세콘도의 <히트 아웃> 등 8개국 31편의 작품을 공연한다. 수서역 인근 수서역·로즈데일빌딩 정류장에서 3413번 버스를 타면 강동아트센터에 도착한다.

장소 서울 강동아트센터, 나루아트센터 등
문의 02-3216-1185



함께하는 삶의 향기 제16회 동서커피클래식 DONGSUH COFFEE CLASSIC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

2026.10.7(수) 오후 7시

연주 광주시립교향악단 | 지휘 이병욱 | 협연 박종해 / 피아노 | 강혜정 / 소프라노 | 라비던스 / 크로스오버 그룹

문의 coffeeclassic2026@naver.com | 02-3210-9684 (평일 10:00~17:00)



제38회 춘천인형극제

춘천 09.10~16

전 세계 아티스트들의 인형극 공연이 춘천을 화려하게 물들인다. 올해 춘천인형극제에서는 10개국 99개 팀이 참여해 105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나무 인형의 성장기를 다룬 극단 로기나래의 <유지컬 인형극: 피노끼오>, 애니메이션 영화와 라이브 드로잉 등을 결합한 프랑스 비주얼 아트 듀오 스테레오틱의 <앙티상브르>, 제34회 서울어린이연극상 대상 수상작인 극단 허망세의 <걸리버 여행기: 줌 인 아웃> 등이다. 춘천역에서 12번 버스를 타고 인형극장 정류장에 내리면 도보 3분 거리에 춘천인형극장이 있다.

장소 강원 춘천인형극장 및 춘천시 일원
문의 033-242-8452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 09.24~10.04

세계인의 흥을 하나로 모으는 탈춤 한마당이 펼쳐진다. 하회별신굿탈놀이, 봉산탈춤, 북청사자놀음, 속초사자놀이 등 국내 17개 전통 탈춤 단체가 지역의 개성을 살린 공연을 올린다. 주변국인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24개국 28개의 공식 초청 해외 공연단도 특별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세계창작탈 공모전, 탈춤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경연 행사도 열린다. 안동역에서 212번 버스를 타고 안동초등학교 정류장에서 하차해 15분 정도 걸으면 탈춤공원에 도착한다.

장소 경북 안동 원도심 및 탈춤공원 일원
문의 054-840-3424



언제나 청춘!

문화관광축제 **insom!**
2025-2026 문화관광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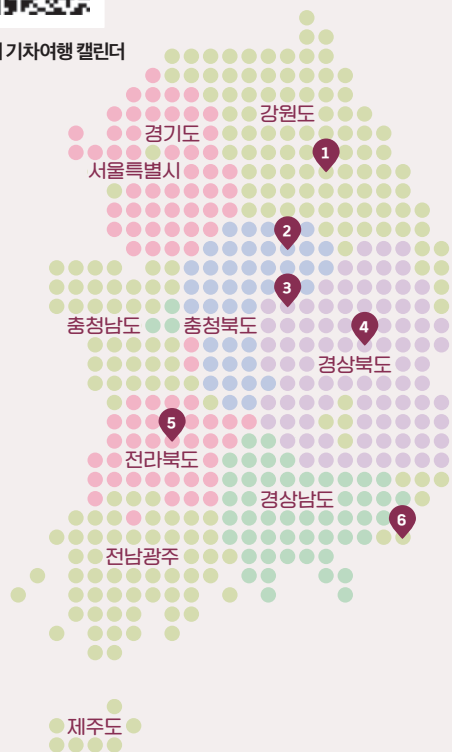
2026
10.2|금|~10.11|일|

금산세계인삼엑스포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전국 축제 기차여행 캘린더



기차 타고 가는

9월 전국 축제

기차와 연계 교통수단으로 즐기는 9월의 전국 축제를 총정리했다.

EVENT

퀴즈 풀고 KTX 할인 쿠폰 & 이달의 경품 받자!

응모 방법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퀴즈에 참여하세요. 정답은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응모 기간 9월 1일~20일

상품 KTX 운임 10퍼센트 할인 쿠폰 10명(1인 2매), 발왕산 케이블카 이용권 10명(1인 2매)

당첨자 발표 9월 30일, 기차여행 홈페이지 (korail.com/tour/main)에 공지



1



2026 평창호석문화제

기간 9월 4일~13일

장소 강원 평창 이효석문화마을 일원
찾아가는 법 평창역에서 축제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행

2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기간 9월 3일~8일

장소 충북 제천예술의전당
찾아가는 법 제천역에서 51번 버스를 타고 구 동명초등학교입구 정류장 하차 후 도보 3분

3



2026 문경오미자축제

기간 9월 18일~20일

장소 경북 문경 동로면 금천둔치 일원
찾아가는 법 문경역에서 620번 버스를 타고 동로 정류장 하차 후 도보 4분

4



202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 9월 24일~10월 4일

장소 경북 안동 중앙선 1942 안동역
찾아가는 법 안동역에서 410번 버스를 타고 교보생명 정류장 하차 후 도보 4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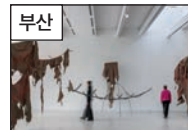


제9회 전주독서대전

기간 9월 11일~13일

장소 전북 전주한벽문화관
찾아가는 법 전주역에서 119번 버스를 타고 남부시장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6



2026 부산비엔날레

기간 8월 29일~11월 1일

장소 부산현대미술관
찾아가는 법 부산역에서 2번 버스를 타고 사하구청·당리역 정류장에서 하차 후 171번 버스로 환승, 부산현대미술관 정류장 하차

*찾아가는 법은 평일 오전 출발 기준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를 만듭니다.

CONNECTING REALITY AND VIRTUALITY



산업 안전
관리 플랫폼



건물 자율
운영 플랫폼



노동 안전
관리 플랫폼



탄소회계 &
감축이행평가



Journey of Harmony Solution

JH SOLUTION

핵심 기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 디지털트윈 플랫폼 | 시뮬레이션 해석 | 탄소회계 서비스



오늘도 무사히 일할 권리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의 평범한 하루에 시가 필요한 순간을 따라가 본다.

오전 8시, 아직 거리는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작은 공장의 불은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다. 셔터가 올라가고 멈춰 있던 설비에 전원이 들어오며,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로 향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출근 풍경이지만, 그 안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크고 작은 불안도 함께 시작된다. 총무팀 담당자는 출근하자마자 새로 입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을 펼쳐 근무시간과 임금, 휴일, 업무 내용 등 법적으로 필요한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됐는지 다시 확인한다.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익숙한 표현이 실제 법령과 맞지 않거나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내용을 놓친 것은 아닌지 작은 의문이 남는다.

같은 시각, 처음 생산라인에 투입된 직원은 낯선 설비 앞에 서 있다. 교육시간에 안전수칙과 사고사례를 충분히 들었지만, 막상 현장에 들어오니 지금 무엇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지, 어떤 상황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총무팀 담당자와 생산라인 직원은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서류 속 법적 위험을, 다른 한 사람은 현장 속 사고의 징후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닮아 있다. 위험은 평범한 문장이나 익숙한 설비의 작은 변화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사고 이후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류와 현장에 흩어진 작은 신호를 미리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보이지 않던 순간까지, 안전은 이어진다

여러 장애인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는 작업장을 수시로 살피지만, 한 사람이 모든 구역과 노동자의 상태를 동시에 확인하기는 어렵다. 특히 작업공간이 넓거나 여러 구역으로 나뉜 현장에서는 작은 이상 징후를 놓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은 위치정보를 통해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근무 중 발생하는 상황이나 노동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출퇴근 시간 외의 안전까지 살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장애인 노동자 위험알림 서비스는 이러한 공백을 메운다. 노동자가 지정된 작업 구역을 벗어나거나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 스마트워치와 센서가 이상 신호를 감지해 해당 노동자에게 먼저 알리를 보낸다. 노동자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복귀하거나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근무 중에는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퇴근 후에는 보호자에게 상황이 전달된다. 단순한 출퇴근 기록을 넘어 근무 중과 출퇴근 전후까지 노동자의 하루 전체를 아우르는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도로 위의 배달라이더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배달라이더에게 익숙한 길은 늘 빠른 길이지만, 반드시 안전한 길은 아니다. 비가 내리거나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 평소 다니던 도로도 순식간에 위험구간으로 바뀔 수 있다. 앱은 라이더의 운행시간과 이동거리, 주행 경로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 접근하거나 피로도가 높다고 판단하면 알리를 보내고, 하루 운행이 끝난 뒤에는 이동시간과 수익, 안전운행 정보를 종합해 보여준다. 안전한 일터는 사고가 발생한 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계약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작업 전 사고사례를 살펴보고, 이상신호를 조금 일찍 발견하고, 위험 가능성이 높은 곳에 예방 자원을 먼저 투입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다.

현재 이 AI 서비스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관리자와 근로자의 실증을 거치고 있다. 아직 모든 답을 가진 완성된 기술은 아니다. 실제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판단은 줄이고, 필요한 정보는 더 쉽게 전달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기술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오늘의 일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 프로젝트가 그리는 AI의 모습이다.



본 프로젝트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공공AI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주관기관 (주제)이메이지솔루션과 참여기관 (주제)스보이(주)화이트스캔이 협업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매일 쟁길 손이 부족했던 거죠. AI가 그 빈자리를 메워주니, 하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글로벌바이오테크 문화진 대표

Q. 이번 현장 실증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도, 담당자가 모든 법령과 현장 위험요소를 매번 빠짐없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AI가 실제 업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Q.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AI가 결과를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냐보다,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현장에서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조치로 연결할 수 있어야 실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현장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일반적인 사고사례보다 현재 작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었을 때 관심이 높았습니다. 다만 현장 용어나 설명 수준은 실제 작업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군산의 문화가 더 특별해집니다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회공헌 「PROJECT YOURSIDE」 군산

올가을, YG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젝트 「PROJECT YOURSIDE」가 군산을 찾아가다. "유명 전시와 팝업은 왜 늘 서울에만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그곳 아이들이 사는 자리에서 대형 문화 콘텐츠를 만날 수 있게 해왔다.

문화를 누리려 서울까지 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문화가 먼저 찾아가는 일, 그것이 YG가 4년째 이 프로젝트를 이어오는 이유다. 지난해 경남 진주 팝업에는 3일 동안 5,000여 명이 다녀갔고, 올해는 그 무대가 군산으로 옮겨온다.



K-POP 팬이라면, 2026년 10월 군산으로 YG만의 전시가, 한 달간 군산에 머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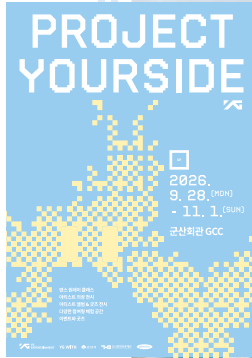
PROJECT

전시는 한 달간 이어진다. 10월 2일부터 5일까지는 군산회관(GCC)에서, 10월 8일부터 31일까지는 군산항 1981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장에는 YG 아티스트의 앨범과 굿즈, 무대에서 실제로 착용했던 의상이 놓이고 포토부스도 마련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군산의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기획해, 이들과 만든 스페셜 굿즈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 미디어월, AI가 취향에 맞는 YG 음악을 추천해 주는 키오스크, YG 아티스트의 춤을 배우는 댄스 클래스와 다양한 이벤트까지 한자리에 모인다.

※ 모든 콘텐츠는 무료이며,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프로모션



YOURSIDE

팝업 전시와 문화가 있는 날이 함께 하는 특별한 군산 여행

지역문화진흥원과 YG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이번 팝업에 맞춰 「문화가 있는 날 지역협력 캠페인」을 함께 준비했다. 국민 문화 향유 정책인 문화가 있는 날과 손잡고, 팝업을 찾은 발걸음이 군산의 미술관과 박물관, 골목의 작은 서점까지 이어지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군산의 문화시설과 골목 서점을 돌며 스탬프를 모아보자. 다시 YG 팝업 PROJECT YOURSIDE 전시장으로 돌아오면, 80년 전통 이성당과 함께 준비한 빵 세트를 리워드로 받을 수 있다.



국민 문화 향유 정책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문화가 평범한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작된 정책이다. 2014년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는 영화관, 공연장, 전시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찾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 시행 12년이 지난 지금은 공연과 전시, 다양한 문화 체험을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것은 물론, 미처 알지 못했던 지역의 문화적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을 만나는 공간 역시 문화시설을 넘어 지역의 거리와 광장, 일상의 생활공간 곳곳으로 넓어졌다.

문화는 꼭 멀리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인 아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만나는 공연 한 편, 동네에서 발견한 작은 전시, 가족과 함께 즐기는 문화체험이 우리의 생활 가까이에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2026년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면서 문화 향유의 기회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었다.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아졌다.

문화와 사람을 잇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며 평범한 하루에 새로운 경험을 더하는 '문화가 있는 날'. 전국 곳곳 문화의 활력을 더하고 있는 대표 기획 사업을 소개한다.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전국 곳곳 지역의 숨은 이야기를 담은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을 비롯하여 우리의 생활 가까운 곳에서 반가운 선물처럼 문화를 향유하고 체험을 통해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온 국가산업단지는 산업구조 변화를 맞으며 우리에게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 경제발전의 초석이었던 제조업의 정체성을 문화적 가치로 해석하여 산업단지의 문화적 특성을 입혀 산업단지 내 종사하는 근로자를 비롯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산업 단지 내에서 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가 흐르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일상 속 거리와 광장이 시민들을 위한 무대로 탈바꿈한다. 문화예술공간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연을 관람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는 다양한 끼와 열정을 가진 공연팀이 우리의 생활에서 늘 접하는 거리와 광장, 공원 등을 찾아가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는 사업이다.



전국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과 기획사업은 문화요일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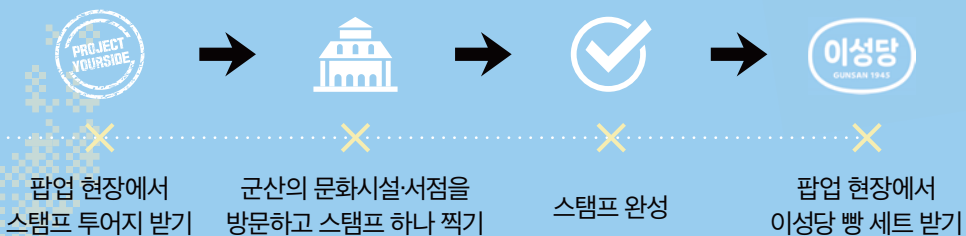
문화요일

10월의 문화가 있는 날, 군산으로 떠나보자

생기 넘치는 팝업 무대부터 감성적인 미술관, 정겨운 골목 서점과 갓 구운 빵 냄새 가득한 빵집까지.

이번 수요일에는 다채로운 즐거움이 기다리는 군산으로 향해보자.

참여방법





남원시

남원추어, 세대를 잇는 맛의 진화

기차가 전북 남원에 가까워지자 차창 밖으로 수려한 지리산과 드넓은 평야, 섬진강이 펼쳐진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 추어탕은 오래전부터 삶의 일부였다. 논과 개울에서 얻은 추어로 정성껏 끓인 추어탕 한 그릇은 지친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북돋아 주며 남원 사람들에게 친근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오랜 시간 남원의 맛을 책임져 온 추어탕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식탁을 찾고 있다. 남원추어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본다.

가을이 빚어낸 한 그릇, 남원 추어탕

추어탕의 주재료인 추어(鰍魚)는 미꾸릿과의 민물고기인 미꾸리와 미꾸라지를 모두 일컫는다. 추어에 가을 추(秋) 자가 들어간 것이 흥미로운데,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살이 오른 미꾸리와 미꾸라지로 탕을 끓여 먹는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논과 개울에서 얻은 재료로 정성껏 끓인 추어탕 한 그릇은 고된 농사일로 지친 몸을 추스르고 다음 날 거뜬히 일터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추어탕을 끓이는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남원식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곱게 갈아 체에 거른 뒤 시래기와 된장을 넣고 들깨와 제피(조피)로 마무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수하고 걸쭉한 국물에 알싸한 향이 더해져 속이 뜨끈하고, 먹고 난 후 입이 개운하다. 남원 땅에서 자란 건강한 식재료를 한 그릇에 담아내니 그야말로 보양식이 따로 없다. 광한루원 인근 추어탕 거리는 이른 아침부터 식당마다 커다란 솥을 걸고 추어탕을 끓이느라 구수한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운다. 같은 추어를 쓰더라도 집집마다 된장과 시래기가 다르고 들깨 비율도 제각각이라 서로 비교하며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남원 추어탕이 음식을 넘어 이 도시를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작 지원 (사)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

뚝배기 밖으로 나온 남원추어의 대활약

기력 회복과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한국의 전통 보양식, 추어를 일상적으로 즐기는 방법은 없을까. 이를 위해 출범한 것이 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다. 남원의 대표 음식인 추어탕을 전 국민의 일상적 음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사업단은 지역 농가와 제조업체, 외식업체를 서로 연결해 추어 식품을 개발하고, 남원추어가 새롭게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탄생한 브랜드가 남원추어 대표 브랜드 '미꾸야'다. 남원 추어탕의 정체성은 그대로 지키면서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 먹는 방법과 제품 형태를 다각화하고 있다. 대표 제품은 미꾸야의 베스트셀러 '남원추어 한우곰창전골'이다. 사업단이 자체 개발한 추어 페이스트로 만든 특제 소스에 한우 곰창과 채소를 더해, 곰창전골 특유의 진한 맛과 추어 고유의 깊은 풍미를 오롯이 담아냈다. 이러한 움직임은 추어 제품군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데우기만 하면 되는 남원추어 해장국과 육개장은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고, 바삭하게 구운 납작만두와 가볍게 집어 먹는 미꾸야 꾸이랑은 간식이나 안줏거리로 제격이다. 국물 요리에서 만두, 스낵으로 이어진 추어 요리의 대변신이 흥미롭다. 뚝배기로만 맛보던 추어를 일상에서 자주, 더 친근하게 접하게 된 것이다.



남원추어
미꾸야

(사)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

가공식품부터 외식 사업까지, 더 큰 무대로 나아가다

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은 추어를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남원에 남원추어 거점가공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추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추어 페이스트와 추어 페이스트를 이용한 소스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손질과 조리가 까다로운 추어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면 추어탕뿐 아니라 전골과 국, 면 요리 등 다양한 메뉴로 확장 가능해진다. 미꾸야의 베스트셀러인 남원추어 한우곰창전골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사업단은 원료와 소스 가공에 멈추지 않고 남원추어 거점가공센터를 발판 삼아 외식 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남원추어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로 외식을 할 때도 추어를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향후에는 원료 생산부터 가공, 제품 개발과 외식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추어를 가을 한철 특정 세대가 즐기는 음식이 아닌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접하는 식재료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남원추어를 한 지역의 대표 음식에서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사업단이 그리는 미래다. 식당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끓던 추어가 더 큰 무대로 향하고 있다. 남원추어 미꾸야와 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의 활약이 기대된다.



게임 세계, 공예와 손잡다

휴과 도자의 도시, 경기 이천·광주·여주에서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가 열린다. 주목할 프로그램은 2026 경기공예페스타의 '보더리스: 공예 아카이브'. 가상의 게임 세계가 공예가의 손을 거쳐 손에 잡히는 작품으로 탄생한다. 익숙한 게임 세계를 새로운 형태로 만나는 즐거움부터 공예의 색다른 가능성까지, 경계를 넘나드는 축제를 소개한다.



일상에서 가장 친숙한 공예를 꼽는다면 도자가 아닐까. 주방 찬장만 열어 봐도 컵, 그릇, 다기 등 다양한 도자 제품이 자리하고 있으니 말이다. 익숙한 생활 도자는 물론 도자 예술의 미래를 보여 주는 경기도자비엔날레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2년마다 열리는 경기 지역 대표 국제 도자 예술 행사로, 올해는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 동시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부터 참여형 워크숍과 세미나로 구성된 학술 행사, 마켓과 지역 연계 행사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경계를 허무는 예술적 실험 '보더리스: 공예 아카이브'

경기도자비엔날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2026 경기공예페스타의 '보더리스: 공예 아카이브'다. 영어로 경계(border) 없음(less)을



뜻하는 보더리스는 넥슨재단이 게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조명하고자 2020년부터 꾸준히 펼쳐 온 사업이다. 창작자에게 넥슨의 게임 지식재산권(IP)을 제공하고, 그들이 만든 창작물의 전시를 지원한다. 넥슨재단은 보더리스를 통해 게임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참신한 창작물을 선보여 왔다. 올해는 한국도자재단이 넥슨재단·넥슨게임즈와 손잡고 보더리스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넥슨의 인기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핵심 세계관인 '학원도시'를 도자·유리·금속·섬유·자개·목공 등 6개 공예 분야 작가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한다. 게임 속 세계가 어떻게 공예로 구현될까. 사막과 유물의 도시 '아비도스'는 균열과 퇴적의 질감을 표현한 도자 조형물로, 빛과 성스러운 도시 '트리니티'는 스테인드글라스를 연상시키는 유리 조명으로, 기계와 설계의 도시 '밀레니엄'은 금속의 투각과 부품을 조합한 작품으로 태어난다. 캐릭터를 그대로 모작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속 세계관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가 재료와 기법, 상상력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완성 작품은 2026 경기공예페스타에서 처음 공개한다. 이번 행사는 작품 전시는 물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아티스트 토크'와 제작 시연을 비롯해 여럿이 모여 공예 체험을 즐기는 클래스 '원데이 공예 크루', 문화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예 교육 '모두의 공방' 등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참여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과 경기 공예인이 제작한 굿즈를 판매하는 코너도 선보인다.



제작 지원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가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경기도자미술관, 경기도자박물관과 함께 경기도자비엔날레를 이끄는 주요 공간인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는 2019년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공공형 공예 창작 지원 플랫폼이다. 공예·공공 디자인·전통문화 사업을 펼치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의 지원 아래 '공예의 시작과 완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운영 중이다.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의 규모는 2200제곱미터로 도자·유리·목공·디지털 공방 등 다양한 창작 인프라를 구축했다. 8개의 창업 스튜디오와 세미나실, 사진 촬영실도 갖춰 아이디어 구상부터 시제품 제작, 전시까지 공예의 전 과정을 한곳에서 경험 가능하다.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폭넓은 창작자 지원 사업에 있다. 교육 프로그램, 창작 지원, 협업 지원, 사업화 지원, 대중 참여형 프로그램 등 5개 영역을 지원해 왔다. 공공기관 기념품·굿즈 개발 사업으로 여러 작품을 선보였는데, 그중 청와대 명절 선물 시리즈인 도자기 주병·잔 세트,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 축우기 세트가 크게 주목받았다.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는 지난 6년간 창작자를 지원하고 도민을 위한 문화 활동을 마련하며 건강한 공예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바로 이곳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도자비엔날레가 열린다. 게임 속 세계관이 공예 작품으로 태어나는 특별한 전시부터 작가와 함께하는 공예 체험까지 경계를 넘는 예술적 실험이 가득하다. 올가을, 온 가족이 함께 경기공예페스타로 향해 보자.

2026 경기공예페스타 '보더리스: 공예 아카이브'

기간 10월 23일~11월 1일

장소 경기 여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문의 031-887-8282



1 김천김밥축제가 열리는 사명대사공원. 가을 소풍 분위기가 물씬하다. 2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사계절썰매장. 3 해가 지면 김천시립박물관은 미디어아트 공간 '오삼이지트'로 변모한다.

2년 연속 전국을 뜨겁게 달구며 경북 김천의 대표 축제로 급부상한 김천김밥축제. 올해로 3회를 맞는 김천김밥축제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온다. 먼저 더 많은 방문객이 여유롭게 즐기도록 축제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연장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주말을 끼고 열려 가을 소풍의 선행과 낭만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장소도 사명대사공원과 직지문화공원에 친환경생태공원을 추가해 공간의 여유를 더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어린이 테마파크 존과 곳곳의 편의 시설은 한층 쾌적한 가을 소풍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장에 들어서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맛의 향연이 펼쳐진다. 대량생산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인 '김밥공장'을 필두로 전국 팔도의 개성 넘치는 이색 김밥, 김밥과 완벽한 짝궁을 이루는 분식과 달콤한 디저트 부스가 축제장을 가득 채운다. 여기에 지난해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큰 사랑을 받은 공식 캐릭터 '꼬달이'를 판매하는 대형 돔 굿즈 스토어를 운영한다. 김밥의 가장 맛있는 양 끝부분을 형상화한 귀여운 꼬달이를 활용한 신규 굿즈는 소풍에 소소한 재미를 더한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는 관람객이 직접 주인공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지난 8월 전국의 김밥 고수들이 실력을 겨룬 김천김밥국경대회를 통해 K-푸드 대표 주자인 김밥의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사전 이벤트로 준비한 '김밥 한 줄 이야기'와 '7090 그 시절 김밥 한 컷'은 저마다 간직한 김밥에 얹힌 추억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지난 축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참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점도 돋보인다. '3無(의전, 개막식, 바가지)' 운영 원칙을 정착시킨 데 이어 올해는 셔틀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재설계하고 QR코드 주문 시스템을 도입해 이동과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즐거운 여정이 되도록 배려한 것이다.

축제의 즐거움은 하루 종일 이어진다. 낮에는 김천시립박물관에서 김천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김천시 사계절썰매장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는다. 해가 지면 김천시립박물관은 미디어아트 공간 '오삼이지트'로 변모해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사명대사공원의 야경이 운치를 더하며 잊지 못할 가을밤의 낭만을 완성한다. 당일치기로는 부족한 김천 여행, 하루 더 머물며 김천의 다양한 매력을 천천히 만나 보길 추천한다. 가을바람 따라 다시 돌아온 김천김밥축제. 고소한 김밥을 먹으며 가을 소풍을 마음껏 즐겨 보자.

고소한 가을 소풍 2026 김천김밥축제

어린 시절 소풍 날 아침이면 어머니가 싸 주시는 김밥의 고소한 참기를 냄새에 마음이 설레곤 했다. 얇게 편 밥 위에 색색의 재료를 얹고 꺾꺾 눌러 만 김밥 한 줄. 정성이 담긴 김밥은 소풍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가을 소풍의 낭만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기회, 김천김밥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린다.



2026 김천김밥축제

기간 10월 23일~25일

장소 경북 김천 사명대사공원 · 직지문화공원 · 친환경생태공원 일원

문의 053-965-0910





물의 정원
춘천

월평균 800만 명이 보는 최고의 광고 효과 〈KTX매거진〉 광고주를 모십니다.

일평균 27만 명, 월평균 800만 명이 <KTX매거진>을 만납니다.

국내 최고의 열독률을 자랑하는 고품격 문화여행지,

<KTX매거진>이 광고주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02-2276-1190, jony2@bandicom.com

made in

김천을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GIMCHEON

no.21



1



3



4



© 김천시청

1 김천김밥축제 주무대인 사명대사공원. 2 사명대사공원 내 한옥 숙박 시설, 술향스테이. 3 밤이 되면 평화의 탑이 황금빛으로 물든다. 4 북과 행운을 상징하는 두꺼비 조형물. 5 평화의 탑 맞은편 한복체험관에서 한복을 유료로 빌려준다.

2



5

황악산과 직지사를 품은 대형 공원

사명대사공원

황악산의 생태 자원과 직지사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해 조성한 사명대사공원은 김천을 대표하는 문화·생태·체험형 관광지다.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높이 41미터 가량의 탑은 이곳의 랜드마크인 '평화의 탑'이다.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일본군을 물리친 승려이자 직지사 주지를 지낸 사명대사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자 세웠다.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을 참조한 5층 목탑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 양식으로 제작했다. 불탑 위 상륜부는 화려하게 조각했다. 평화의 탑 1층에서는 사명대사의 일대기가 적힌 패널을 전시하고, 평화의 탑 제작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다. 사명대사공원에는 각종 장신구와 한복을 유료로 빌려주는 한복체험관, 김천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는 김천시립박물관, 마사지·족욕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문화원,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다도를 즐기는 술향다원 등도 들어섰다. 한옥 숙박 시설 '술향스테이'는 올해 14개 동 19개 객실로 규모를 확장했다. 10월 말에는 사명대사공원과 직지문화공원 일원이 김천김밥축제의 열기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주소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4-3



1

1 화려한 조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2 해 질 무렵 김천시립박물관은 오삼아지트로 변모한다. 3 새콤달콤한 과일 향이 나는 공간에 설치된 미끄럼틀. 4 비밀 응접실에서 프리쇼 영상이 펼쳐진다. 5 꿀봉을 들고 꿀 마크를 향해 버튼을 누르면 벽면에 보석이 하나씩 채워진다.



2



3

오삼이는 수도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 이야기기 담긴 김천의 마스코트 캐릭터다. 해 질 무렵이면 사명대사공원 내 김천시립박물관이 오삼이의 아지트로 변모한다. '보물을 숨겨 놓은 비밀 공간'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오삼아지트에 보안 시스템이 작동한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방문객의 정체를 묻는 "잠깐, 거기 누구십니까?" "침입자 발견!" 같은 경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니 놀라지 말 것. 오삼아지트에 무사히 입장한 뒤에는 꿀봉을 받아 들고 천천히 보물을 구경한다. 먼저 '오삼이의 보물상자'에 들어가 화면 속 꿀 마크를 향해 꿀봉 버튼을 누르니 화려한 조명과 함께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후 '반짝반짝 알까기 폭포' '황금별 전망대' '새콤달콤 과일정원' 등 인터랙티브 공간을 차례로 지나며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보물을 만난다. 중간중간 펼쳐지는 오삼이의 재기 발랄한 퍼포먼스 영상도 웃음을 자아낸다. 과일 향이 솔솔 난다면 마지막 색선인 '데굴데굴 과일계단'과 '새콤달콤 과일정원'에 도착했다는 뜻이다. 김천의 특산품인 자두·포도·호두를 먹는 오삼이가 화면에 나타나고, 그 앞에 설치한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꿀봉으로 비밀의 문을 연 뒤 오삼이와 기념사진을 찍으면 오삼아지트 투어가 마무리된다.

주소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130

반달가슴곰의 비밀스러운 보물 창고 오삼아지트



4



5

1



1 산책로와 분수대를 설치해 휴식 공간으로 거듭난 연화지. 2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는 봉황대. 3 김산향교는 문화관광해설사와 동행해야 입장할 수 있다.

2



3



교동에서 만나는 김천의 역사

연화지 & 김산향교

연화지와 김산향교는 교동이 조선 시대 말까지 김산군(김천의 옛 지명)의 중심지였음을 알려 주는 유적이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연꽃으로 방문자의 이목을 끄는 연화지는 조선 초기에 농업용수 관개지로 조성했다. 물이 맑고 경관이 좋아 저수지 한가운데에 섬을 만들고 2층 다락 형식으로 정자인 봉황대를 지었다. 1707년(숙종 33년)부터 1711년까지 김산 군수를 지낸 윤택이 술개가 봉황으로 변해 날아오르는 꿈을 꾸 뒤, 연못을 연화지라 이름 짓고 정자는 봉황루로 고쳐 불렀다. 당시 많은 시인 묵객이 연화지를 찾아 절경을 감상하고 봉황루에서 시를 읊었다고 한다. 봉황루는 다시 봉황대로 명칭을 바꿨고, 현재 경북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다. 연화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또 다른 국가유산, 김산향교가 있다. 경북 유형문화유산인 김산향교는 나라에서 건립한 교육기관으로 고산사라는 사찰을 허물고 세웠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1634년(인조 12년)에 복원해 제사를 지내는 5칸의 대성전과 동무,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7칸의 명륜당, 학생 기숙사인 동재·서재, 내삼문과 외삼문 등이 남아 있다. 김산향교는 사전에 해설을 예약(054-439-1333)하고 문화관광해설사와 동행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주소 경북 김천시 교동 820-2(연화지), 김산향교1길 2-19(김산향교)



1

소설가 김연수가 자란 집

책방 뉴욕제과점

김연수 작가가 어릴 적 살던 집이 책방으로 재탄생했다. 작가의 누나인 김희숙 대표가 가족의 작업실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것이다. 1960년대에 부모님이 운영했던 제과점 '뉴욕제과'에서 따와 상호명을 '책방 뉴욕제과점'이라고 지었다. 10여 년간 문학동네에서 출판 마케터로 일한 김 대표는 소설, 시, 에세이 등 문학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북 큐레이션을 선보인다. 각각의 책을 빵에 비유한 블라인드 북도 판매한다. "고단한 삶을 치즈 케이크처럼 달콤하고 진하게 위로해 주는 노학자의 지혜로운 목소리를 담은 책" "샌드위치처럼 다양한 맛이 어우러져 저마다 개성을 뽐내는 책" 등 포장지에 적힌 문구가 호기심을 유발하고, 빈티지한 포장지가 갖 구운 빵을 연상시킨다. 책방 곳곳에서는 온 가족의 손길이 묻어난다. 뉴욕제과를 배경으로 찍은 부모님 사진, 첫째 딸인 김 대표가 오래 소장한 절판본, 둘째 아들이 만든 목재 가구, 셋째 아들인 김연수 작가가 연주하던 기타 등을 구경하다 보면 마치 누군가의 집에 놀러 온 기분이 든다. 특히 작가가 등단할 당시 아버지가 스크랩한 신문 기사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니 놓치지 말 것. 이제는 사라진 뉴욕제과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내가 아직 아이였을 때>에 수록된 자전 소설 '뉴욕제과점'을 읽어 보길 추천한다.

주소 경북 김천시 평화중앙9길 12



3

1 각각의 책을 빵에 비유한 블라인드 북. 2, 4 책방 뉴욕제과점은 김연수 작가의 누나이자 출판 마케터 출신인 김희숙 대표가 운영한다. 3 김연수 작가가 연주하던 기타. 5 김연수 작가의 형이 소장했던 책과 굿즈를 모아 놓은 공간.

4



2



5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곳

김천시청소년테마파크



1

김천 혁신도시에 들어선 김천시청소년테마파크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액티비티 공간이다. 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부터 아홉 살까지 이용하는 키즈 존, 여덟 살부터 입장 가능한 청소년 존으로 구성되어 전 연령대를 아우른다. 키즈 존에는 약 20개의 놀이기구를 설치해 아이들이 맘껏 뛰놀기 좋다. 각종 장애물로 이루어진 정글집 곳곳을 자유롭게 탐험하는 '플레이짐', 짜릿한 속도감을 느끼며 공중을 가로지르는 '로우 집라인', 슬라이드에 빠르게 올라 버튼을 누르는 '터치 슬라이드', 회전하는 에어바를 피해 다니며 순발력과 점프력을 기르는 '스핀 에어바' 등 오감을 깨우는 놀이기구가 다양하다. 아이들의 거친 호흡에는 웃음소리가 섞이고, 함께 온 보호자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진다. 청소년 존에서는 아빠와 딸이 범퍼카에 탑승해 승부를 겨루거나, 빠르게 변하는 인터랙티브 화면 속 동작을 똑같이 따라 하며 실소를 터뜨린다. 한쪽에서는 9미터 높이의 클라이밍을 하는 친구를 힘차게 응원하기도 한다. 김천시청소년테마파크는 인공 물살을 이용해 서핑을 하는 실내 서핑장도 운영한다. 단, 키 130센티미터, 몸무게 30킬로그램이 넘는 10세부터 이용 가능하다.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6로 31



2

1 아빠와 딸이 함께 범퍼카를 타는 모습. 2 9미터 높이의 실내 클라이밍. 3 순발력과 점프력을 길러 주는 스핀 에어바. 4 다양한 신체 감각을 자극하는 볼풀 놀이.

3



4



1

1 부항댐생태휴양펜션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부항댐출렁다리. 2 카라반 7동과 펜션 24동으로 이루어진 부항댐생태휴양펜션. 3 침대, 주방, 화장실 등으로 구성된 카라반 내부. 4 카라반과 펜션에 비치된 접이식 식탁과 의자를 사용해 야외 식사가 가능하다.



3

부항댐생태휴양펜션에서 즐기는 낭만 여행

부항댐생태휴양펜션

온종일 자연 속에 머물고 싶다면 김천에서 차로 30분가량 떨어진 부항댐생태휴양펜션이 제격이다. 2022년에 개장했으며 카라반 7동, 펜션 24동으로 이루어졌다. 카라반은 4인실 전용이며, 펜션은 4·6·8인실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 합리적인 가격에 깨끗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선선한 날씨에 캠핑 분위기를 느끼고 싶지만 준비 과정이 번거롭다면 침대, 주방, 화장실 등으로 구성된 카라반을 이용한다. 야외 천막 아래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도란도란 대화하고, 같이 요리를 만들어 나눠 먹는 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테다. 부항댐 일대에는 절경과 함께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그중 부항댐출렁다리는 256미터 길이의 현수교로, 김천의 시조인 왜가리를 형상화한 32미터 높이의 주탑이 특징이다. 투명 유리 바닥 구간을 지날 때는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해 아찔하다. 부항댐 양쪽에 설치된 88미터, 94미터 높이의 타워 사이를 오가는 청정부항레인보우집이어도 인기가 높다. 부항호 상공을 가로질러 왕복 1.7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느껴진다. 부항댐 수변 둘레길을 여유롭게 산책하며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해도 좋다.

주소 경북 김천시 부항면 부항댐길 77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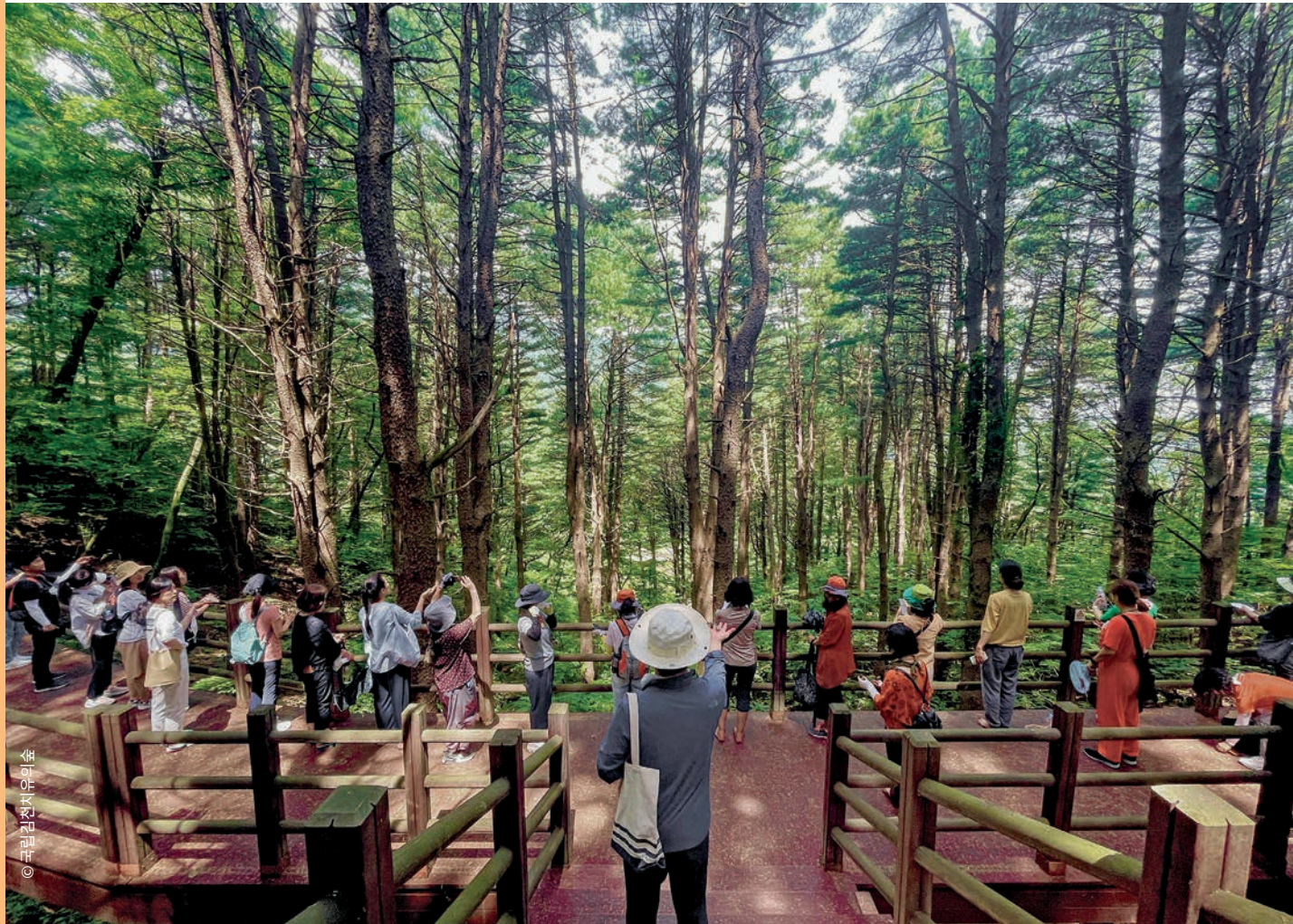
4

1



1 해발 800미터 수도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김천치유의숲.
2 국립김천치유의숲은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광택 나는 흰색 껍질이 매력적인 자작나무.

2



©국립김천치유의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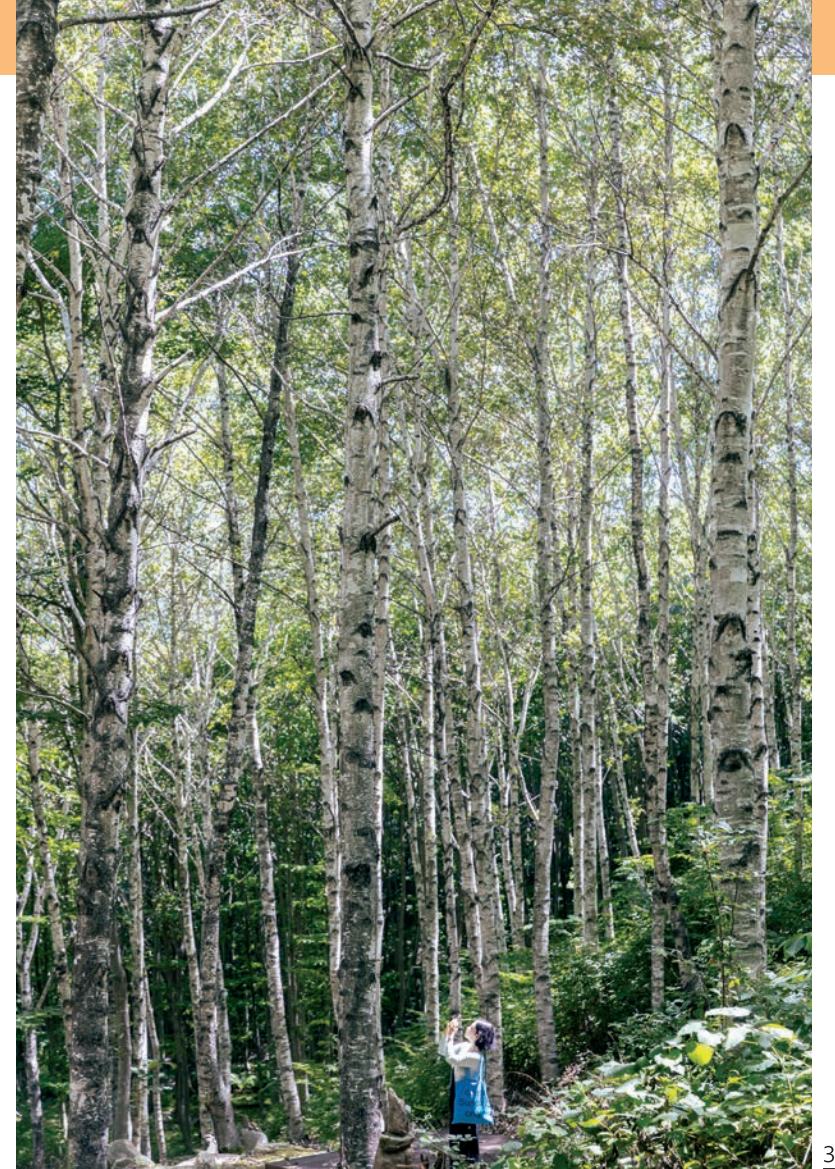
숲이 지닌 치유의 힘

국립김천치유의숲

해발 800미터 수도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김천치유의숲은 웰니스 관광지로 사랑받는 곳이다. 자작나무 숲에서 소도구를 이용해 전신을 이완하는 '수도산 웰니스 테라피', 맨발로 걸으며 경직된 몸을 깨우는 '수도산 마인드 테라피', 숲의 에너지를 느끼며 모듬복을 연주하는 '수도산 치유 두드림' 등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이곳에는 낙엽송, 자작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 여러 수종이 무리 지어 자라는데 그중 순백의 우아함을 뽐내는 자작나무가 인기가 높다. 자작나무의 광택 나는 흰색 껍질은 종잇장같이 벗겨지는 게 특징이며,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장니 천마도'가 이를 재료로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국립김천치유의숲 등산 코스는 운동 강도와 거리, 소요 시간에 따라 '관찰의 숲길' '성장의 숲길' '자아의 숲길' '아름다운 모티길'로 나뉘는데 모두 경사가 가파른 편은 아니다. 빼곡한 나무 사이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곳곳에 설치된 돌 또는 나무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오른다. 풀벌레 우는 소리,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등 자연이 들려주는 선율에 귀 기울여 보자. **KTX**

주소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길 1237-89

3



no.21

GIMCHEON



사명대사공원

오삼아지트

연화지 & 김산향교

책빵 뉴욕제과점

김천시청소년테마파크

부항댐생태휴양펜션

국립김천치유의숲

EDITOR 김수아 • PHOTOGRAPHER 김은주

제작 지원 김천시청

2026 김천김밥축제

↑ 김밥특별시
Gimbap Metropolitan · Special City

2026. 10. 23 **금** ~ 10. 25 **일**

김천시 직지문화공원, 사명대사공원, 친환경생태공원 일원



물의 정원 춘천

산을 겹겹이 두르고 강과 호수를 끼안은
강원 춘천은 거대한 물의 정원 같다.
사방이 산으로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 도시와
물길로 유연하게 연결되고, 잔잔한 물가에는
이야기가 꽃처럼 피어난다.

만화경 같은 춘천 원도심

만화경 속 세상 같다. 따로 떼어 놓으면 어디에나 있을 법한
오래된 변화가인데, 전체를 보면 하나의 단어로 수식하기 어려운
무질서함이 외려 특별한 장면을 만들어 낸다.

“춘천에 왔으니 닭갈비부터 먹어야지!”

춘천역에 도착하자마자 명동 닭갈비 골목으로 향했다. 기차가 출발할 때부터 계
획했던 일이다. 입구에서 황금 옷을 입은 닭 조형물이 반긴다. 이내 첫 번째 고민
이 시작됐다. 어느 집으로 갈 것인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스무 개 남짓한 닭갈비
집이 뽁뽁하게 들어섰다. 집집마다 블루리본 스티커, 맛집으로 소개된 TV 방송 화
면, 유명 크리에이터가 다녀간 곳 등을 강조하는 홍보 문구가 붙어 있다. 춘천에서
나고 자란 정선미 문화해설사는 어디든 기본 이상의 맛을 내니 철판에 볶아 먹을
것인지, 숯불에 구워 먹을 것인지만 결정하라고 한다.

춘천 닭갈비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
시를 일으키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특히 먹을 것이 부족했는데 닭은 소나
돼지에 비해 키우기가 수월했다. 매일 달걀을 낳고, 금세 성체가 됐다. 도심 외곽
에 양계장이 우후죽순 생긴 이유다. 양계 농가에서는 팔고 남은 닭을 화롯불이나
연탄불에 구워 먹었고, 닭을 뼈째 토막 내 얇게 포를 떠서 갈비처럼 만들어 파는
음식점들이 변화가인 중앙로에 문을 열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명동에 닭갈비
골목이 형성됐다. 철판에 각종 채소를 넣고 함께 볶아 먹는 닭갈비는 저렴하게 배
불리 먹을 수 있어 주머니 가벼운 학생과 군인에게 특히 인기가 좋았다.

손편지처럼 다정한 원도심

닭갈비 골목을 나와 유동 인구가 많은 명동에 들어섰다. 뷰티 체험 공간으로 진화
한 화장품 가게, 화사한 조명이 시선을 끄는 인형 뽑기 숲, 평범한 오늘을 소중히
기록하려는 이들로 채워진 포토 부스 등 1020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점포들이 눈
에 띈다. 애니메이션 <구름빵> 캐릭터 조형물 너머로 중앙시장 입구가 보인다. 철
물 시장, 양키 시장, 생활 시장, 제수 시장, 수산시장 등이 한데 어우러져 규모가 제
법 크다. 중앙시장은 오랫동안 천천히 변화했다. 비가 내리면 질척이던 흙바닥에
는 보도블록이 깔리고 천장에는 비와 햇빛을 막아 주는 차양이 설치됐다.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50~7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 온 기름집과 떡집, 대를 이어 운영
하는 국숫집 등 과거에서 보낸 편지 같은 다정한 집들이 구경하는 재미를 준다.

운수나 운명은 늘 변화한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흥망성쇠, 육림고개를 이야기할





120여 개의 점포가 모여 있는 명동 닭갈비 골목. 양계 농가에서 팔다 남은 닭을 화롯불이나 연탄불에 구워 먹던 것이 닭갈비의 시초다. 2 유동 인구가 많은 명동 입구에는 시대마다 가장 트렌디한 점포가 들어선다. 3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중앙시장에는 50~7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 온 노포가 많다. 4 약사고개에선 주민들이 권진규 조각가에게 배워 빛은 테라코타 작품을 쉽게 만난다.



K-미식 2026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야시장과 트로트 공연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대표 맛집이 참여하는 미식 축제로 전환하면서 호평받은 K-미식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가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닭갈비(200그램 9900원)와 막국수(6900원) 가격을 지정해 바가지요금을 없애고, 대화 용기를 권장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은 물론 QR코드 주문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역 예술인 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가수 공연, 마임·인형극 등을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축제 기간에 한해 막국수·닭갈비 포장 키트도 판매한다.

기간 10월 14일~18일 장소 강원 춘천 공지천 산책로 일원 문의 070-7576-1657



때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을 듯하다. 1980년대부터 육림고개는 매일 조금씩 바람에 삭고 별에 바랬다. 2006년 육림극장이 폐업하자 빈 점포도 늘었다. 4년 뒤 경춘선이 복선화되고 ITX-청춘이 개통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여행자가 급증하자 춘천시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육림고개 일대를 막걸리 골목과 젊은이의 거리로 전환하고 청년몰을 유치했다. 낡은 주택을 개조한 카페, 감각적인 막걸리 바, 청년 농부의 정성이 깃든 건강한 밥집이 들어서면서 거리 풍경이 변했다. 터줏대감 격인 올챙이국수집, 기름집, 뽕튀기집 같은 노포가 자리를 지키면서 춘천만의 색을 만들어 가는 듯했다.

볼수록 매력적인 육림고개

육림고개의 진짜 매력은 정적 속에서 느껴지는 분주함에 있다. 육림고개의 골곡진 역사는 이제 새로운 챕터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며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숨겨진 공간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카페 처방전'은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 온 현대한약방이 2016년에 오픈한 찻집이다. 젊은 세대가 보다 쉽게 전통 한약을 접할 수 있도록 전문 한약사가 조제한 건강한 한방차와 음료를 선보인다. 소화 기능이 약하고 몸이 찬 사람에게 좋은 보양차인 십전대보차와 조선 시대 양반들이 즐겨 마시던 쌍화당을 보강한 쌍화차가 시그니처 메뉴다. 예약하면 맥을 짚어 건강 상태를 체크하거나 한약을 지을 수 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층, 중장년층까지 한 공간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육림고개가 지켜 가야 할 정체성이 아닌가 싶었다.

육림고개에서 약사고개로 가는 길, 라일락 고목을 품은 말쑥한 얼굴의 옛집이 보인다. 책 읽는 공간 '첫서재'다. 휴직 후 춘천에 내려온 남형석·문정윤 부부가 1963년에 지은 옛집을 고쳐 2021년 공유 서재로 꾸몄다. 라운지를 중심으로 양쪽에 부부의 취향을 엿볼 수 있는 글책방과 그림책방을 만들고, 별채인 독립 서재를 두었다. 라운지 옆에는 다락으로 연결되는 문이 있다. 시선은 벽면을 가득 채운 메모에 머문다. 오픈할 당시 부부는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시간 동안 서재를 빌려주고 이용료는 편지로 받기, 최대 4박 5일 동안 다락을 내주고 숙박비는 5년 후 돈 이외의 무언가로 받기, 12칸짜리 진열대에 창작자 12명의 첫 작품을 전시·판매하고 수수료는 5년 후 돈 이외의 무언가로 받기. 많은 이들이 책을 읽기 위해, 또는 편지를 쓰기 위해 첫서재를 다녀갔고, 각자의 방식으로 흔적을 남겼다. 결국 휴직 기간인 20개월 동안만 머물려던 부부는 춘천에 정착했다. 현재 첫서재는 운영 방식을 공간 대여로 바꿨다.

첫서재 마당에서는 죽림동성당의 첨탑이 보인다. 1920년 곰실 본당으로 시작해 8년 후 약사고개에 등지를 튼 춘천 최초의 성당이다. 1949년 신축 기공식을 치른 후 완공 단계에 이르렀으나 한국전쟁으로 한쪽 벽면이 무너지면서 부속 건물이 파괴됐고, 1951년 무너진 성당을 수리해 1953년 축성했다. 1998년 대대적으로 보수하면서 가톨릭 미술가회 작가들의 작품으로 성당을 장식했다. 덕분에 '가톨릭 미술의 보고'로 불리는 죽림동성당은 내부의 스테인드글라스가 특히 아름답다. 2003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성당 입구에는 한국전쟁 직후 수녀들로 구

성된 의료진이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돌보던 '성 골품반 의원'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있고, 뒤편에는 한국전쟁 때 순교한 성직자의 무덤이 있다.

새로운 질서가 된 만화경 같은 거리

육림고개 맛집, 육림닭강정이 요선동으로 이사했다는 소리가 들렸다. 백년가게로 선정된 실비막국수, 페이스트리 식감의 수제 약과를 선보이는 버들굴, 동부콩으로 만든 대왕 쭈글레떡 '동쭈이'로 유명한 이삭떡방 등이 용기종기 모인 골목이다. 춘천야생화에서 얻은 벌꿀로 벌꿀주인 미드(mead)를 만드는 로컬 양조장 미더리봉자도 이곳에 있다. 아이들을 키우는 전업주부였던 권수연 대표는 몇 해 전 도시 양봉 사업을 접하고 청년 농부가 됐다. 벌을 키우며 양봉 부산물을 개발하다 미드주조에 도전했다. 시행착오 끝에 춘천야생화를 먹고 자란 벌의 꿀을 소양강 물로 희석한 다음 효모를 섞어 발효시켜 '비왈츠 오리지널'을 개발했다. 비왈츠(BeeWaltz)는 벌들이 꿀을 발견하면 동료들을 모으기 위해 팔자 모양으로 춤을 추는 데서 착안한 이름이다. 이후 야생화 꿀을 6시간 이상 캐러멜라이즈해 만든 비왈츠 보썬와 강촌의 유기농 장미 농원에서 재배한 식용 장미를 이용해 비왈츠 로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춘천에는 비왈츠를 포함해 열여덟 곳의 로컬 양조장이 있다. 막걸리부터 위스키까지 거의 모든 주종을 생산하는데, 모두 춘천의 맑은 물이 만들어 낸 기적이다.

바람을 따라 강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물길과 원도심이 만나는 교차로 위에 비행접시처럼 떠 있는 거대한 설치물 '소양아트서클'이 눈에 띈다. 총길이 188미터의 보행 전용 육교로, 알록달록한 색상과 다채로운 패턴이 인상적이다. 구조물 위에 올라서자 소양강과 삼악산, 소양강스카이워크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주말이면 소양아트서클 위 전망대에서 버스킹, 코미디 쇼, 라이브 연주회, 인형극 퍼포먼스, 국악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연다.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관람한다. 소양아트서클이 발을 딛는 순간마다 예술 작품을 만나는 곳이라는 말에 절로 공감이다.

낮과 밤이 교차되는 시간, 해가 저무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니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강스카이워크가 시야에 들어온다. 소양아트서클에서 내려와 '소양강 처녀'를 훑어거리며 소양강스카이워크 쪽으로 향했다. 강 쪽으로 174미터 돌출한 전망대로, 156미터 구간을 투명한 유리로 만들었다. 4센티미터 두께의 특수 강화유리 세 장을 겹쳐 안전성을 확보했다는데, 발아래를 보니 아찔하다. 팔을 벌리고 춤추듯 걷는 아이에게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물 위를 나는 요정이 된 것 같아 기분 좋아요"라는 귀여운 답이 돌아온다.

해가 저문 후 번개시장을 찾았다. 의암댐 건설로 호수가 생긴 후 통통배에 농산물을 싣고 와 신작로에 벌인 난전에서 시작된 시장이다. 오전 4시 즈음 시작해 9시가 되기 전에 번개같이 사라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2014년 난전에 가깝던 시장을 정비해 깔끔한 전통 시장으로 탈바꿈했다. 번개시장은 흑서기와 흑한기를 제외한 금·토·일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야시장으로 열린다. 신나는 버스킹 공연과 노래자랑, 플리마켓 등이 펼쳐진다. 올해는 10월 10일까지 이어진다.



1 전문 한약사가 조제한 한방차를 선보이는 육림고개 카페 처방전. 2 다년간 이들이 남긴 메모로 가득한 첫서재 벽면. 공유서재에서 공간 대여로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 3 바닥을 투명한 유리로 만든 소양강스카이워크. 4 물길과 원도심이 만나는 교차로에 설치한 보행 전용 육교 소양아트서클은 걷는 순간 완성되는 공공 예술 작품이다.





Yukrimgogae, Beauty Revealed Up Close

Café Prescription is a teahouse opened in 2016 by a traditional herbal medicine shop that had occupied the same spot for many years. To make traditional herbal medicine more accessible to younger generations, licensed herbal medicine specialists prepare a range of nourishing herbal teas and drinks. Signature offerings include Sipjeondaebocha, a tonic tea recommended for those with weak digestion or a tendency to feel cold, and Ssanghwacha, an enhanced version of ssanghwatang, a traditional tonic tea once enjoyed by the yangban elite of the Joseon dynasty. With a reservation, visitors can have their pulse checked to assess their general condition or have herbal medicine prepared.

First Book Salon is a shared library that opened in 2021 after an old house built in 1963 was renovated. Centered around a lounge, the space has separate prose and picture-book libraries reflecting the tastes of the husband and wife who run it, along with a private study in a detached building. A door beside the lounge leads up to a loft. Over the past five years, many visitors have come to First Book Salon to read and write letters, and the lounge walls are now covered with the letters they left behind. First Book Salon has shifted to a space-rental model.

From the courtyard of First Book Salon, you can see the spire of Jungnim-dong Cathedral. As the first Catholic church in Chuncheon, it underwent extensive renovations in 1998, when works by members of the Catholic Artists Association were installed throughout the church. The church is now regarded as a treasure trove of Catholic art, with its stained-glass windows being particularly beautiful.

Address 23-4, Jungang-ro 77beon-gil, Chuncheon-si, Gangwon-do (Café Prescription), 36, Chuncheon-ro 145beon-gil (First Book Salon), 23, Yaksagogae-gil (Jungnim-dong Cathedral)

물 위에 새기는 낭만

서울 용산에서 출발해 청량리와 춘천을 잇는 ITX-청춘의 이름은
‘청량리’와 ‘춘천’의 머리글자를 따서 지었다. 운명처럼
춘천은 오래전부터 호수의 낭만을 품은 청춘의 도시로 불렸다.

춘천은 호수의 도시로 불리지만 60여 년 전만 해도 강의 도시였다.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는 곳에 도시가 발달했고, 강을 따라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배가 닿던 나루터가 20여 곳에 달했다. 1967년 의암댐을 건설하면서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하는 협곡이 막혔고, 인공 호수인 의암호가 탄생했다. 댐을 건설하면서 수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궁금하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앞에서 쏘가리상을 받치고 있는 시멘트 구조물을 참고하면 된다. 일제강점기에 화천댐을 짓는 데 필요한 건설자재를 수송하기 위해 설치한 삭도인데, 수면이 높아지면서 대부분 물에 잠기고 윗부분만 남았다. 의암호 중심에 있는 상중도와 하중도도 원래 하나의 섬이었다. 댐 건설 후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갈라 물길을 냈다고 한다. 호수가 된 강과 물길이 바뀌며 달라진 도시를 좀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봐야겠다.

물을 벗 삼아 낚선 속도로 여행하기

여행하는 속도가 달라지면 감상도 달라질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원위원회 홈페이지(ctl.or.kr)에 접속해 자전거를 타고 의암호 변을 달리는 ‘에코라이드’ 투어를 신청했다. 자전거와 안전 장비를 대여해 줘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여행자에게 제격인 프로그램이다. 라이딩 코스는 소양아트스쿨 근처 자전거여행자의집에서 출발해 소양2교를 건너 세월교까지 갔다가 복귀하는 ‘세월교 코스’와 춘천대교, 하중도수변생태공원을 지나 출발지로 돌아오는 ‘하중도 생태 코스’로 나뉜다. 전자는 총길이 19킬로미터로 90분, 후자는 총길이 14킬로미터로 70분이 소요된다. 고민 끝에 하중도 생태 코스를 택했다. 자전거여행자의집에서 만나 참가 기념품으로 받은 라이드 조끼를 착용한 뒤 헬멧을 쓰고 출발했다. 페달을 밟자 시원한 강바람이 따가운 별을 밀어낸다. 소양강 처녀상을 지나 춘천대교로 접어들었다.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 위를 미끄러지는 수상스키어와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나는 파라모터 글라이더 사이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면서 레저 천국에 와 있음을 실감한다. 레고랜드 정문에서 하중도수변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숲이 터널을 이루며 그늘을 만들어 낸다. 풍광 좋은 곳에 멈춰 사진을 찍거나 선상 카페에 앉아 간식을 즐기는 시간도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다. 소양강 처녀상, 춘천대교, 하중도수변생태공원, 춘천대침기념평화공원 등 숨은 이야기가 있는 스폿마다 가이드





1 춘천중도물레길의 나무 카누를 타고 새로운 시선으로 의암호를 감상한다. 2, 4 자전거를 타고 의암호 물길을 따라 달리는 에코라이드 투어. 자전거 대여는 물론 기념품, 간식, 완주 메달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한다. 3 조금만 올라가도 압도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암벽등반 코스, 춘클릿지.



의 해설이 곁들여져 더욱 만족스러웠다. 속도가 달라지면 시야가 변하는 게 확실하다. 여행하는 내내 지났던 길 위에서 낯선 춘천과 만난 기분이다.

물 위에서 보는 춘천은 어떤 모습일까. 바다 같은 호수를 품은 춘천에서는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그중 가장 매력적인 건 나무 카누다. 통나무를 길게 잘라 속을 파낸, 인류 역사를 바꾼 발명품을 타고 호수 위에 떠 있는 상상을 하니 심박수가 빨라진다. 춘천중도물레길 홈페이지(ccmullegil.co.kr)에 접속해 코스를 살폈다. 하중도 아래 물길까지 다녀오는 '자연생태공원길'과 삼악산과 의암댐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워크길' 중 초심자도 비교적 도전하기 쉬운 전자를 택했다. 예약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안전 교육을 받았다. 선크림을 덧바르고 챙이 큰 모자를 쓰고 카누에 올랐다. 선체가 날렵해 흔들리거나 뒤집힐까 겁났는데 의외로 안정적이다. 강사의 조언대로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지만 않으면 물에 빠질 일은 없어 보인다. 선착장에서 멀어질수록 잔잔한 호수가 더욱 고요하게 느껴진다. 하중도에 다다르자 물과 땅의 경계를 잇는 수생식물 군락 덕분에 자연다큐멘터리 속 한 장면으로 들어온 기분이 든다. 산마루에 긴 그림자를 남기며 뉘엿뉘엿 해가 넘어간다. 반짝이는 윤슬 위를 통통한 밀잠자리가 서성인다.

산 위에서 호수감상하는 방법

2013년 청동 조형물로 재탄생한 인어상을 보러 가는 길에 어깨에 밧줄을 두르고 절벽 아래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암벽등반의 성지 '춘클릿지'로 향하는 춘천스포츠클라이밍협회의 임동균·정재혁 강사다. 임동균 강사는 '어프로치(등반이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20미터로 짧고 조금만 올라가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인기 코스'라고 춘클릿지를 설명했다. 직각에 가까운 암벽 한 구간을 '피치'라고 하는데, 암벽등반은 피치를 끊어서 올라가는 멀티피치와 한 번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하드폴로 나뉜다. 춘클릿지는 멀티피치 코스로 높이가 200미터에 이르는데, 30~40미터 길이의 피치 일곱 개를 오르면 정상에 닿는다. 1피치가 끝나는 지점부터 의암호의 멋진 풍경이 펼쳐지며, 4피치가 하이라이트 구간이다. 두 사람을 따라 1피치가 시작되는 암벽 아래에 섰다. 아찔한 경사에 더덕 겁이 났다. 허리 벨트에 로프를 단단히 고정하는 정재혁 강사에게 10년 넘게 암벽을 오르는 이유를 물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는 전신운동이라든지 등산로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정복하는 쾌감 같은 것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실패하는 스포츠'라 좋다고 했다. 수없이 실패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자 목적이란 뜻이다. 가파른 바위벽을 시험문제 풀 듯 신중하게 오르는 두 사람을 지켜봤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의암호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삼악산은 높이 655미터의 주봉 용화봉을 포함해 청운봉, 등선봉까지 세 개의 봉우리를 품은 산이다. 봉우리에서 뻗어 내린 능선이 암봉을 이루는데, 규모는 크지 않지만 경관이 수려해 많은 등산객이 찾는다. 2021년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악산 상단을 연결하는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했다. 3.61킬로미터로 국내 최장 길이다. 바닥까지 투명한 유리로 만든 크리스털 캐빈에 몸을 실었다. 유리창에 적힌 "안녕, 삼악산"이라는 문구 너머로 산으로 둘러싸인 호수와 물길 따

라 형성된 도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의암호 정차장에서 삼악산 정차장까지는 20 분가량 소요된다. 삼악산 정차장 뒤쪽으로 난 산책로를 따라 전망대로 향했다. ‘ㄷ’자로 설계된 삼악산스카이워크는 아찔한 높이에 가만히 서 있기에 해도 겁난다. 춘천을 여행하는 동안 매일 따라다니던 수식어 ‘호반의 도시’, 이곳에 서니 비로소 도시의 시간들이 읽히는 듯하다.

예술 도시 춘천을 만드는 문화공간

산과 호수가 춘천을 낭만의 도시로 만들었다면 마임, 연극, 인형극, 애니메이션 등은 춘천을 예술의 도시로 만드는 중이다. 춘천마임축제는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자리 잡았고, 춘천인형극제는 매년 가을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린다. 소규모 공연 전문 ‘축제극장몸짓’과 국내 유일의 인형극 전용 ‘춘천인형극장’, 국내 최초 ‘애니메이션박물관’ 등이 그 토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느낌이다. 덕분에 춘천은 1년 내내 공연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도시가 됐다. 2003년에 개관한 애니메이션박물관은 6만 점이 넘는 애니메이션 관련 자료를 보존 및 전시한다.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춘천역과 마주 보고 있는데, 2029년 서면대교가 개통할 때까지 먼 길을 돌아 가야 한다. 박물관은 2층으로 구성되었다. 1층에는 애니메이션의 기원과 탄생, 제작 기법 등을 전시했다. 1만 년 전 알타미라 동굴벽화부터 한국 애니메이션 탄생의 역사를 펼쳐더니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가스 영상기, 페이퍼 영상기, 유리 필름 등 진귀한 자료를 보여 준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각종 애니메이션 자료를 시대별로 정리한 공간에서는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든다. 2층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애니메이션의 시대별 변천사를 소개한다. 1989년 제1회 춘천인형극제가 열리면서 태동한 춘천인형극박물관은 2004년에 개관했다. 중요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사당패 꼭두각시놀음 인형을 비롯해 한국 근현대 인형극단에서 사용했던 인형을 전시한다. 또 마리오네트라 불리는 줄 인형, 손 인형, 장대 인형 등 세계 각국의 특색 있는 전통 인형 17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바로 옆 춘천인형극장에서는 기획 공연도 개최된다. 춘천인형극제 홈페이지(cocobau.com)에서 다양한 공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행을 마무리하기 전 춘천역 뒤편의 화동2571에 들렀다. 춘천과 강원도의 로컬 식재료를 활용해 다국적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 라토피아와 청년 셰프가 개발한 메뉴와 브랜드를 선보이는 마켓2571 등이 모인 먹거리 복합 공간이다. 라토피아에서 치킨 레드스튜를 주문했다. 춘천 대표 음식인 닭갈비를 유럽풍으로 재해석한 요리다. 오랜 시간 정성껏 끓인 토마토의 풍미가 담백한 닭고기에 감칠맛을 더한다. 남은 국물로 조리해 주는 리소토도 별미다. 닭 요리를 즐기는 방식이 하나 추가된 기분이다. 계절별 나물을 듬뿍 넣은 잠봉 나물 파스타와 강원도식 집 된장에 부드러운 크림을 더한 된장 라구 파스타, 버섯 페스토로 풍미를 더한 버섯 페스토 파스타 등도 맛보고 싶다. 화동2571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9월 11일부터 이틀간 이곳에서 춘천 술 페스타가 개최된다. 전통주와 어울리는 다양한 미식 안주 콘텐츠, 양조살롱 등 복합 로컬 문화 축제가 호숫가의 낭만을 더할 것이다. 춘천에 다시 와야 할 이유를 남겨두고 열차에 올랐다. **KTX**



+ 제38회 춘천인형극제

춘천인형극제는 1989년 첫 개최 이후 춘천을 세계 인형극의 중심으로 만든 축제로 국적과 장르, 세대를 아우르는 예술가와 시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페스티벌이다. 올해도 세계 각국 최정상 아티스트가 선보이는 인형극 공연부터 춘천 전역을 화려하게 물들일 퍼펫 카니발, 인형극 아트마켓 등 발길 닿는 곳마다 새로운 이야기로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기간 9월 10일~16일 **장소** 강원 춘천인형극장 및 춘천시 일원
문의 033-242-8452



제작 지원 춘천시청



1 라토피아의 시그너처 메뉴, 치킨 레드스튜. 춘천 대표 음식인 닭갈비를 유럽풍으로 재해석했다. 2 복합 미식 문화 공간 화동2571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 3 익숙한 캐릭터와 함께 진귀한 애니메이션 자료를 전시하는 애니메이션박물관.





Waterfront Activities for an Adventurous Journey

The Eco Ride tour lets visitors cycle along the shores of Uiamho Lake, with bicycles and safety equipment included in the rental fee, making it ideal for travelers who prefer to explore spontaneously. The cycling routes are divided into two options. The Sewolgyo Course starts at the Bicycle Travelers' House near Soyang Art Circle, crosses Soyang 2-gyo Bridge, continues to Sewolgyo Bridge, and returns to the starting point. The Hajungdo Ecological Course passes Chuncheon Bridge and Hajungdo Ecological Park before returning to the starting point. Snacks and drinks are provided, along with a finisher's medal.

Joung Do Mullegil is a recreational activity that lets visitors explore Uiamho Lake by wooden canoe. Choose between the Natural Ecological Park Course, which reaches the waterways beneath Hajungdo, and the Bungeoseom Course, which offers spectacular views of Samaksan Mountain and Uiam Dam. The farther the canoe travels from the dock, the more tranquil the already-calm lake seems, creating the sensation of stepping into a scene from a nature documentary.

In 2021, the Chuncheon Samaksan Mountain Lake Cable Car began operating across Uiamho Lake, connecting the lakeside with the upper slopes of Samaksan Mountain. Stretching 3.61 kilometers, it is the longest cable car route in Korea. Ride to the summit in a Crystal Cabin with a fully transparent glass floor, then follow the trail to the Samaksan Skywalk Observatory. From this vantage point, it becomes easy to see why Chuncheon is known as the City of Lakes.

Address 2676, Yeongseo-ro, Chuncheon-si, Gangwon-do (Eco Ride Departure Point), 95, Sports town-gil 223beon-gil (Chuncheon Joung Do Mullegil), 245, Sports town-gil (Samaksan Mountain Lake Cable Car)

육동한 춘천시장 다시 피는 춘천

원도심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육동한 춘천시장에게 물었다.



정지현

올가을 춘천에 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춘천의 가을은 축제 열기로 가득합니다. 먼저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제38회 춘천인형극제가 열립니다. 10개국에서 출품한 105개 작품과 퍼레이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어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이어집니다. 80여 개국에서 2000여 명의 국가대표급 선수단이 참가하는 국제 대회입니다. 10월에는 9일부터 3일 동안 춘천커피축제가, 14일부터 5일 동안 K-미식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가 공지천 수변에서 열립니다. 축제를 즐기며 공지천을 산책하거나 소양아트서클에서 노을을 감상해 보세요.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에 올라 단풍으로 물든 산과 호수를 감상할 것도 추천합니다.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는 지난해에 축제의 전형적인 레퍼토리를 탈피해 미식에 집중하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는 지난해부터 상업형 부스를 줄이고 춘천 대표 막국수·닭갈비 업소와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도록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춘천의 진짜 맛'을 만나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세계의 음식과 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글로벌 미식 콘텐츠와 K-치킨벨트 연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취식 공간을 넓히고 반려동물 놀이터와 가족 체험 프로그램도 보강합니다. 농부 장터와 플라마켓을 둘러보고, 수변 공원을 즐기며, 업소마다 다른 맛의 막국수와 닭갈비를 비교해 보길 권합니다.

시장님은 춘천 효자동에서 나고 자란 춘천 사람입니다. 곳곳에 많은 추억이 있을 듯합니다.

효자동 골목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명동, 중앙시장을 오갔고, 학교 가던 길에 있는 오래된 가게와 항상 마주치던 이웃 주민들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도로 아래로 사라졌던 역사천에 맑은 물이 흐르면서 시민들의 산책길이 된 모습을 보면 감회가 새로워요. 그 익숙한 풍경에 청년들의 새로운 문화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 위에 새로운 삶을 채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추억과 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시장님이 가이드가 되어 원도심 세 시간 여행을 제안한다면, 어떤 코스를 안내할지 궁금합니다.

중앙시장에서 출발해 명동 닭갈비 골목과 춘천 지하상가를 둘러보고 죽림동성당과 육림고개까지 걸은 다음 소양아트서클로 이동하는 코스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장 골목을 거닐며 상인들과 손님들이 만드는 다정한 분위기를 느껴 보세요. 명동 닭갈비 골목에 들어서면 철판 위에서 닭갈비가 지글지글 익는 소리와 매콤한 향이 발걸음을 붙잡을 겁니다. 식사 후에는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하고 죽림동성당의 아름다움을 감상한 다음 육림고개의 개성 만점 상점들을 둘러보세요. 마지막으로 소양아트서클에서 노을을 감상하면 완벽한 여행이 될 겁니다.

원도심 외에 꼭 가봐야 할 숨은 명소가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춘천은 호반의 도시입니다. 호수는 멀리서 봐도 아름답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더 매력적이지요.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를 타면 의암호를 가로지르는 하늘길에서 산과 호수가 빚어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인 춘천사이로248을 건너 하중도수변생태공원까지 걷다 보면 의암호의 아름다움을 보다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춘천다운 체험은 의암호 물레길 카누입니다. 노를 저어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가면 도시의 소음이 찾아들며 황홀한 고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이나 노을이 붉게 번지는 저녁 무렵 호수 위에서 오토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 보길 바랍니다.

소양아트서클 공개, 원도심을 되살리는 리본(Re-Born) 시티 프로젝트 진행, 춘천시립미술관 설립 추진 등으로 춘천 여행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리는 춘천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호수와 원도심, 문화 예술이 하나의 생활·관광 동선으로 이어지는 도시를 꿈꿉니다. 소양아트서클은 시민과 여행자가 호반 풍경 속에 머물며 예술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명동과 중앙시장, 지하상가, 육림고개를 연결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리본 시티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2030년 개관 예정인 시립미술관은 춘천이 간직한 예술 자산을 모으고, 지역 예술가의 창작과 시민의 문화생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에게는 일상적 문화 예술을, 예술가에게는 더 넓은 기회와 무대를, 여행자에게는 춘천에 하루 더 머물 이유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옛 탄광의 기억을 잇다, 문경

1960~1980년대 한국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던 경북 문경. 1994년 폐광 이후 탄광의 흔적이 새로운 풍경으로 되살아났다. 폐선된 철로 위로 자전거가 달리고, 광차가 오가던 간이역은 카페로 변모했다. 은성탄광 터에는 테마파크가 들어서 가족여행자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문경에 옛 탄광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다.



1

1

탄광 터에 들어선 테마파크 문경 에코월드

아이와 함께하는 당일치기 문경 여행을 계획한다면 문경 에코월드가 제격이다. 문경 에코월드는 기존 석탄박물관과 가은오피넷장에 에코타운, 자이언트 포레스트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을 더한 복합 생태 문화 테마파크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만 원. 103만 제곱미터의 너른 부지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해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다. 문경 에코월드가 들어선 자리는 한국 최초의 무연탄광인 은성탄광의 터였다. 1963년 본격 채굴을 시작해 1980년대까지 국가 경제의 핵심 에너지원을 생산했던 은성탄광은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1994년 문을 닫았다. 은성탄광 터에 들어선 석탄박물관은 석탄의 기원과 채굴 과정, 광부 복장과 채탄 장비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박물관 뒤편으로 이어지는 은성갱도와 탄광 사택촌에서 광부들의 작업 현장과 생활상도 생생하게 살펴본다. 탄광 사택촌 바로 옆 에코타운에는 백두대간의 생태를 미디어 콘텐츠로 풀어낸 에코서클부터 어린이 놀이 공간인 에코 키즈 존, 첨단 농업 기술을 선보이는 에코팜까지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다. 야외 놀이터인 자이언트 포레스트는 모험심을 자극한다. 거인의 포크와 수저를 형상화한 미끄럼틀, 거인의 옷 속으로 들어가 길을 찾는 하트 미로,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 거대한 종이배 연못 등 이색적인 시설이 많아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논다. 모노레일을 타고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면 사극 드라마 속으로 들어온 듯한 가은오피넷장과 만난다. 가은탄광에서 나온 폐석을 쌓아 올린 뒤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 조성한 곳이다. 평양성과 안시성, 관아와 자갯거리 등을 정교하게 재현해 당장이라도 고구려 시대 복장을 한 사람이 튀어나올 듯하다. 삼국시대부터 석탄 산업 전성기를 지나 21세기 현대까지 서로 다른 시대가 한 공간에 펼쳐진 모습이 낯설고도 묘하게 느껴진다.



2



3

1 에코서클에서는 백두대간의 생태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포레스트 판타지아'가 360도 대형 원형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2 탄광 사택촌에서 구수한 문경 사투리로 나누는 옛 광부 가족의 대화가 생생한 음성으로 흘러나온다. 3 석탄박물관의 거미열차를 타고 석탄 생성부터 채굴 과정까지 석탄 산업의 역사를 영상과 모형으로 재미있게 살펴본다.

광부의 고된 하루를 위로하던 맛
광성식당 & 메밀꽃 & 소마

전국의 젊은이들이 탄광으로 몰려들던 문경의 옛 영광은 사라졌지만, 그 시절 광부들의 허기를 달래던 음식은 여전히 명맥을 잇고 있다. 탄광촌에서 일하던 광부들은 고된 일을 마친 후 목에 낀 탄가루를 씻어 내기 위해 기름기 많은 돼지고기를 먹었다. 그중 약돌돼지는 광부들이 즐겨 먹던 돼지고기를 고품질로 개발한 문경 특산물이다. 약돌은 가은읍 수예리에 분포한 특수 광물을 가리킨다. 이 돌을 갈아 넣은 사료를 먹여 키운 약돌돼지는 쫄깃하고 맛이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30년째 약돌돼지 석쇠구이 정식을 파는 광성식당에서는 고추장 특제 소스에 재운 고기를 일주일가량 숙성한 뒤 주문 즉시 연탄불에 구워 낸다.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자글자글 익은 고기를 상추에 올리고 편마늘을 곁들이면 은은한 불 향과 함께 매콤 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운다. 탄광 시절 음식으로 족살찌개도 빼놓을 수 없다. 문경에서는 돼지 앞다리에 붙은 살코기와 껍데기를 묶어 '족살'이라 부른다. 족살찌개 전문점 메밀꽃에서는 족살에 돼지고기와 궁합이 좋은 능이버섯을 넣어 풍미를 더한다. 자작하게 끓인 찌개를 흰밥에 얹어 한술 뜨면 고소한 육즙과 질은 능이버섯 향이 어우러지면서 칼칼한 국물이 입안을 개운하게 한다. 탄가루를 뒤집어쓴 광부들이 퇴근 후 돌려앉아 얼큰한 찌개 한 그릇 비우는 모습을 떠올리면 그 맛이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사라진 탄광의 모습을 디저트로 재현한 메뉴도 있다. 카페 소마의 은성탄광눈꽃빙수다. 검은 탄광을 축소해 놓은 듯한 흑임자 빙수에 석탄을 연상시키는 흑임자 인절미와 오색 젤리를 빙 둘러 장식하고, 볶은 메밀과 초코 크림볼을 올린다. 삼 모양 손가락으로 빙수를 깊숙이 파면 안에 숨어 있던 팔이 모습을 드러낸다. 고소한 흑임자와 달콤한 팔이 어우러진 빙수를 한 손가락씩 떠먹다 보면 하루의 고단함이 사르르 녹아내린다.

주소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18(광성식당), 신흥1길 11(메밀꽃), 가은읍 대야로 2426-4(소마)
문의 054-572-3466(광성식당), 054-553-9990(메밀꽃), 054-571-7475(소마)



1 메밀꽃의 족살찌개는 능이버섯을 더해 깊고 진한 풍미를 살린다. 2 특제 고추장 소스를 입혀 구운 약돌돼지에 편마늘을 올린 씹이 먹음직스럽다. 3 소마의 시그너처 메뉴인 은성탄광눈꽃빙수. 삼 모양 손가락으로 달콤한 팔을 캐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4 석쇠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 가는 약돌돼지가 군침을 돌게 한다.



1전국을 누비는 자전거 여행자들이 불정역 앞 국토
종주자전거길 인증 센터에 들러 스탬프를 찍고 잠시
쉬어 간다. 2카페 가은역에서 맛보는 가은역 크림
라테와 오미자 에이드. 3 벽에 걸린 역장 제복과 승강장
간판이 옛 간이역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4 카페로
변모한 가은역에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5 불정역 인근 페터널은 벽면이 창문처럼 뚫린 독특한
구조로, 햇살이 드는 시간에 신비로운 풍경을 빚어낸다.



| 3 |

옛 간이역이 내준 심포 불정역 폐역 & 카페 가은역

탄광 주변 간이역은 광부와 석탄을 실은 열차로 북적이던 곳이었다. 그러나 석탄 산업의 쇠퇴와 함께 열차가 멈추고 철로도 차례로 폐선됐다.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옛 정취를 간직한 간이역은 그대로 남아 있다. 불정역과 가은역이다. 문경선의 시작점인 점촌역과 철로 자전거가 다니는 진남역 사이에 자리한 불정역은 1955년 경북 최대 탄광이었던 대성광업소의 석탄을 실어 나르기 위해 건립했다. 보통 간이역은 목조나 시멘트로 짓는데 불정역은 하부는 화강석으로, 상부는 영강 변에서 채집한 자연석으로 지은 석조 건축물인 점이 흥미롭다. 역사 앞 녹슨 철로는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성한 풀에 덮여 있고, 그 안에서 풀벌레가 뛰논다. 철로 앞에는 국토 종주 자전거길 인증 센터가 자리해 전국의 자전거 여행자가 이곳에 들러 스탬프를 찍고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잠시 쉬었다 간다. 문경 에코월드에서 도보 5분이면 닿는 가은역은 1955년 문을 열어 은성탄광에서 캔 석탄을 실은 열차가 다니다가 2004년 운영을 마쳤다. 단층 건물에 삼각 모양의 박공지붕, 세로로 긴 수직 창문 등 1950년대 목조 간이역의 건축 형태를 간직해 2006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굳게 닫혔던 역사에 다시 불이 켜진 것은 2017년.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높은 가은역을 그대로 방치하기 아쉬웠던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곳에 카페를 열었다. 대표 메뉴는 가은역 크림 라테. 고소한 크림 라테 위에 문경 특산물인 사과로 만든 쿠키 크림볼을 올린다. 주말에는 스콘과 마들렌, 피낭시에 등 수제 디저트도 정성껏 구워 낸다. 공간 한쪽에 놓인 역무원 모자를 쓰고 가은역 앞 철길 위에서 기념사진을 찍어도 좋다. 기차가 떠난 철길에는 여행자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그 위에 새로운 추억이 하나둘 쌓여 간다.

주소 경북 문경시 불정강변길 187(불정역 폐역), 가은읍 대야로 2441(카페 가은역) 문의 054-571-2441(카페 가은역)

4

숲과 하늘, 철길에서 즐기는

문경 액티비티

문경 하면 문경새재, 문경찻사발축제, 문경 사과 등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문경은 스포츠의 도시이기도 하다. 철로 자전거, 산악 바이크, 패러글라이딩 등 꽤나 다채로운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그중 철로 자전거는 과거 석탄을 나르던 기차길을 달리는 액티비티다. 진남역에서 출발해 진남교반과 영강 변을 거쳐 구량리역까지 달리는 총 7.4킬로미터의 진남역 코스는 왕복 1시간 정도 걸린다. 자전거에 전용 보조 시스템이 탑재돼 큰 힘 들이지 않고도 가볍게 페달을 밟으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철로 자전거보다 더 빠른 속도감을 느끼고 싶다면 산악 바이크에 몸을 맡겨 보자. 6~7킬로미터의 오프로드 코스에 자갈길과 숲길, 철길, 물웅덩이가 켜켜이 이어져 지루할 틈이 없다. 특히 '모래 파도 코스'에서는 굴곡진 모래언덕을 넘을 때마다 바이크가 거칠게 요동치며 스릴이 최고조에 달한다. 최근 이색 체험으로 떠오른 문경관광사격장도 놓칠 수 없다. 4종의 사격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중 클레이 사격은 전국에 전문 시설이 열 곳이 채 되지 않는다. 하늘로 솟아오른 클레이 접시가 총에 맞아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짜릿한 쾌감과 함께 목은 스트레스가 단번에 날아간다. 공기 소총과 권총, 스크린 사격은 계절이나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초보자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 하늘에서 문경의 산세를 감상하고 싶다면 패러글라이딩이 제격이다. 해발 866미터 단산의 활공장을 힘차게 달려 도착하는 순간, 몸이 붕 떠오르며 구름이 손에 잡힐 듯한 높이까지 금세 날아오른다. 발아래로는 백두대간의 웅장한 능선과 고요리 일대의 아기자기한 집들이 아스라이 내려다보인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 땅에 발을 딛고 나서도 한동안 하늘에서 바라본 풍경이 아른거린다. **KTX**

주소 경북 문경시 마성면 진남1길 155(문경철로자전거 진남역), 마성면 문경대로 1325(문경산악바이크), 사격장길 155(문경관광사격장), 문경을 활공장길 122(문경패러글라이딩) 문의 054-553-8300(문경철로자전거 진남역), 054-554-3912(문경산악바이크), 054-553-0001(문경관광사격장), 1688-6707(문경패러글라이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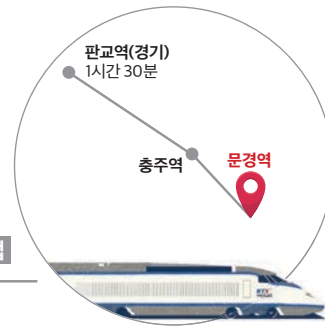
단산 활공장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
발아래로 백두대간과 고요리 일대의
집들이 아스라이 펼쳐진다.



1

1 하늘로 솟아오른 클레이 접시가
총에 맞아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짜릿한 쾌감과 함께 목은 스트레스도
날아간다. 2 진남역에서 출발한
철로 자전거는 반환점인 구량리역을
찍고 돌아온다. 성문을 본떠 만든
건물이 이색적이다. 3 산악 바이크를
타고 굽이굽이 이어지는 숲길을
달리며 짜릿한 질주를 즐긴다. 4
단산 활공장에서 하늘로 날아오르기
직전, 긴장감이 극에 달해 심장이
벌렁거린다.

가는 방법
KTX



3



4



2

1 Mungyeong Eco World

Mungyeong Eco World is a comprehensive ecological and cultural theme park that combines the existing Mungyeong Coal Museum and Gaeun Open Set with a variety of new attractions, including Eco Town and Giant Forest. Located on the former site of the Eunseong Coal Mine, Mungyeong Coal Museum offers a clear overview of the origins of coal, the mining process, and the clothing and equipment used by miners. Behind the museum, Eunseong Mine and the Coal Miners’ Village offer a vivid glimpse into the miners’ working environment and daily lives. Ride the monorail up the steep mountainside and Gaeun Open Set comes into view, transporting visitors into the world of historical dramas. Pyeongyang Fortress, Ansi Fortress, government offices, and traditional market streets have all been recreated in meticulous detail. The juxtaposition of different era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hrough the heyday of the coal industry to the modern 21st century, makes for a fascinating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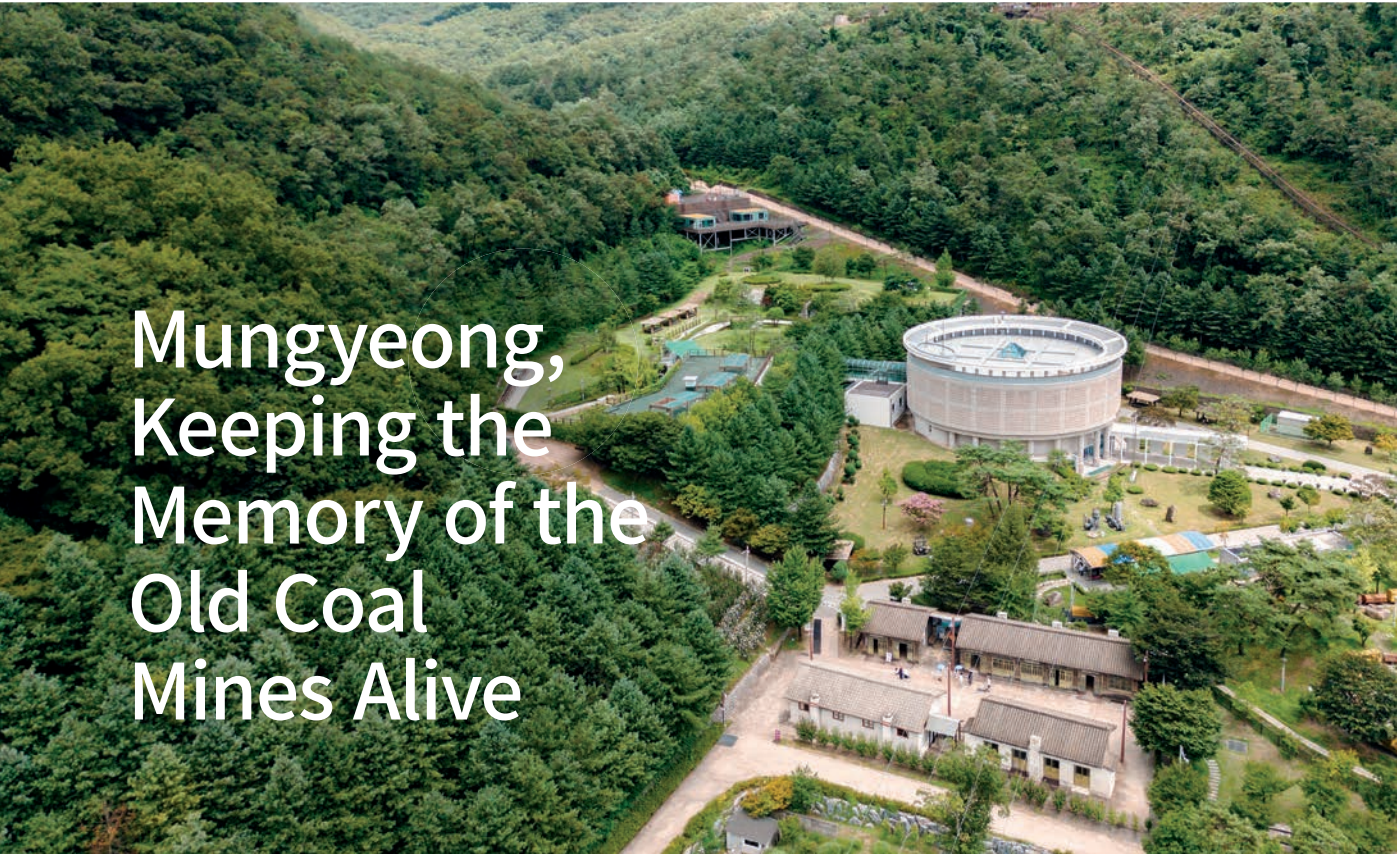
Address 114, Wangneung-gil, Gaeun-eup, Mungyeong-si, Gyeongsangbuk-do **Contact** 054-572-6854



2 Gwangseong Sikdang & Memilkkot & Café Soma

Miners working in coal-mining villages used to eat fatty pork after a hard day’s work to wash away the coal dust that accumulated in their throats. At Gwangseong Sikdang, which has been serving its signature Grilled Yakdol Pork Set Meal for 30 years, the pork is marinated in a special gochujang sauce and aged for about a week before being grilled over charcoal to order. Another dish closely associated with Mungyeong’s coal-mining days is joksaljigae. At Memilkkot a restaurant specializing in joksaljigae, neungi mushrooms are added to the joksal to enhance its flavor and complement the pork. Café Soma’s Eunseong Coal Mine Snowflake Bingsu recreates a black coal mine in miniature with black sesame shaved ice, ringed with black sesame rice cakes reminiscent of lumps of coal, and colorful jelly. Dig deep into the shaved ice with the shovel-shaped spoon, and hidden red beans emerge from underneath.

Address 918, Saejae-ro, Mungyeong-eup, Mungyeong-si, Gyeongsangbuk-do (Gwangseong Sikdang), 11, Sinheung 1-gil (Memilkkot), 2426-4, Daeya-ro, Gaeun-eup (Café Soma) **Contact** 054-572-3466 (Gwangseong Sikdang), 054-553-9990 (Memilkkot), 054-571-7475 (Café Soma)



Mungyeong was at the heart of Korea’s coal industry from the 1960s through the 1980s. Since the closure of its mines in 1994, traces of the coal-mining era have been reborn as new attractions. Bicycles now run along abandoned railway tracks, while a former wayside station once used by coal carts has been transformed into a café.

3 Buljeong Station & Café Gaeun Station

Although decades have passed since the mines closed in 1994, former wayside stations still preserve the atmosphere of the era. Buljeong Station was built in 1955 to transport coal from Daeseong Mining Company, then the largest coal mine in Gyeongsangbuk-do. A national cycling route certification center stands in front of the station, making it a convenient place for cyclists to stop and take a short break. Gaeun Station, a five-minute walk from Mungyeong Eco World, also opened in 1955 to transport coal and ceased operations in 2004. The station building came back to life in 2017, when local residents joined forces to open a café rather than leave the historically and architecturally valuable building unused. Its signature drink is the Gaeun Station Cream Latte, topped with cookie crumble made from Mungyeong’s locally grown apples. A stationmaster’s cap is also available in one corner of the café, making it a fun spot for commemorative photos.

Address 187, Buljeonggangbyeon-gil, Mungyeong-si, Gyeongsangbuk-do (Buljeong Station), 2441, Daeya-ro, Gaeun-eup (Café Gaeun Station) **Contact** 054-571-2441 (Café Gaeun Station)



4 Mungyeong Activities

Mungyeong is a city of sports and adventure. Rail biking lets riders pedal along former railway tracks once used to transport coal. The 7.4-kilometer Jinnam Station course runs from Jinnam Station through Jinnamgyoban and along the Yeonggang River to Gurang-ri Station, taking about an hour for a round trip. For more speed and excitement than rail biking, hop on a mountain bike. The 6-to-7-kilometer off-road courses offer an uninterrupted succession of gravel paths, forest trails, railway tracks, and puddles, leaving little room for boredom. At the recently popular Mungyeong Shooting Range, visitors can try four types of shooting: clay shooting, air rifles, pistols, and screen shooting. And for a bird’s-eye view of Mungyeong’s mountain scenery, nothing beats paragliding. Far below, the magnificent ridges of the Baekdudaegan and clusters of charming houses stretch into the distance.

Address 155, Jinnam 1-gil, Maseong-myeon, Mungyeong-si, Gyeongsangbuk-do (Mungyeong Rail Biking Jinnam Station) **Contact** 054-553-8300 (Mungyeong Rail Biking Jinnam Station)





광물이 만든 특별한 한우 2026 문경약돌한우축제

문경새재 야외 공연장 일원에서는 문경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먹거리, 약돌한우를 만난다. 약돌한우는 가을 수에리에 분포한 특수 광물인 거정석, 일명 약돌을 갈아 넣은 사료를 먹여 키운 한우다. 거정석은 칼슘과 셀레늄, 게르마늄 등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많아 '약돌'로 불린다. 문경시는 2004년 문경약돌한우 브랜드를 출시한 뒤 사료 급여, 축사 환경, 가축 전염병 등을 철저히 살피는 사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품질 관리에 힘써 왔다. 약돌을 섭취한 한우는 육질이 쫄깃하고 잡내가 적으며, 불포화지방산과 올레인산이 많아 소화가 잘되고 맛이 담백하다. 문경약돌한우축제 기간에는 평소보다 최대 33퍼센트 저렴하게 고급 한우를 판매한다. 현장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품 추첨도 놓치지 말 것. 하이라이트는 8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구이 터다. 가격 부담을 낮춘 품질 좋은 약돌한우를 마음껏 맛볼 기회다. 이 밖에 약돌한우장사를 가리는 팔씨름 대회, 약돌 높이 쌓기 등 이색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기간 10월 9일~11일 장소 경북 문경새재 야외 공연장 일원
문의 054-550-6288

가을 한복판 문경미식축제3

백두대간 청정 자연에 둘러싸인 경북 문경에서는 오미자, 약돌한우, 사과 등 독보적인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먹거리가 생산된다. 올가을 문경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즐길 수 있는 미식 축제가 차례로 열린다.

다섯 가지 맛의 신비 2026 문경오미자축제

문경을 관통하는 백두대간의 황장산과 대미산에는 다섯 가지 맛이 나는 기묘한 열매가 열린다. 껍질은 시고 과육은 달며 씨는 맵고 쓰고, 전체적으로 짠맛까지 감도는 오미자다. 임금에게 진상할 정도로 약성과 맛이 뛰어났다. <동의보감>에는 오미자가 장기에 이로운 약재라고 기록돼 있다. 신맛은 간, 쓴맛은 심장, 단맛은 비위, 매운맛은 폐, 짠맛은 신장과 방광 기능을 돕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경시는 1993년 백두대간 깊은 산자락에서 자생하던 토종 오미자 씨를 채취해 시험 재배를 거친 뒤 친환경 재배법과 품종 개발, 가공 기술 연구를 이어 왔다. 그 결과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40~45퍼센트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오미자 주산지로 성장했다. 문경 오미자는 진한 과일 향과 선명한 붉은빛, 굵은 알이 특징이다. 핵심 집산지인 문경시 동로면에서 올해도 오미자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미각체험관에서는 오미자 와인과 오미자 식초 음료, 오미자에이드 등을 맛보고, 체험존에서는 오미자 립밤과 디퓨저, 키링 등을 만들어 본다. 올해 처음으로 오미자 품평회도 개최한다. 생오미자와 오미자청을 할인 가격으로도 판매하니 놓치지 말자.

기간 9월 18일~20일 장소 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둔치 일원 문의 054-550-6889



달콤한 맛의 절정 2026 문경사과축제

단풍으로 물든 문경새재를 거닐다 보면 어디선가 달콤한 과일 향이 풍겨 온다. 문경의 대표 사과인 감홍이 무르익는 계절, 문경사과 축제가 열리는 것이다. 감홍은 과일 표면에 검은 반점이 생기는 고두병 탓에 재배가 까다로운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경시는 칼슘 비료를 활용한 재배법을 개발해 다량 생산에 성공했다. 다소 못생겼다는 평가를 받던 감홍은 1993년 문경시가 시험 재배를 시작한 이래 꾸준한 품종 개량을 거쳐 이제는 모양도 예쁘고 맛도 뛰어난 사과로 자리매김했다. 일교차가 큰 고랭지에서 자란 감홍은 평균 당도가 16.5브릭스 이상으로 웬만한 과일보다 달콤하고, 산도는 약 0.48퍼센트로 낮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 문경사과축제에서는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감홍을 맛볼 수 있고 우수 사과 직거래 판매장도 운영한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단연 사과 따기 체험이다. 직접 딴 신선한 사과를 그 자리에서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감홍을 비롯해 시나노골드, 후지, 홍로, 부사, 양광 등 다양한 품종의 사과도 한자리에서 만난다.

기간 10월 17일~25일 장소 경북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
문의 054-550-6887





커피로 가득한강릉 제18회강릉커피축제

올해 강릉커피축제는 강릉커피거리를 비롯해 주문진, 중앙시장, 오죽헌, 옥계까지 강원 강릉 전역에서 펼쳐진다. 그야말로 '커피로 가득한 강릉'을 만날 수 있다.



제18회 강릉커피축제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열린다. 슬로건은 'Coffeeful Gangneung(커피로 가득한 강릉)'. 강릉의 대표 관광자원과 커피 문화를 하나로 묶어 '커피가 일상이 되는 도시 강릉'의 정체성을 담아낼 예정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축제 공간이다. 강릉커피축제의 주무대였던 강릉커피거리는 물론 주문진, 중앙시장, 오죽헌, 옥계 등 강릉의 대표 거점으로 축제 무대를 대폭 확장했다. 덕분에 축제 기간 내내 강릉 전역이 고소한 커피 향으로 가득할 전망이다. 제철 수산물이 넘쳐나는 주문진과 닭강정·짬뽕 등 강릉의 대표 음식이 여행자의 발길을 붙드는 중앙시장, 대나무 숲 너머로 신사임당과 울곡 이이의 글귀가 마음을 사로잡는 오죽헌, 정겨운 골목을 거닐며 사람 냄새에 흠뻑 빠지는 옥계장터 등이 모두 강릉커피축제 무대가 된다. 강릉 역사와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축제를 즐기는 방법도 흥미롭다. 웰컴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을 마신 후 모바일 스탬프 랙리를 하며 다음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는 방식이다. 카페마다 각각 다른 맛의 커피를 음미하는 재미가 특별하다. 커피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이벤트 참여 기회를 주는 영수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제18회 강릉커피축제



느긋한 계절의 입김

뻘뻘할 만큼 찬란한 시절을 지나 부끄러울 만큼 느긋한 계절이 왔다.

물속에 단단히 뿌리를 박은 채 혼곤히 잠든 왕버들 어르신.

2025년 9월 경북 청송

안개에 잠긴 장대 아래로 달콤하고 낭창한 김이 자란다.
2024년 9월 전남광주 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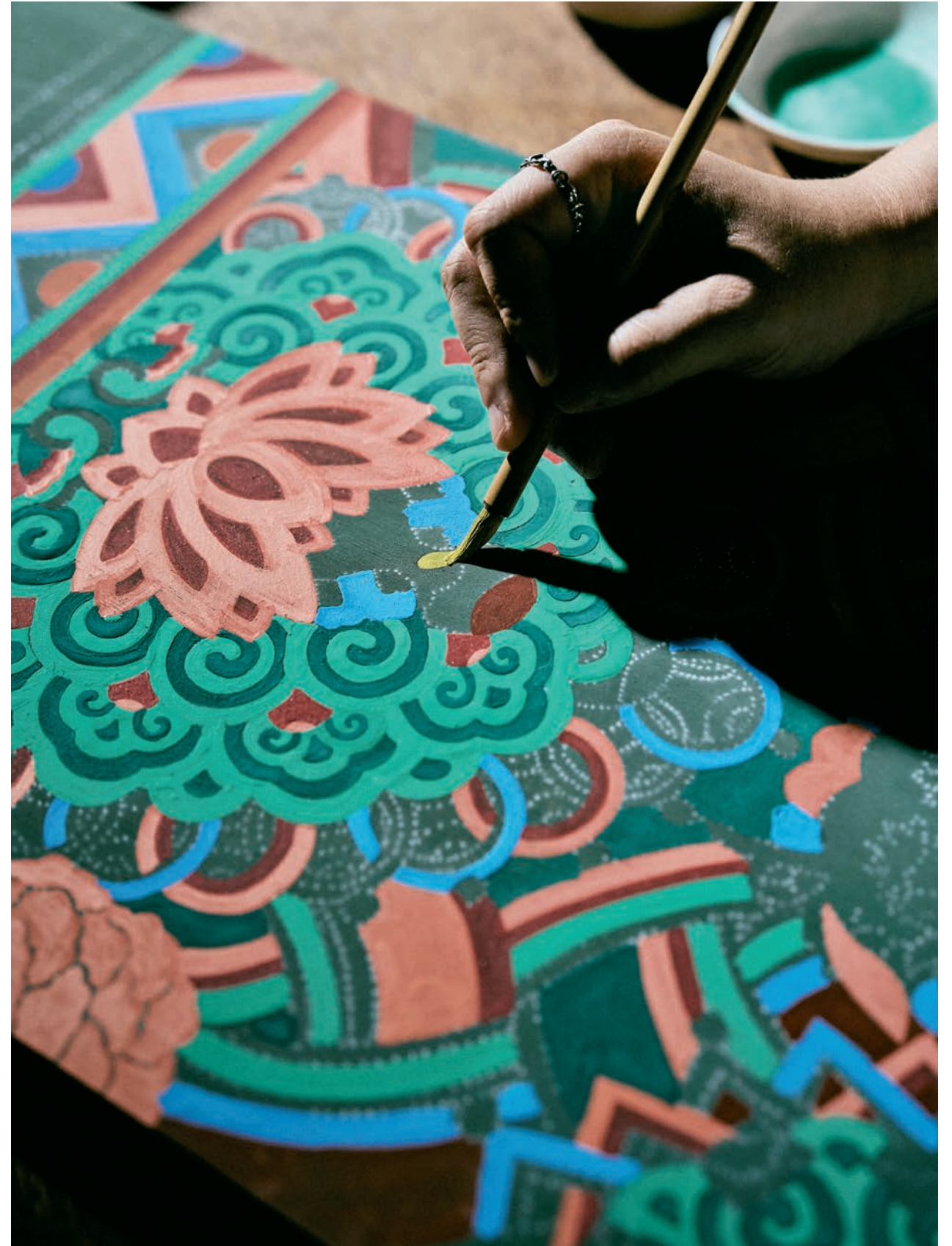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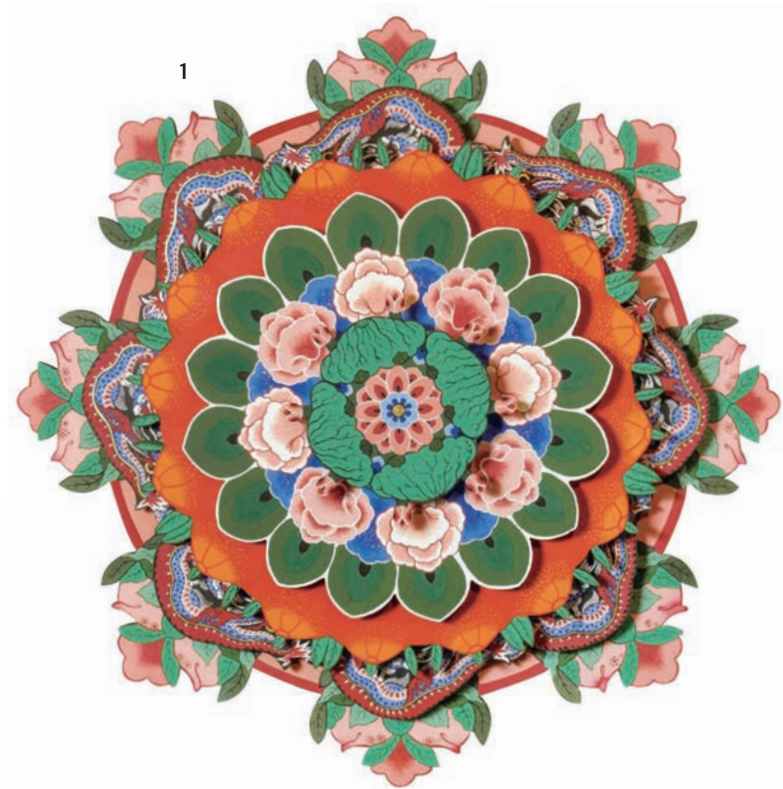
여름에 태어나 가을에 도착하는 중. 저 홀로 붉은 백일의 고독.

2025년 9월 전남광주 담양

청년 단청장 안유진

붉을 단(丹), 푸를 청(靑). 20대에 장인이 된 안유진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이수자를 만났다. 단청을 건축물에서 해방시켜 일상에 스며들게 하겠다는 붉은 열정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해 후대에 전하겠다는 푸른 이성이 그의 우주를 아름답게 채색하고 있었다.





1

- 1 단청과 키네틱 아트가 결합한 '단청순환'. 순환과 반복을 주제로 단청을 재해석해 레이어마다 움직이는 속도를 달리했다.
- 2 바이크를 좋아하는 친구의 헬멧에 단청을 입혔다.
- 3 소목을 깎아 만든 구름 모양 틀에 꽃, 나무, 봉황 등 다양한 문양을 장식해 지치고 불안한 마음을 치유해 줄 아름다운 세상을 표현한 작품 '우화'.
- 4 안유진은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이수자이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국가유산을 수리하고 재단장할 자격이 있다.
- 5 안유진 이수자가 작업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굿즈.

해 본격적으로 단청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3년간 무형문화유산 전수 교육을 받은 그는 심사를 통과해 2021년 단청장 이수자가 됐다. 20대에 문화유산 전승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건물에서 해방된 단청

단청은 궁궐, 사찰, 전통 가옥 등 목조 건물에 오방색 문양을 입혀 건축의 격을 높이는 작업이다. 건물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을 넘어 습기와 해충으로부터 목재를 보호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구조가 안정감 있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단청장 이수자가 되면 국가유산을 복원·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공주 갑사 대웅전과 기장 장안사 대웅전의 단청 기록화, 홍성 효령대군과 재실 고색 단청, 부안 개암사 사천왕문 석채 단청 등에 안유진 이수자의 손길이 닿았다.

안유진 이수자는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 상품 개발과 작품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2024년 덕수궁에서 열린 <미키 in 덕수궁: 아트, 경계를 넘어서>전에서 현대미술 작가들과 함께 디즈니 캐릭터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였고, 스케이트보드와 바이크 헬멧, 스마트폰 액세서리, 스티커 등에 단청문양을 입히는 작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 2025년에는 궁궐과 사찰의 단청 문양을 원형 그대로 옮긴 <단청장 이수자 안유진의 단청 컬러링북>을 출간하기도 했다. 안유진 이수자는 단청을 건물에서 해방시켜 일상으로 끌어들이면서도 천연 안료를 사용해 단청 고유의 깊이 있는 색감과 안정적인 조화를 유지한다. 금박을 더해 눈이 반짝이는 듯한 효과를 내는 전통 기법도 계승한다. 단청을 현대적 방식으로 변주하되 전통의 틀을 엄격하게 지키는 젊은 장인을 만났다.



2



3

건물의 일부가 되는 게 단청의 운명이지만, 안유진 단청장은 건물에서 단청을 해방시켜 입체 조각과 설치미술로 확장한다.



4



5

2008년 송례문 방화 사건을 보고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들었어요.

지금도 송례문이 불타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해요. 자주 가던 곳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불에 탄 현판이 추락하면서 갈라지던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 국보 1호는 영원히 볼 수 없는 건가, 궁금해서 검색하다 전통 장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글을 봤어요. 무형문화유산 기능자는 점점 나이가 드는데 이를 배우려는 청년이 없어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경복궁과 불국사도 송례문처럼 사라질 것 같아 더럭 겁이났어요.

똑똑하고 대견한 어린이였네요. 그 사건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나요?

어릴 때부터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아 단청 문양으로 디자인하거나 불화를 그리면서 놀았어요. 예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전통 회화 학원에서 단청을 배웠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흉내만 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제가 좋아하는 것 사이의 괴리감이 커졌고, 졸업 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했어요. 혼자 고민한 시간이 많아서인지 동기들보다 1년 먼저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하고 졸업할 무렵 이수자 심사에 통과했어요. 편입 직후 저는 오로지 단청만 봤어요. 그런데 한 교수님이 배움에 편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셨어요. 단청뿐 아니라 불화, 민화, 초상화, 벽화 등을 두루 섭렵해야 전통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고 말하는 교수님도 계셨고요. 덕분에 전통미술뿐 아니라 전통문화 전반을 공부했고, 단청 표현에도 깊이가 생긴 것 같아요.

단청장이수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무형유산은 말 그대로 형태가 없어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전승돼요. 한국 국가무형유산 전승 체계는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자(전수 교육생)로 나뉘는데, 전수자를 제외한 분들을 전승자라고 불러요. 이수자부터는 무형유산으로 분류되고, 전승교육사부터는 후학을 양성할 수 있어요. ‘인간문화재’라 부르던 보유자는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및 예능을 전형대로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이름이 주어져요. 전승자가 아니라도 국가유산 수리기능자·기술자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재단청할 수 있고요.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의 임무는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고 지키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스케이트보드, 바이크 헬멧, 스마트폰 액세서리, 스티커, 키링, 쿠션 등 일상에서 접하는 물건에 단청의 문양과 색을 입히는 거죠.

표현이 자유로운 디자인 영역에서 규율이 엄격한 전통문화 영역

으로 넘어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정해진 틀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해요. 혼자 단청 문양을 디자인할 때도 문양을 배치해 구도를 잡으면서 전통적 미감을 살리는 게 어려웠는데, 전문적인 공부를 하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단청에 사용하는 문양이 수십 가지고, 이를 조합해 나올 수 있는 문양은 수백 가지가 넘어요. 색 표현에도 규칙이 있어 한색과 난색을 번갈아 써야 하고, 색을 입힐 때도 칠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궁궐과 사찰의 단청에 차이가 있어요. 궁궐 단청은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정신에 따라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아야 하고, 사찰 단청은 부처께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비단에 수놓듯 화려하고 뽀뽀하게 문양을 채워야 해요. 또 건물의 위상과 기능에 따라 단청 문양과 표현 방식도 달라지죠. 그래서 배울수록 어렵고, 알수록 재미있어요.

단청은 동아시아 목재 건축물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한국 단청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단청은 동아시아의 음양오행 철학을 공유하지만 미감과 자연환경, 민족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중국 단청이 황실의 권위와 질서를 강조하며 청색과 금빛 장식 중심의 웅장함을 추구했다면, 일본은 목재의 질감과 절제를 우선시해 8세기 이후 채색 건축이 줄었어요. 반면 한국 단청은 오방색이 살아 있어요. 산세와 숲, 기와와 어우러진 색채의 균형을 중시하고 자연과 건축이 하나의 풍경을 이루도록 하는 게 특징이에요. 저는 개인 작업을 할 때 오방색만 사용하지 않아요. 천연 안료를 사용하되 모노톤이나 핑크 톤으로 변형해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죠. 문양에 담긴 의미를 아는 것도 단청을 재미있게 감상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 주화 문양은 감 꼭지를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단청에 주화 문양을 넣는 이유가 놀라워요. 단단한 감나무 열매 일부를 단청에 담아 건축물이 튼튼하게 오래 버티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장수하길 비는 거예요. 단청 문양의 상징이 궁금하다면 <단청장 이수자 안유진의 단청 컬러링북>을 참고하세요. 궁궐, 사찰 등 전통 건축물의 단청 문양을 해설과 함께 그대로 옮겨 담았어요.

단청이 아름다운 궁궐과 사찰을 추천해 주세요.

창덕궁은 후원을 거닐면서 인정전을 감상하기 좋아요. 그곳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청은 낙선재 후원의 상량전에 있어요. 육각형 정자 천장에 학, 용, 박쥐, 복숭아, 불수감(부처님 손을 닮은 과일) 등 다산과 복, 장수, 벽사를 상징하는 문양이 가득 새겨 있죠. 너무 좋아해서 모사한 작품을 <조선의 만화경, 단청>전에서 선보이기도 했어요. 창경궁 명정전에는 가장 오래된 조선 궁궐 단청이 남아 있어요. 천장 중심부에 왕권을 상징하는 봉황 한 쌍이 금박



으로 장식돼 있고, 어좌는 일월오봉 병풍으로 둘러싸여요. 색이 많이 바랬지만 조선 후기의 화려한 단청과 달리 단아한 아름다움이 느껴져요. 사찰에는 단청뿐 아니라 불화와 벽화도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사찰은 양산 통도사예요. 물길을 따라 가람이 배치됐는데, 전각마다 부처님상이 달라요. 사찰 규모가 커서 다양한 단청 문양과 화려한 전각 벽화를 볼 수 있어요. 구례 화엄사 각황전은 중층 건물인데, 내부에 긴 기둥이 네 개 있어요. 기둥마다 그려진 각기 다른 용 무늬는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아요. 단청을 볼 때 주로 기둥이나 처마 등 건축물 외부를 많이 보는데, 내부 천장을 보는 걸 추천해요. 면적이 넓다 보니 회화적으로 많은 무늬를 새길 수 있어요.

작업물이 예스럽기보다 외려 트렌디한 느낌이라 놀라워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단청의 기본이 되는 오방색을 일상용품에 적용하면 너무 화려해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색은 전통 안료 안에서 자유롭게 변주하고, 문양은 전통의 규칙을 철저하게 따라요. 조금만 틀어져

도 국적이 불분명해지거든요. 단청 문양을 비틀어 응용하는 작가도 있는데, 단청인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앞으로의 목표를 들려주세요.

단청장 이수자라고 저를 소개하면 단청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청을 알고, 그 형태와 목적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문화유산을 수리하고 재단장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전통에만 치중하면 확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단청을 홍보할 방법을 늘 고민해요. 그렇다고 후원을 받거나 협업하기 위해 애쓴 적은 없어요. 일상에서 흔하게 보는 물건에 단청 문양을 넣고, 제작 과정을 촬영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해요.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며 어디서든 그림을 그리고요. 카페 상들리에가 예쁘면 단청으로 채색해 보고, 명품 브랜드 로고가 예쁘면 단청을 적용해 디자인해 봐요. 얼마 전에는 KTX 열차를 타고 가다가 열차 이미지에 단청을 입혀 보기도 했어요. 단청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지금처럼 다양한 시도를 계속할 생각이예요. 앞으로 더 건강하고 즐겁게 단청 작업을 하고 싶어요. **KTX**



유머와 진실 사이

마틴 파의 카메라 앞에서는 키치한 액세서리도, 싸구려 도넛도
당당한 주인공이 된다. 특유의 통찰력과 심미안으로 웃음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을
포착해 내는 마틴 파의 웃기고 이상한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 너도나도 셀피를 촬영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담은 '죽음의 셀피(Death By Selfie)' 연작.
우연한 순간과 일상의 풍경에서 소비 현상과 시대적 의미를 포착해 내는 마틴 파 특유의 시선이 담겨 있다.

케첩을 찍은 감자튀김, 유명 관광지에서 셀카봉을 들고 환하게 웃는 얼굴, 선글라스를 씌운 반려견, 검게 그을린 피부와 잘 가꾼 손톱. 오래된 사진첩이나 소셜 미디어 피드에서 봤을 법하고, 어쩌면 내 휴대폰에도 수백 장쯤 있는 이미지라서일까. 액자 속 사진들은 하나같이 낯설지 않다. 관람객들은 저마다 흥미롭게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휴대폰을 꺼내 작품을 배경으로 셀피를 남긴다. 지금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마틴 파: We Are Martin Parr>전 풍경이다.

현대사진의 거장 마틴 파가 세상을 떠난 후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 대규모 회고전에서는 대표 연작 14개 시리즈를 비롯한 사진 500여 점과 사진책 90여 권 등 50여 년에 걸쳐 완성한 작가의 작품 세계가 총망라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국내 최초의 공립 사진 전문 미술관으로 개관한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이 선보이는 첫 개인전이기도 하다.

왜 마틴 파였을까. “가장 ‘사진적’인 작가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플래시를 터뜨려 찍어 보여 주는, 사진의 근본적인 힘을 드러내는 작가여야 했

어요. 2년 전부터 전시를 준비했는데 개막 6개월을 앞두고 작가가 작고하면서 회고전 성격을 띠게 됐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학예연구사의 설명 그대로 마틴 파는 오직카메라 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찍었다.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포착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정면 플래시와 강렬한 색감, 근접 촬영 기법을 활용해 숨은 유머와 아이러니를 담아낸 현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거장이다.

누구에게나 이야기가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좁고 긴 복도가 나오고, 그 끝에서 벽면을 통째로 차지한 거울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멋쩍은 마음을 감추고 습관처럼 셀피를 한 장 찍은 뒤안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면, 마틴 파의 웃기고 이상한 세계가 펼쳐진다. 1980년대부터 작고 직전까지 이어온 대표작 ‘작은 세계(Small World)’는 세계 곳곳에서 관광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담은 연작이다. 마틴 파는 ‘내가 거기 있었다고 입증하려는 사람들의 욕망을 카메라에 담는다. 베니스 광장에서 비둘기 떼에 둘러싸인 채 간신히 셔터를 누르는 여성, 아테네 신전 앞에서 획

1980년대 영국 노동자 계급의 휴가 풍경을 적나라하게 담아낸 ‘마지막 휴양지’ 연작.
작가 스스로 ‘가장 큰 변화의 순간’이라고 언급했던 이 시리즈는 마틴 파가 최초로 컬러 필름을 사용한 프로젝트이자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대표작이다.



‘멕시코 시티, 멕시코’, 2003
© Martin Parr/Magnum Photos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테마의 그리션스 무도회, 크리스마스 호스피탈 스쿨, 웨스트서식스, 영국’, 2010
© Martin Parr/Magnum Photos



일적인 자세로 단체 사진을 찍는 한국인 패키지 상품 관광단(한국인의 눈에는 보인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배시시 웃음이 나온다. 그런데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정말 원해서 관광을 떠나는 것일까?

영국 상류층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이스테블리시먼트(Establishment)’ 연작은 명문 대학과 왕실의 행사 등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관습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아슬아슬할 만큼 가까이 다가가 플래시를 터뜨리는 그의 카메라 앞에서 격식과 권위로 포장된 세계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그리고 마틴 파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대표작 ‘마지막 휴양지(The Last Resort)’가 이어진다. 1983년부터 3년간 영국 리버풀의 뉴브라이턴 휴양지를 기록한 이 연작은 쇠락한 리조트 타운에서 보내는 영국 노동계급의 휴가를 담았다. 산업폐기물 옆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고, 쓰레기 더미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휴가를 보내는 서민이 주인공이다. 다시금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이들은 과연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일까?

마틴 파는 50여 년간 현대인의 일상과 소비문화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물질만능주의를 꿰뚫는 매서운 눈과 생의 아이러니를 포착하는 예민한 감각으로 순간을 담아낸 뒤, 세상의 위계와 미묘한 갈등, 씩씩한 진실을 웃음 너머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큐멘터리 사진의 오랜 관습을 뒤흔들었다. 거대 담론이나 전쟁의 비극을 담은 흑백사진만을 다큐멘터리의 정수라 믿던 시대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다. ‘평범한 얼굴과 소소한 일상은 사진의 재료가 될 수 없는가?’ 1994년 매그넘 포토스 정회원 심사 당시, ‘결정적 순간’의 거장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끝까지 그의 가입을 반대한 일화는 유명하다. 단 한 표 차이로 매그넘 포토스 멤버가 된 마틴 파는 과도한 지성주의 편에 섰던 다큐멘터리의 전통에 균열을 내며 현대사진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진실, 웃기고 불편한

3층 전시장에 오르면 넓고 폭신한 소파가 놓인 방이 나타난다. 당장이라도 몸을 던지고 싶은 소파 앞에는 마틴 파의 사진책 90여 권이 놓여 있다. 책을 뒤적이는 관람객들 뒤로 ‘무료한 커플(Bored Couples)’ 연작이 오버랩되며 묘한 풍경이 펼쳐진다. 함께 있지만 서로에게 무관심한 30년 전 커플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각자 휴대폰을 든 채 식사하는 오늘날 연인들의 모습



이 겹쳐진다. 소통의 부재와 관계의 지리멸렬함, 그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시공간을 넘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마틴 파의 세계! 초창기 흑백사진 작업의 방을 지나면 마침내 한 공간에 놓인 ‘북한(North Korea)’과 ‘남한(South Korea)’ 연작을 만난다. 1997년 패키지여행으로 평양을 방문한 마틴 파의 카메라에는 김일성 동상 앞에서 참배하는 시민들과 시장에서 만난 노인, 아빠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담겼다. 몸을 돌리면 1998년부터 10년에 걸쳐 기록한 남한의 모습이 펼쳐진다. 남대문시장과 대형 마트, 경복궁의 문화해설사와 제주도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중년 여성까지, 마틴 파의 시선은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그 사회가 무엇을 소비하고,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500여 점의 작품이 걸린 넓은 전시장에서 작가는 마지막 방에 가서야 모습을 드러낸다. 전 세계 관광 명소의 포토 부스와 스티커사진들을 활용해 자신을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자화상(Autoportrait)’ 연작.

1997년 평양을 방문해 촬영한 ‘북한’ 연작. 북한 당국의 검열을 거쳐 세상 밖으로 나온 사진 속에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풍경부터 평범한 일상까지 다양한 순간이 담겨 있다. 전시가 끝난 뒤 사진은 파쇄된다.



모두의 마틴 파

갑자기 궁금해졌다. 직접 대면한 작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전시 준비가 시작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서너 차례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조금 친해지자 저에 대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요즘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뭘지, 배우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국에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어마어마했죠. 따뜻함과 유머를 겸비한, 그야말로 ‘마틴 파의 사진’ 그 자체였다고 할까요.” 문득 아쉬운 마음이 솟구쳤다. 만약 예정대로 한국에 머물며 작업할 수 있었다면 어떤 이미지를 포착했을까. 광화문과 성수동, 잠실야구장과 황학동 벼룩시장을 누비며 2026년의 대한민국이 감추고 있는 가장 내밀한 민낯을, 어쩌면 우리가 영영 발견하지 못할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으로 보여 주지 않았을까. 마틴 파의 흥미로운 사진전에서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한 가지는 영상이다. <마지막 휴양지> 속 비치의

자가 놓인 방에 그의 모습이 담긴 다큐멘터리 필름이 상영된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마음에 드는 피사체를 포착하면 “오, 당신의 옷이 너무 맘에 들어요. 정말 멋진걸요!”라며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셔터를 누른 뒤 사라지는 귀여운 할아버지를 보고 관람객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마틴 파 사진의 재료는, 정말 길 가다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다. 이제 다시 전시 제목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왜 마틴 파의 사진을 좋아하는가?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고 싶진 않지만 소비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온갖 부조리와 권위에 환멸을 느끼면서도 우스꽝스러운 허례허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통의 인간이 바로 우리다. 그렇다고 일상이 냉소로만 채워지지는 않는다. 작가가 그랬듯 별난 것에서 반짝임을 느끼고 타인에게서 좋은 것을 발견하며, 마침내 웃음 뒤의 진실을 알아볼 수 있기에 기꺼이 그의 사진에 공감한다. 우리는 모두 마틴 파다. **KTX**



가을날의 비엔날레

비엔날레의 계절이 돌아왔다. 낡은 학교 건물이 퍼포먼스 무대로 바뀌고, 도자기를 굽던 가마가 전시장으로 변신한다. 발길 닿는 모든 곳이 미술관이 되는 축제, 2026 비엔날레 가이드.



불협감의 감각, 부산비엔날레

지역 작가들의 자발적 움직임에서 출발한 부산비엔날레는 도시 곳곳의 유휴 공간을 전시장으로 바꾸며 부산 전역을 예술 무대로 확장시켰다. '불협하는 합창(Dissident Chorus)'을 주제로 한 올해 행사는 8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현대미술관, 영도 스페이스 원지, 구 부산남고등학교 세 곳에서 열린다. 각각의 공간은 단순한 전시장을 넘어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는 세 개의 '악장'으로 기능한다. 부산현대미술관이 돌봄과 재생의 1악장을, 영도 스페이스 원지는 노동과 이동, 저항의 2악장을 맡는다. 올해 초 문을 닫은 구 부산남고등학교는 3악장을 담당해 미래를 다시 묻는 '리허설의장'이 된다.

이번 부산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운드, 퍼포먼스, DJ 문화를 전면 에 내세워 관람객이 공동의 리듬과 신체의 움직임을 직접 경험하도록 구성했다는 점이다. 22개국 46팀(49명)의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라이브 퍼포먼스와 아티스트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시장 안팎에서 이어진다. 2024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참여 작가인 조슈아 세라핀은 카날-퐁피두 센터와 공동 제작한 신작을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인다.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박현성은 금속과 천의 충돌을 통해 불안정한 신체 상태를 다루고, 인도네시아 출신의 나타샤 톤테이는 토착 신화와 군사주의의 기억을 교차시킨 영상 작업을 선보인다.

기차를 타고 부산을 찾는 관람객을 위한 혜택도 있다. '부산행 축제대전'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서울-부산 KTX 편도 승차권과 비엔날레 1일 입장권을 할인된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다.

땅이 빚어낸 세계, 경기도자비엔날레

1999년 경기 이전에서 시작된 경기도자비엔날레는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 도자 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조명해 온 국제적 행사다. 올해 13회를 맞는 경기도자비엔날레는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전·광주·여주 일원에서 개최된다. '땅이 만든다(Earth Makes)'를 주제로 흙과 땅, 지구를 예술 창작의 주제로 바라보며 인간과 자연, 기술과 환경의 관계를 도자 예술을 통해 새롭게 해석한다.

이전 경기도자미술관에서 열리는 본전시에는 14개국 28팀(65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점토와 신체의 관계를 수행적 조각으로 풀어내는 영국의 윌리엄 코빙과 지질학적 시간과 환경의 흔적을 세라믹으로 번역하는 호주의 야스민 스미스, 한국 옹기와 장작가마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는 김창호, 흑유와 흑요의 물성을 탐구하는 김시영 등 국내외 작가들이 다채로운 흙의 예술을 펼쳐 보인다. 본전시가 동시대 도자 예술의 담론을 조명한다면,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은 도자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창작 플랫폼 역할을 한다. 전 세계 77개국에서 1050명이 출품한 올해 공모전 대상은 독일 작가 데이비드 라우어의 '편치카드 하우스(Lochkartenhaus)'가 차지했다. 흙과 유약이라는 도예 특유의 매체성을 이용해 대형 작품 제작의 기술적 완성도와 메시지를 조화롭게 구현해 냈다는 평을 받았다. 본전시를 둘러보고 난 뒤에는 광주와 여주 전시장에서 공예 체험과 지역 연계 마켓을 함께 즐겨 보길 추천한다.



1 2019년 터너상을 수상한 타이 사나의 'DC: Semiramis'(2019). 2026 부산비엔날레의 대표작 중 하나다. 사진: 데이비드 르빈 © 부산비엔날레 2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 본전시 참여 작가 김창호의 '생성'(2022). © 경기도자비엔날레 3 2026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한 정금형의 퍼포먼스 작품 '재활 훈련'(2022). 사진: 페터 마이어 © 광주비엔날레

변화를 이끄는 예술, 광주비엔날레

5·18민주화운동 15주년이었던 1995년에 첫발을 댄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명하는 국제적 예술 축제로 성장해 왔다.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리는 제16회 행사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를 주제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고대 아폴로의 토르소' 마지막 구절을 인용한 주제는 '예술이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변화'를 신체와 지각이 재편되는 지속적인 실천의 과정으로 보며, 광주를 단순한 개최지가 아닌 집단적 실천, 정치적 변화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조명한다.

'변화'를 주제로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이는 광주비엔날레에는 22개국 43팀(72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그중 2004년부터 협업해 온 아티스트 듀오 골딘+세네비의 '송진 연못'을 주목할 만하다. 약 2톤 분량의 발광하는 송진을 전시장 바닥에 흘려 거대한 호박색 웅덩이를 구현한 설치 작품이다. 신체와 사물, 기계, 훈련의 관계를 탐구해 온 정금형 작가의 퍼포먼스 작품 '재활 훈련'도 눈길을 끈다. 3시간 동안 실제 재활 보조 기구와 의료용 마네킹으로 재활 치료 동작을 수행하는 이 작품은 돌봄과 훈련, 반복과 적응 속에서 인간과 사물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담아낸다.

현대미술의 실험적인 작품들 옆에는 광주의 역사와 기억을 담은 작업도 나란히 걸린다. 5·18민주화운동으로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은 여성들의 공동체 '오월어머니집' 회원들이 직접 그린 320점의 그림을 통해 개인의 기억이 공동의 역사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을 둘러본 뒤에는 광주 시내 전역에 마련한 30여 개 파빌리온 전시를 함께 둘러볼 것을 추천한다. **KTX**

오래된 도시의 취향, 남원

전북 남원의 구도심에는 아프리카
원두를 볶는 카페부터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는 제로 웨이스트
편집숍까지 저마다 취향과 철학이
분명한 공간이 포진해 있다.





연못과 누각이 빛은 한 폭의 풍경 광한루원

요천 번에 자리한 광한루원은 조선 시대 선비들이 우주의 이치를 본떠 조성한 정원이다. 황희 정승이 건립한 광통루에서 출발해 오랜 세월을 거치며 오늘의 형태가 됐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국보로 지정된 광한루와 물 위에 우뚝 선 완월정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 앞으로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내려앉은 오작교가 길게 이어진다. 반원형 교각이 드리워진 돌다리를 천천히 건너다 보면 연못 위로 수백 년 세월을 건넌 왕버들과 고건축의 그림자가 비치고 붉은 비단잉어 떼가 느릿하게 헤엄치는 풍경이 한 폭의 진경산수화처럼 펼쳐진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무료 개방해 시민들의 야간 산책로로도 사랑받는다. 어둠이 내리고 청사초롱의 불을 밝히면 물결 위로 은은한 빛이 물들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주소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문의 063-620-8907

아프리카 커피를 볶는 공간 은달래

아프리카 스페셜티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로스터리 카페. '신의 이름으로'란 뜻의 상호는 하강주 대표의 아들이 에티오피아에서 3년간 커피를 공부할 때 얻은 별명이다. 하 대표도 강릉에서 동명의 매장을 운영하는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에서 커피를 배운 뒤 귀농 학교 수료 후 15년째 이곳을 운영 중이다.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커피를 공부한 만큼 은달래에서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 동아프리카산 원두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시그너처 메뉴는 아프리카 원두를 배합한 '아프리카노'. 대표가 매일 원두를 로스팅하고 핸드 드립으로 추출해 가장 신선한 상태의 커피를 선보인다. 커피 한 잔을 내릴 때 넉넉히 원두 30그램을 사용해 텁텁한 뒷맛은 덜어 내고 깔끔한 맛만 잡아 낸다. 이렇게 내린 커피는 입안에 침이 고이는 기분 좋은 산미로 시작해 고구마나 설탕 같은 은은한 단맛으로 마무리된다. 매장에서 볶은 원두는 남원 시내의 로봍 커피 매장 두 곳에 납품하기도 한다.

주소 전북 남원시 향단로 3 문의 063-636-7730



시선과 취향이 머무는 감각의 서재 살롱드마고

2020년에 문을 연 살롱드마고는 협동조합마고에서 운영하는 서점이자 페미니즘 문화 공간이다. 방문객의 목적에 맞춰 공간을 세밀하게 꾸였는데, 필사와 독서에 집중하는 '플레이 라운지', 음악 감상과 관련 큐레이팅 도서를 즐기는 '뮤직 바'가 대표적이다. 1인석인 '아티스트 테이블'에는 매달 지정 작가의 책과 자체 제작한 뉴스레터를 올려 둔다. 서가는 페미니즘 서적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어린이, 환경, 전쟁 등의 주제도 두루 다룬다. 인간의 신체와 감각에 초점을 맞춰 책을 구성한 '감각 서가'의 큐레이션도 돋보인다. 서점 한편에서는 물에 젖지 않는 미네랄 페이퍼 수첩, 한지 표지에 남원 옷칠 기법을 접목한 노트 등 살롱드마고의 자체 제작 문구류가 진열돼 있다. 영업을 쉬는 날에는 페미니즘 독서 모임, 시 쓰기 워크숍, 타로 워크숍 등 다채로운 모임 장소로 탈바꿈한다.

주소 전북 남원시 시청북로 17 문의 070-7797-3800

정성껏 차린 든든한 한 끼 집밥, 담다

하정동 한적한 골목에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문을 연 음식점이다. 메인 메뉴는 단호박 매콤 흑돼지갈비찜. 빨강계 양념한 돼지갈비로 속을 채운 단호박이 뚝배기에 담겨 나오는데, 보는 순간 군침이 돌 정도로 먹음직스럽다. 돼지고기는 뼈에서 쉽게 분리될 만큼 연하고, 고춧가루와 과일로 맛을 낸 양념은 중독성 있게 매워 자꾸만 손이 간다. 담백한 고기와 어우러진 달콤한 단호박은 입안의 매운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 준다. 한마디로 찰떡궁합. 상에 오르는 모든 반찬을 안주인이 직접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제철 채소로 정성껏 차린 밥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진다. 해마다 직접 재배한 배추 500여 포기로 담그는 김치도 일품이다. 워낙 인기가 많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주소 전북 남원시 하정1길 28 문의 063-625-4580



남원 제로 웨이스트 편집숍 굿바이스토어

환경을 해치는 제품과 이별(good-bye)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good-buy)를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건네는 제로 웨이스트 편집숍이다. 환경 기관에서 근무했던 조태현 대표가 2023년 동충동 골목에 문을 열었다. 매장 안은 식물성 수세미처럼 쉽게 자연 분해되는 생활용품과 재치 있는 업사이클링 소품, 과테말라 걱정인형과 가나 수제 바구니 같은 공정 무역 제품으로 아기자기하게 채웠다. 빈 용기를 가져와 죽염이나 밀크티 베이스 등을 필요한 만큼 덜어 가는 소분 시스템도 갖췄다. 비건 음료를 선보이며 일회용 컵 대신 대어용 텀블러나 생분해 컵을 건네는 섬세함도 인상적이다. 공간 운영을 넘어 자체 제작 워크북을 활용한 ESG 환경 교육도 꾸준히 이어 가며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주소 전북 남원시 용성로 71 문의 0507-1394-9585



부부의 정성이 담긴 건강한 빵 잡학다식

2021년 하정동 골목에 동지를 튼 베이커리. 부부가 함께 개업 준비에만 꼬박 2년을 들였다.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잡학다식이 자신 있게 선보인 메뉴는 천연 효모로 저온 발효한 빵. 아내가 독자적인 레시피를 개발했고, 남편은 아내의 제빵 공정을 엑셀 시트로 연동해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췄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는 기본이며 빵의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구매 시 빵을 썰어 주지 않는 것도 이곳의 철칙이다. 덕분에 언제나 촉촉하고 부드러운 빵을 맛볼 수 있다. 시그너처 메뉴는 올리브 치아바타, 무화과 크림치즈 빵, 토마토 바질 포카치아. 속 재료를 푸짐히 넣어 식사 대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오전 10시부터 온기 가득한 빵이 나오지만 하루 생산량이 정해져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KTX**

주소 전북 남원시 하정2길 7 문의 0507-1438-5221



을가을새롭게만나는

을주의세가지풍경



1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자연과 영화, 레저를 한 번에 누리는



1 UMFF 야외 상영관에서는 영남알프스의 능선을 배경으로 영화를 감상한다. 2 제10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식 현장.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 시상, 개막작 상영, 개막 공연이 진행됐다. 3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과 토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가 자신이 연출한 영화 <스틸 얼라이브> 상영 후 관객과 대화를 나눴다.

영화를 중심으로 사람과 자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
가을빛 무르익는 9월에 영남알프스를 배경으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열린다.

산악·자연·인간을 주제로 한 영화와 공연, 레저를 한자리에서 즐기는 국내 유일의 산악 영화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이하 UMFF)가 올해도 다시 찾아왔다. 슬로건은 '함께 오르자, 영화의 산'.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울산 울주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영 장소다. 이전 영화제에서는 여러 곳으로 분산됐던 상영 장소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원으로 압축됐다. 차박 극장, 텐트 극장, 숲속 극장 등 자연 속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곳도 늘었다.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텍에 앉아 영화를 보거나, 야영장에 누워 눈앞의 탁 트인 능선을 배경으로 스크린을 마주하는 일은 일반 극장에서는 경험하지 못해 더욱 특별하다. 게다가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을 상영하니 감흥은 더욱 깊어진다.

상영작은 35개국에서 출품한 114편으로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폭넓은 장르를 아우른다. 처음 UMFF를 찾았다면 올해의 키워드인 '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폐막작부터 살펴보자. 개막작 <K2: 그림자를 따라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봉우리 중 하나인 K2를 무산소 등반하는 뱀장땀 베드린의 여정을 담았다. 극한의 자연환경에 맞서는 한 인간의 도전과 자연의 압도적 풍광이 스크린을 가득 채운다. 폐막작 <여전히 향해 중>은 아흔을 앞둔 노인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향하는 이야기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길을 찾아떠나는 주인공이 '도전에는 때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세계의 산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올해의 산' 섹션도 놓치지 말자. 매년 주요 산맥을 품은 한 국가를 선정해 그 나라의 영화와 문화, 역사, 생활상을 깊이 있게 조명한다. 올해는 슬로베니아의 울리안 알프스가 주인공이다. 슬로베니아판 <기생충>으로 불리며 유수의 해외 영화제에서 호평받은 <가족 치료>, 슬로베니아 영화 120주년 기념 복원작 <키케츠>와 <안녕, 키케츠>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기간 9월 18일~22일
장소 울산울주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원
문의 052-248-6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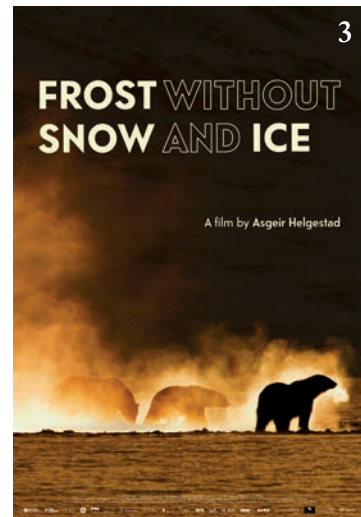
1UMFF 2026 폐막작 <여전히 항해 중> 포스터. 2 야외 상영관에서 헤드폰을 착용하고 영화를 관람한다. 3 <프로스트 이야기> 포스터. 영화는 북극에서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미곰 프로스트를 따라간다. 4 다큐멘터리 영화 <협곡의 슬랙라이너> 스틸컷.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네르비온 협곡 사이 900미터가 넘는 하이라인 위를 걷는 장면은 보기만 해도 손에 땀을 쥐게 한다. 5 슬로베니아 영화 120주년을 맞아 디지털 복원한 영화 <안녕, 키케츠> 포스터. 이번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한다. 6 UMFF 2026 개막작 <K2: 그림자를 따라서> 스틸컷.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봉우리 중 하나인 K2를 무산소 등반하는 뱀자멧 베드린의 도전을 담았다.



스크린에서 보던 산악인의 아찔한 도전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UMFF의 묘미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영화 <협곡의 슬랙라이너>와 연계해 진행되는 '아슬아슬 슬랙라이너'이다. 슬랙라이너는 두 개의 고정된 지점 사이를 줄로 팽팽하게 연결해 그 위를 걷는 익스트림 스포츠다. 영화에는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네르비온 협곡 사이, 900미터가 넘는 하이라인 위를 걷는 장면이 담겼다. 프로그램에서는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자 선수인 다니엘 카스칼레스가 직접 슬랙라이너를 가르쳐 준다. 영화제에서 슬랙라이너라니! 다른 어떤 영화제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이색 체험이니 절대 놓칠 수 없다.

개막작 <K2: 그림자를 따라서>에서 K2를 무산소 등반하는 뱀자멧 베드린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영화 속 주인공을 보면 문득 궁금해진다. 극한의 순간을 견디는 인간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 국내 산악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토크프로그램에서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최근 해발 6220미터의 히말라야 사트 피크 세계 첫 등정에 성공한 안치영 대장이 자신의 산행 도전을 들려준다. 아시아인 최초로 남극대륙을 걸어서 횡단한 김영미 대장은 자신이 연출한 영화 <남극에서 온 편지> 상영 후 관객과 만나 극한의 환경에서 마주한 순간과 영화에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를 전한다.

해가 진 뒤에도 영화제의 열기는 계속된다. 관람객들이 서로의 소장품을 사고파는 야간 플리마켓 '오프 보물창고'를 구경하고, 천체망원경으로 영남알프스의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싱잉볼 치유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천천히 이완한 후 자연과 연결되는 '밤빛 요가'로 하루를 느긋하게 마무리해도 좋다. UMFF는 규모가 큰 축제인 만큼 미리 프로그램 북을 살펴보고 관심 있는 상영작과 프로그램을 골라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영화를 보고 체험을 즐기며 공연을 감상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



2026 울주 언양 한우불고기축제

올가을 울주 여행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맛있는 축제가 열린다. 언양 지방의 대표 향토 음식인 언양 불고기는 질 좋은 숯과 한우가 만나 탄생했다. 잘게 다진 쇠고기에 갖은 양념을 한 후 석쇠에 올려 직화로 구워 내는데, 은은한 참숯향과 풍부한 육즙이 입안을 가득 채운다. 울주 언양 한우불고기축제는 최고급 한우를 부담 없는 가격에 마음껏 맛볼 흔치 않은 기회다. 축제장에 거대한 한우불고기 구이 공간이 마련되어 현장에서 구매한 언양 불고기를 숯불구이 테이블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한우로 든든히 배를 채워 보자.

기간 10월 2일~5일
장소 울산 울주 언양공영주차장 일원
문의 052-204-1622



An aerial photograph of the Jirisan National Park Visitor Center. The complex consists of several modern, low-rise buildings with large glass windows and flat roofs, situated in a valley. A large, paved plaza with a geometric pattern is in the foreground, featuring a circular area with a red top. The buildings are surrounded by lush green mountains and dense forests. A road with parked cars is visible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The number '1' is in the top left corner.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2024
Wmff^o
세계문화유산위원회 (World Cultural Heritage Committee)
World Cultural Heritage Committee

Mahatma Gandhi's spectacles
Mahatma Gandhi (1869-1948)

A large, multi-colored climbing wall with various shapes and sizes of holds, set against a dark background. The wall is composed of several large, light-colored panels. The holds are in various colors including red, yellow, blue, green, black, and white. Some holds are shaped like triangles, circles, and other geometric forms. The wall is set against a dark, possibly black, background. In the bottom left corner, there is a small white number '5'.

울주 반구천의 암각화

선사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 약 6000년에 걸쳐 한반도인이 남긴 기록, 울주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년이 됐다. 바위에 새겨진 그림과 문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옛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1 선사시대부터 신라 시대에 이르는 기록이 빼곡히 적힌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2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건너편에 설치된 전망대. 확대경을 통해 암각화를 더 세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

2025년 7월 12일, 반구천의 암각화가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아우르는 단일 유산이다. 울산 태화강의 본류인 대곡천(옛 반구천)을 따라 약 3킬로미터 이어지는 절벽에 자리한다.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70년 12월 24일이다.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속 연구원 문명대는 원효대사가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반고사를 찾아 나섰다. 반구천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기호와 한자가 새겨진 기이한 바위를 마주했다. 오늘날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불리는 유적이다. 이듬해인 1971년 12월 25일 주민들의 제보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까지 발견됐다.

두 암각화에는 여러 시대에 걸쳐 새겨진 그림과 문자가 남아 있다. 높이 약 4.5미터, 너비 8미터의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는 고래, 거북, 물새, 상어, 멧돼지 등 20여 종의 바다·육지 동물 그림 300여 점이 확인된다. 그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고래 그림이다. 귀신고래, 범고래, 혹등고래, 향유고래 등 일곱 종류의 고래가 50마리 넘게 등장한다. 심지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작살을 던져 고래를 잡고, 육지로 끌어 올려 해체하는 모습까지 포경의 전 과정이 섬세하게 묘사됐다. 문자가 없던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도구를 사용했으며, 어떻게 협동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시각 자료다. 무려 6000년 전 울산 앞바다에 이토록 다양한

고래가 살았고, 선사인들이 고래잡이를 했다는 사실도 이 그림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장면이 풍경 기술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교육적 의미를 지녔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 다른 유적지인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에는 커커이 쌍인 다른 시대의 흔적이 보인다. 높이 약 2.7미터, 너비 9.8미터의 바위 면에 바다·육지 동물, 기하학적 문양을 비롯한 그림과 문자 625점이 남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시대에 따라 바위 면의 서로 다른 영역에 그림과 문자를 새겼다는 것이다. 왼쪽 상단에는 사슴과 물고기 등 신석기시대의 그림이 자리하고, 중앙 상단에는 동심원, 마름모, 물결무늬 같은 청동기시대의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문양이 넓게 분포한다. 하단에는 돛단배와 행렬도, 말과 용 등 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 신라 시대에 새긴 명문도 총 127점에 이른다. 한 글자로 된 짧은 문자부터 10행이 넘는 장문까지 형식도 다양하다. 특히 신라 법흥왕 일가가 남긴 명문은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525년 법흥왕의 동생인 사부지갈문왕과 누이는 이곳을 찾아 '서석곡(書石谷)'이라 이름 짓고 '원명(原銘)'이라 새겼다. 14년 후인 539년에는 사부지갈문왕의 아내 지물시혜비와 아들(훗날의 진흥왕)이 다시 이곳을 찾아 바위 면에 '추명(追銘)'이라 남겼다. '원명'은 처음 새긴 기록, '추명'은 뒤이어 덧붙인 기록이라는 뜻이다. 이 밖에도 귀족과 승려, 화랑이 이곳을 찾아 바위 면에 자신의 흔적을 아로새겼다.

선사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 이어진 고대의 기록이 오늘날까지 온전히 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자연의 도움이 컸다. 중심 바위 면 윗부분이 25도 가량 앞으로 기울어 있어 비바람을 막아 주는 지붕 역할을 한 것이다. 바위에 새겨진 그림과 문자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진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4-1(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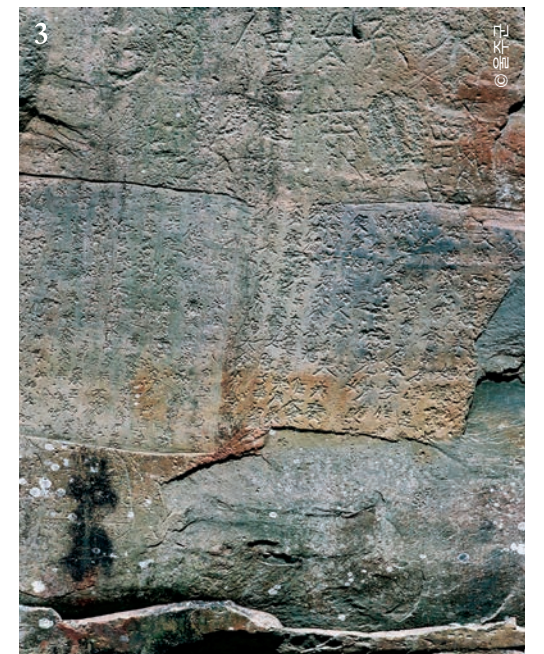
1 울산암각화박물관 1층에는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실물 크기로 재현한 모형이 전시돼 있어 가까이서 문양을 관찰하기 좋다. 2, 3 태화강의 구불구불한 지류 하천인 반구천 절벽에서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만난다. 신라 시대 왕족과 화랑, 승려가 이곳을 다녀간 기념으로 남긴 명문이 촘촘하게 새겨져 있다.



+ 울산암각화박물관

2008년에 문을 연 국내 유일의 암각화 전문 박물관.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까지 불과 2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두 암각화를 둘러보기 전에 먼저 이곳에 들러 사전 지식을 얻는다. 무엇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실물 크기로 재현한 모형이 있어 바위 면에 새겨진 그림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살펴보기 좋다. 배와 그물, 동물 뼈 등의 유물을 통해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고래를 어떻게 사냥했는지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롭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반구대안길 254



원강서원



1 '입춘대길 건양다경
(立春大吉 建陽多慶)'
이라는 입춘방이
붙은 충의문 안으로
들어서면 단정한
서원 마당이 펼쳐진다.
2 백범 김구가 쓴 현판.
'여재당(如在堂)'은 선현을
마치 앞에 계신 것처럼
정성을 다해 섬기라는
뜻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단종의 마지막 길을 지킨 엄흥도. 그의 끈은 절개를 기리는 원강서원에는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충의의 흔적이 남아 있다. 왕명으로 세운 비석부터 백범 김구의 친필 현판까지, 서원 곳곳에 남은 유산을 통해 엄흥도의 삶과 그가 지킨 가치를 되새겨 본다.

위선피화 오소감심(爲善被禍 吾所甘心). "선한 일을 하다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 1700만 관객의 눈시울을 적시게 한 영화 <왕과 나는 남자>를 통해 주목받은 엄흥도가 남긴 말이다. 조선 세조대에 영월 호장이었던 엄흥도는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죽을 멸하라'라는 엄명을 받았다. 그럼에도 밤을 틔타 차가운 동강에 버려진 어린 임금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장릉에 안장했다. 목숨을 걸고 주군의 마지막 길을 지켜준 대가는 혹독했다. 엄흥도는 가족과 함께 영월을 떠나 성과 이름을 숨긴 채 살아야 했다. 충남 공주와 경북 청송, 경주를 거쳐 다다른 종착지는 울산이었다.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는 원강서원이 울주군에 있는 이유다.

조선 후기 숙종 대에 이르러 단종이 복위되면서 엄흥도의 충심도 마침내 재평가를 받았다. 숙종 때의 좌장부터 고종 때의 판서에 이르기까지 엄흥도의 관직 추증이 점진적으로 이뤄졌다. 고종은 그에게 '충의공(忠毅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원강서원을 건립한 이는 울산에 정착한 후손들과 지역 유림이었다. 1799년(정조 23년)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사당인 원강사를 세웠고, 1817년(순조 17년)에는 지역 유림의 청원으로 원강사가 원강서원으로 승격됐다. 1871년(고종 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으나 1904년 복원됐다. 그리고 1994년 온산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지금의 상동면 둔기리로 옮겨졌다.

수백 년 세월이 흐른 지금 <왕과 나는 남자>의 감동을 가슴에 품은 여행자들이 원강서원을 찾는다. 정문인 충의문으로 들어서기 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세월의





주소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밭길 37

흔적이 묻어나는 비각이다. 비각 안엔 엄홍도의 행적과 서원의 내력이 적힌 두 기의 비석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1820년(순조 20년) 왕명에 따라 강화도 돌에 글을 새겨 배로 운송해 세운 것이다. 비석 윗부분에 '조선 충신'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충의문 안으로 들어서면 단정한 서원 마당이 펼쳐진다. 그 중심에는 '물과 같이 맑고 곧게 살아간다'라는 뜻을 담은 강당 여수당이 서 있다. 양옆으로는 유생들이 머물던 기숙사인 영수재와 형모재가 대칭을 이루며 자리한다. 여수당에 가까이 다가서면 또 하나의 현판이 눈에 들어온다. '여재당(如在堂)'. 돌아가신 조상과 선현을 마치 앞에 계신 것처럼 정성을 다해 섬기라는 뜻으로 현판 글씨는 백범 김구의 친필이다. 목숨을 걸고 도리를 다한 엄홍도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백범 김구. 서로 다른 시대를 산 두 사람의 기개가 작은 현판 위에 마주한다.

여수당 뒤편, 원강서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는 상절당이 자리한다. 충의공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그의 절개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엄홍도의 후손들은 지금도 이곳에서 매년 춘추 제례를 올리며 권력의 횡포 앞에서도 끝까지 사람의 도리와 의리를 지킨 충의공의 정신을 이어 가고 있다. 상절당 앞에 서자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사이로 "선한 일을 하다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라고 말하는 엄홍도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KTX**

울산향교 전 전교장 엄주환

충의공 엄홍도의 후손으로 원강서원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엄주환 전 전교장을 만났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이후 원강서원을 찾는 사람이 많이 늘었나요? 정말 많아졌습니다. 평소에는 문을 닫아 두었는데 영화 개봉 후 울산 시민들이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관심에 보답하고자 주 6일 문을 열었더니 평일에는 수십 명, 주말에는 전국 각지에서 100명 이상 찾아오고 있습니다.

엄홍도의 후손으로서 자부심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문중이 대를 이어 원강서원을 지켜 온 보람을 느낍니다. <왕과 사는 남자>에서 엄홍도 역을 맡은 유해진 배우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덕분에 온 국민이 엄홍도의 충절을 알고 공감하게 됐으니까요.

원강서원을 찾는 여행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원강서원은 엄홍도의 충절을 기리는 곳인 동시에 유생들이 학문을 연마하던 서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찾아왔으면 합니다. 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킨 엄홍도의 정신을 원강서원에서 배워 가길 바랍니다.



1 오랜 세월 원강서원을 지켜 온 엄주환 울산향교 전 전교장. 2 엄홍도의 위패를 모신 상절당을 중심으로 강당인 여수당, 유생들의 기숙사였던 영수재와 형모재가 정연하게 배치돼 있다. 서원 뒤편 야산에는 영월 엄씨 후손들의 묘가 자리한다. 3 엄홍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증공조참판엄공원강서원비.

올가을새롭게만나는

울주의 세가지 풍경

자연과 영화, 레저를 한 번에 누리는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고대 한반도인의 창의적 걸작

울주 반구천의 암각화

엄홍도의 푸른 절개가 깃든

원강서원

WRITER 신송희 · 우지경 · PHOTOGRAPHER 김은주

제작 지원 울주군청

11th ULSA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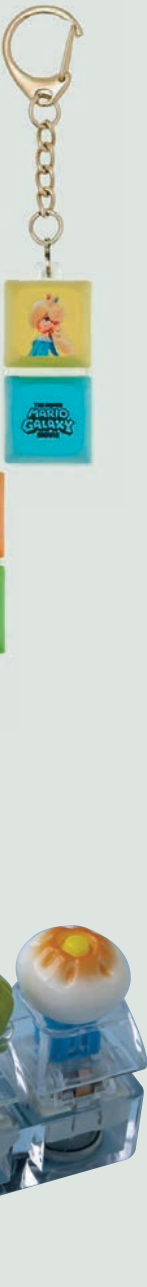
주최·주관 | 사단법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



2026.09.18 - 09.22

촉감 장난감 전성시대

깨고 부수고 만지는 재미, 귀를 자극하고 손끝을 간질이는 감각이 시장을 바꾸고 있다.



최근 시간대에 문방구 앞을 서성이는 어른이 늘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포멀한 재킷을 걸친 직장인이 '말랑이'와 '악뽀'를 만지작거리다가 계산대로 가져간다. 서울 창신동 장난감 거리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된다. 완구 도매상이 늘어선 골목에 20~30대 어른들이 몰려들면서 오래된 동네에 모처럼 활기가 넘친다.

주무르면 쫘득하게 늘어나고, 힘주어 누르면 와그작 부서지

는 촉감 장난감이 인기다. 말랑이, 악뽀, 슬랑이, 키펀, 클리커, 퍼티, 탄산 말랑이 등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촉감을 자극하는 물건이라는 점이다.

손끝은 원래 판단의 도구였다. 과일을 고를 때는 살짝 눌러 잘 익었는지 확인하고, 옷을 고를 때도 손끝으로 쓸어 재질을 확인한다. 악수하고 나서 손에 남은 감각은 상대에 대한 인상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활동을 스마트폰

으로 한다. 음식을 주문하고, 주식을 매수하고, 감명 깊게 읽은 글에 '좋아요'를 누를 때 손끝에 전달되는 감각이 모두 똑같다. 스마트폰이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나와 한 몸이 된 나머지 촉감을 느낄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만족스러운 촉감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옥시토신 분비를 유도해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온라인에서 메시지와 화상회의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이들에게 촉감 장난감을 만지는 것은 그 자체로 휴식이 되는 셈이다.

감각이 평평해진 시대에 위안을 주는 물성

1958년 심리학자 해리 할로는 새끼 원숭이를 어미와 떼어 놓고 두 개의 인공 '엄마'를 만들어 주는 실험을 했다. 하나는 우유가 나오지만 차가운 쇠로 만든 '철사 엄마', 다른 하나는 우유는 안 나오지만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형겉 엄마'였다. 새끼 원숭이들은 배가 고플 때만 철사 엄마에게 갔고, 대부분의 시간은 형겉 엄마에게 매달려 보냈다. 스킨십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결핍을 '스킨 헝거(skin hunger)'라 하는데, 새끼 원숭이들의 행동이 정확히 이 개념과 맞닿아 있다. 기능보다 촉감을 정보보다 위안을 선택한 것이다.

촉감 장난감의 인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람 역시 무언가 만지는 순간 감정이 달라진다. '단순 접촉 효과(mere touch effect)'는 물건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건 이미 내 것 같다'는 감정이 생긴다는 개념이다. 소유감은 구매 의사와 지불 용의 금액까지 끌어올린다. 만지는 순간, 이미 절반은 구매가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통업계는 소비자의 이런 욕구를 만질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방문객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거친 벽면을 만지고 원재료를 직접 매만져야 미션이 완료되도록 팝업 스토어 동선을 설계하는 것이다. 보고 지나치는 전시가 아니라, 손으로 만져야 완결되는 경험을 판매한다.

촉감 장난감 연대기

촉감 장난감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다. 슬라임, 스트레스볼, 피젯스피너 등이 10년 가까이 꾸준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금의 유행은 과거와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촉감 장난감을 즐기는 연령대가 폭넓어졌다. 초등학교 전유물이던 장난감을 30대 직장인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수집한다. 촉각적 자극에 청각적 재미도 더해졌다. 눌렀을 때 '와그작' 부서지는 소리가 결합되며 몰입도가 높아졌다. 촉감 장난감의 진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품목은 키캡이다.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에 익숙해지면서 실물 키보드를 누를 일이 줄었는

데, 바로 그 결핍이 역설적으로 키캡을 찾게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와 데스크테리어 문화가 자리 잡으며 키보드가 취향을 드러내는 소품이 된 것도 이 흐름에 힘을 보탰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은 매장 표지석 문구를 그대로 본뜬 '표지석 키캡'을 내놓아 화제가 됐고, 카페 브랜드 더벤티는 '슈퍼마리오 갤럭시'와 협업한 키캡을 선보였으며, 맘스터치는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과 협업한 LED 키캡 키링을 내놔다. 촉감 열풍은 다른 산업으로도 번지고 있다. 디지털업계에서는 악뽀볼의 부서지는 식감을 본뜬 제품이 속속 등장했다. 던킨도너츠는 걸을 깨물면 와그작 부서지는 '아그작 도넛'을 선보였고, 연세우유는 하트 모양 초콜릿 코팅을 깨 먹는 '깨먹는 하트 생크림빵'을 내놔다. 동네 카페에서도 코팅을 깨 먹는 '악뽀 소금빵'이 인기를 얻고 있다. 뷰티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말랑하게 놀리는 젤리팟, 푸딩처럼 몽개지는 크림 등 촉감을 전면에 내세운 화장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디지털로 확장된 촉각 욕구

촉감을 향한 갈증은 디지털 세계로도 확산됐다. 악뽀볼 앱은 화면을 누르면 햅틱 진동이 실행되고 이미지가 늘어나는데, 저지연 사운드까지 재현하며 실물에 가까운 손맛을 내려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시 문구점으로 향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촉각 욕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대상의 정보를 확인하려고 만져 보는 '도구적 촉각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만지는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유쾌적 촉각 욕구'다. 이중 유쾌적 촉각 욕구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을 만져 볼 수 없다는 것에 결핍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AR(증강 현실)이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실험도 진행됐다. 결과는 의외였다. AR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진짜 촉각 정보를 갈망했다. 디지털 모사가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부추긴 셈이다. 아무리 정교한 시뮬레이션도 실물의 무게와 온도, 손에 남는 느낌까지는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리 그럴듯해도 디지털은 철사 엄마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들이 갈구하는 건 기능이 아니라, 손에 확실히 남는 물성 그 자체다.

이런 경향이 대기업 신제품 개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촉감은 더 이상 부차적 요소가 아니다. 브랜드들은 이제 '어떻게 보일지'뿐 아니라 '어떻게 만져질지'까지 설계해야 하는 시대를 맞았다. 빠르게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다 문득 손이 심심해진다면, 다음 정차역 앞 오래된 문구점에 잠시 들러 보는 건 어떨까. **KTX**

NEWS



청도군 관광 팝업 홍보관
‘여행마켓청도 in 성수’ 운영
경북 청도군이 팝업 성지 서울 성수동에 관광 팝업 홍보관 ‘여행마켓청도 in 성수’를 연다. 9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는 청도의 주요 관광 명소 소개 자료를 제공하고, 시음 및 시식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청도는 씨없는 감 ‘반시’와 청정 웰빙 채소 ‘한재미나리’로 유명한 지역. 홍보관을 찾으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청도의 숨은 매력을 발견할 것이다. 방문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청도 굿즈와 특산품도 증정한다.
인스타그램 @korea_cheongdo



1887 바이 앙드레
미쉐린 2스타 수상
래플스 호텔 싱가포르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1887 바이 앙드레’가 <미쉐린 가이드 싱가포르 2026>에서 미쉐린 2스타와 함께 ‘올해의 신규 레스토랑’을 수상했다. 지난 3월 문을 연 1887 바이 앙드레는 42석 규모의 프라이빗한 다이닝 공간이다. 상호의 숫자 ‘1887’은 래플스 호텔 싱가포르가 개관한 해다. 1887 바이 앙드레는 프랑스의 요리 철학과 싱가포르의 전통 식문화, 래플스 호텔의 오랜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선보인다.
홈페이지 1887byandre.com



스카이스캐너
첫 ‘스마트트래블 어워즈’ 개최
글로벌 여행 앱 스카이스캐너가 한국인 여행자들의 편리한 여행 계획과 예약을 돕기 위해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스카이스캐너 스마트트래블 어워즈’를 론칭했다. 한국인 여행자에게 우수한 예약 경험과 뛰어난 가성비비를 제공하는 항공사 및 여행 파트너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 수상자는 ‘최우수 가성비 단거리 노선’ 부문에 제주항공, ‘최우수 예약 경험 국내 항공사’ 부문에 대한항공, ‘최우수 예약 경험 국내 OTA’ 부문에 하나투어가 차지했다.
홈페이지 skyscanner.co.kr

VIDEO

〈철들 무렵〉

건강과 돈, 그리고 각자의 꿈마저 서로에게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세 사람의 좌충우돌 가족극. 아직 철들지 못한 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히고설킨 관계를 들여다본다. 데뷔작 <이장>에서 가부장제의 모순을 날카롭고 유쾌하게 꼬집었던 정승오 감독이 예리한 시선으로 가족의 굴레를 새롭게 풀어낸다. 9월 16일 개봉.
출연 기주봉, 하윤경 감독 정승오

〈아가미〉

구병모 작가의 소설 <아가미>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애니메이션이 스크린에 오른다. 깊은 물속에 던져진 어느 날 아가미가 돌아난 아이 ‘곤’의 이야기를 그린 원작에 회화적 이미지와 판타지를 더했다. <소중한 날의 꿈> <무녀도> 등을 통해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의 독특한 감성을 구축해 온 안재훈 감독이 원작의 정서를 섬세하게 살렸다. 9월 9일 개봉.
목소리 출연 정해인, 이청아 감독 안재훈

〈싱 어게인〉

<원스> <비긴 어게인> <싱 스트리트>로 사랑받은 음악 영화의 대가 존 카니 감독의 신작. 무명 촉가가 가수 리크와 한물간 팝스타 대니가 우연히 만나 함께 노래한 곡을 완성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폴 러드는 보컬과 기타 연주를 직접 소화했으며, 닉 조나스는 자신의 경험을 대니라는 인물에 녹여내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9월 2일 개봉.
출연 폴 러드, 닉 조나스 감독 존 카니

〈인턴〉

패션 회사 CEO와 시니어 인턴의 특별한 만남을 그린 동명의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판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세대오 직급도 뛰어넘는 오피스 라이프’라는 원작의 설정은 이어가면서 한국의 직장 문화와 정서를 어떻게 살렸는지가 관람 포인트다. <82년생 김지영> <만약에 우리>로 섬세한 연출력을 보여준 김도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9월 16일 개봉.
출연 최민식, 한소희 감독 김도영

〈가능한 사랑〉

해외 유수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며 화제를 모은 이창동 감독의 신작.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쌍의 부부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만나 각자의 숨겨진 욕망과 마주하는 과정을 담았다. 노동과 계급, 자본과 예술 등 우리 삶을 지배하는 여러 문제를 아우르며 동시대의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9월 23일 개봉. 넷플릭스에서 11월 6일 공개.
출연 전도연, 설경구 감독 이창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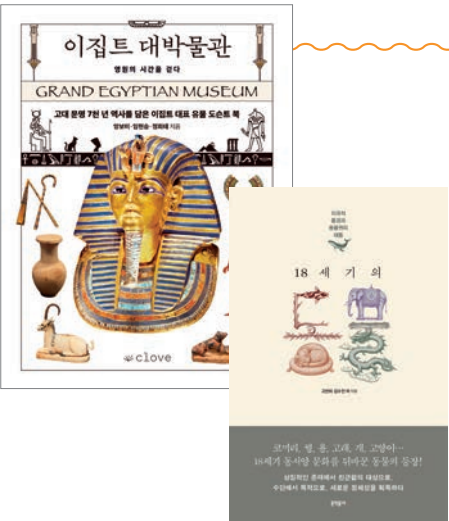


〈이집트 대박물관〉

2025년 11월에 공식 개관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문명 박물관인 이집트 대박물관(GEM)의 유물과 역사를 담은 국내 최초의 도슨트 북이다. 이집트 선사시대부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까지 7000년 역사를 아우르는 10만 점 이상의 소장품 중 핵심 유물을 엄선해 소개한다. 특히 소년왕 투탕카멘의 황금빛 유산 5000여 점을 포함해 압도적인 석상과 고대인의 일상을 보여 주는 생활 유물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양보미, 임현승, 정희태 지음 클로브 퍼넌

〈18세기의 동물〉

한국 18세기 학회 소속 인문학자 16명이 18세기 동서양의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18세기는 동물이 단순한 유용성의 대상을 넘어 인간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전환기였다. 동물을 시대의 행위자이자 인간의 동행자로서 바라보는 이 책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비인간 동물과의 공존을 고민하게 하는 인문학적 시선을 건넨다.
고연희, 김수진 외 지음 문학동네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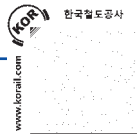
BOOK

Information.

KTX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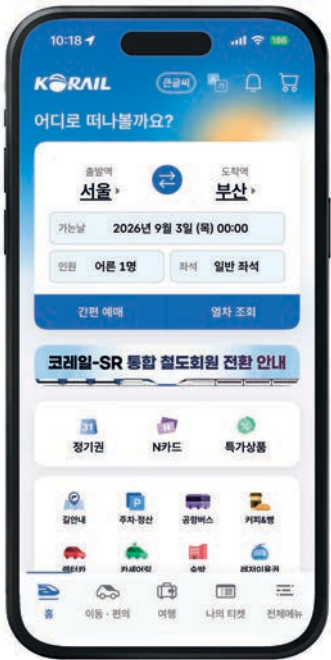


한국철도공사, 9월부터 고속철도 통합 운영



하나 되는 철도 함께하는 더큰 행복

한국철도공사가 9월 1일부터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철도 이용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분리됐던 고속철도 차량을 KTX로 통합 운용하고, SRT는 KTX-산천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이원화된 차량 운용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서울·수서역 출·도착 KTX 열차를 증편한다. 고속열차 좌석을 일주일 기준 11만 6000석 확대해 고속열차 좌석 부족 현상을 완화할 예정이다. KTX 운임은 SRT 운임 기준에 맞춰 기존 대비 평균 10퍼센트 낮춘다. KTX를 이용할 때 적립되는 마일리지 혜택을 수서역 출·도착 고속열차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전국의 모든 고속열차를 하나의 앱에서 조회하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 '코레일+'도 출시했다. 기존 승차권 예매 기능을 중심으로 개인 맞춤형 메인 화면, 간소화된 예매·결제 절차, 통합 티켓 관리, 여행·모빌리티 연계 서비스, 간편 로그인 기능 등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하나의 앱으로
예매부터
마일리지 적립까지

×

철도 통합으로
더 다양한 노선과
할인 혜택

×

교통소외지역 없이
어디서든 함께 누리는
철도 인프라



하나의 앱으로 더 편리하게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교통소외지역 없이 함께 누리게

하나 되는 철도 함께하는 더큰 행복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KTX는 930mm, KTX-산천은 980mm, KTX-이음과 KTX-청룡은 960mm입니다.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식음료 Refreshment	신문 Newspaper
			
KTX와 KTX-산천은 1120mm, KTX-이음과 KTX-청룡은 1060mm입니다.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4·14호차에 있습니다.	특실 이용객을 위한 신문은 KTX 3·4호차와 KTX-산천 3·13호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는**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 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각 객차에 위치한 수하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AED)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의약품 First-Aid Medicine	금연 No Smoking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 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 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2호차(4량: 1-2호차 사이, 6량: 2-3호차 사이),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료 및 스낵자판기는 KTX 5·9·11· 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2호차 또는 2·3호차, KTX-청룡 1·2·4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호차 또는 2·3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열차 내 휴대품 기준 (2026년 7월 1일 여객운송약관 개정 기준)

위험물	동물	이동 수단	기타 물품
			
철도안전법 제42조, 제43조의 위험품 및 위험물 반입 금지 ※ 위험 물품: 무기, 화약류,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반려동물을 전용 가방 등에 넣은 경우 동반 가능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분해 후 전용 가방에 넣은 자전거 단,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 수단 불가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제외)	기타 불결하거나 안 좋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반입 금지
리튬 배터리 제한 Lithium Battery Restrictions		대용량 리튬 배터리(160Wh 초과) 열차 내 휴대 제한 Restrictions on carrying high-capacity lithium batteries (over 160 Wh) on trains	

승차권 구입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는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1개월~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3시간 전까지	3시간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까지	60분 경과 후~도착 시각 전까지
월~목요일		무료		5%	15%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400원	5%	10%	20%	30%	40%	70%

Ticket Booking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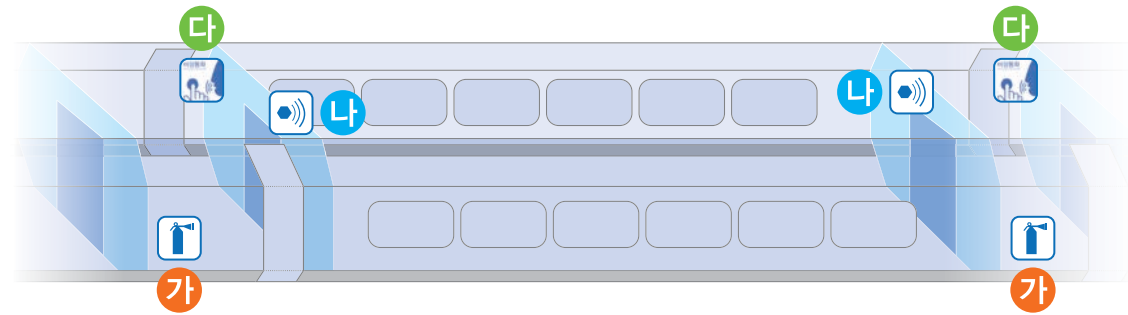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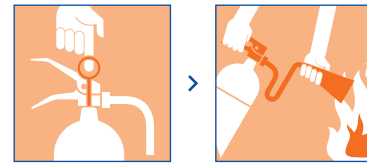
Classification	1 month-2 day prior to departure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After Departure (Request a refund at the station ticket office)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ee		5%		15%		
Fri-Sun, holidays	KRW 400	5%	10%	20%	30%	40%	70%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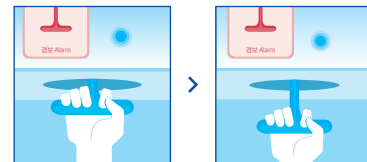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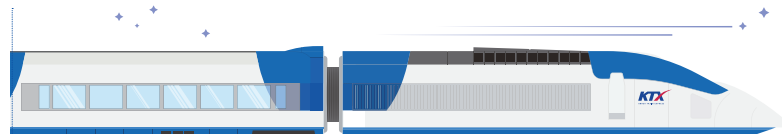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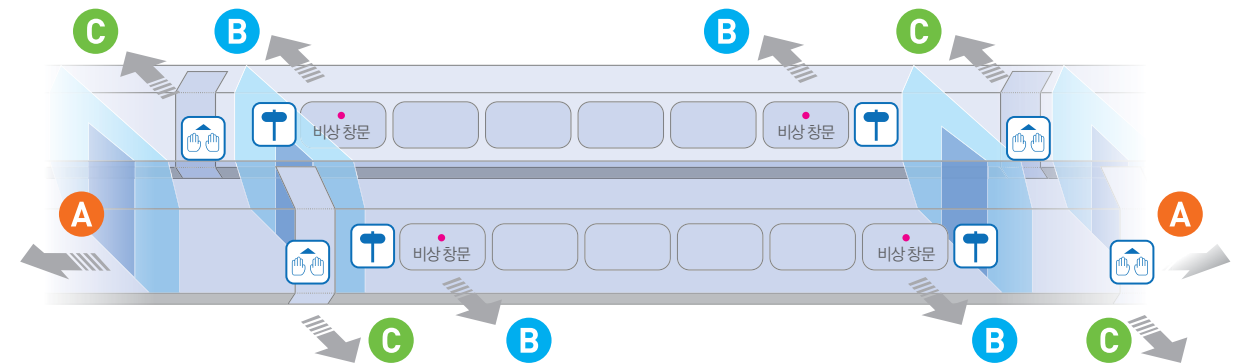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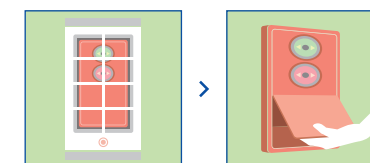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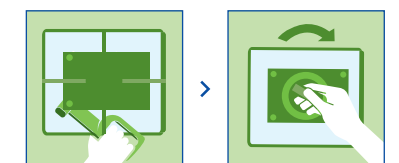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호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너드커넥션과 떠나는 음악 여행



음악 듣기

광활한 바다앞에 서면 끝없는 파도와 함께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세 번째 EP 앨범 <파도의 고점>으로 돌아온
너드커넥션이 방향하는 여행자의 마음을 위로한다.

철도 위를 함께 달리는 너드커넥션의 플레이리스트

▶ 영주 Perfectly Lonely 존 메이어



공연하러 갈 때 주로 기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날 공연장에선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또 어떤 사람들이 올지 상상하다 보면 마음이
설레요. 그러다 기차안에 홀로 있다고 느껴지면 이 노래를 꺼내 듣고는
하조,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을 때 들어보세요.

▶ 승원 Hoppípolla 시규어 로스



달리는 기차 안에서 빠르게 바뀌는 창밖 풍경을 뮤직비디오 삼아 듣기
좋은 곡입니다. 노래를 감상하는 동안 기차 타고 여행하던 어린 시절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잊고 지낸 소중한 추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서
기분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 재현 A Head Full of Dreams 콜드플레이



기차를 타면 웬지 모르게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어요. 일하러
가는 길이든, 삶에 지쳐 그저 멀리 도망치는 길이든 똑같아요. 어떤
여정이든 꿈과 희망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긴
노래예요. 기차에서 듣기에 가장 완벽한 음악이죠.

▶ 연태 Say It to Me Now 글렌 헨사드



세상을 떠난 글렌 헨사드를 떠올리며 영화 <Once>를 들었습니다.
몇 번을 봐도 처음의 감정으로 돌아가 똑같이 빠져들어요. 기차창가
자리에 앉아 이 음악을 들으면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지금의 생각,
기차의 진동까지, 모든 것이 영화의 한 장면 같을 거예요.

▶ 너드커넥션 (Nice Dream) 라디오헤드



기차 타고 여행지로 출발할 땐 설레지만, 일정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노곤합니다. 여행이나 업무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 줄 최고의 트랙이에요.
너드커넥션이 사랑하는 밴드, 라디오헤드 음악을 골라 봤어요.

▶ 너드커넥션 Where Are We 너드커넥션



‘우린 지금 어디쯤 왔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노래입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면,
어느새 생각 하나가 불쑥 떠오르지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이 노래가 수많은 답 중 하나가 되어 줄지도 몰라요.



너드커넥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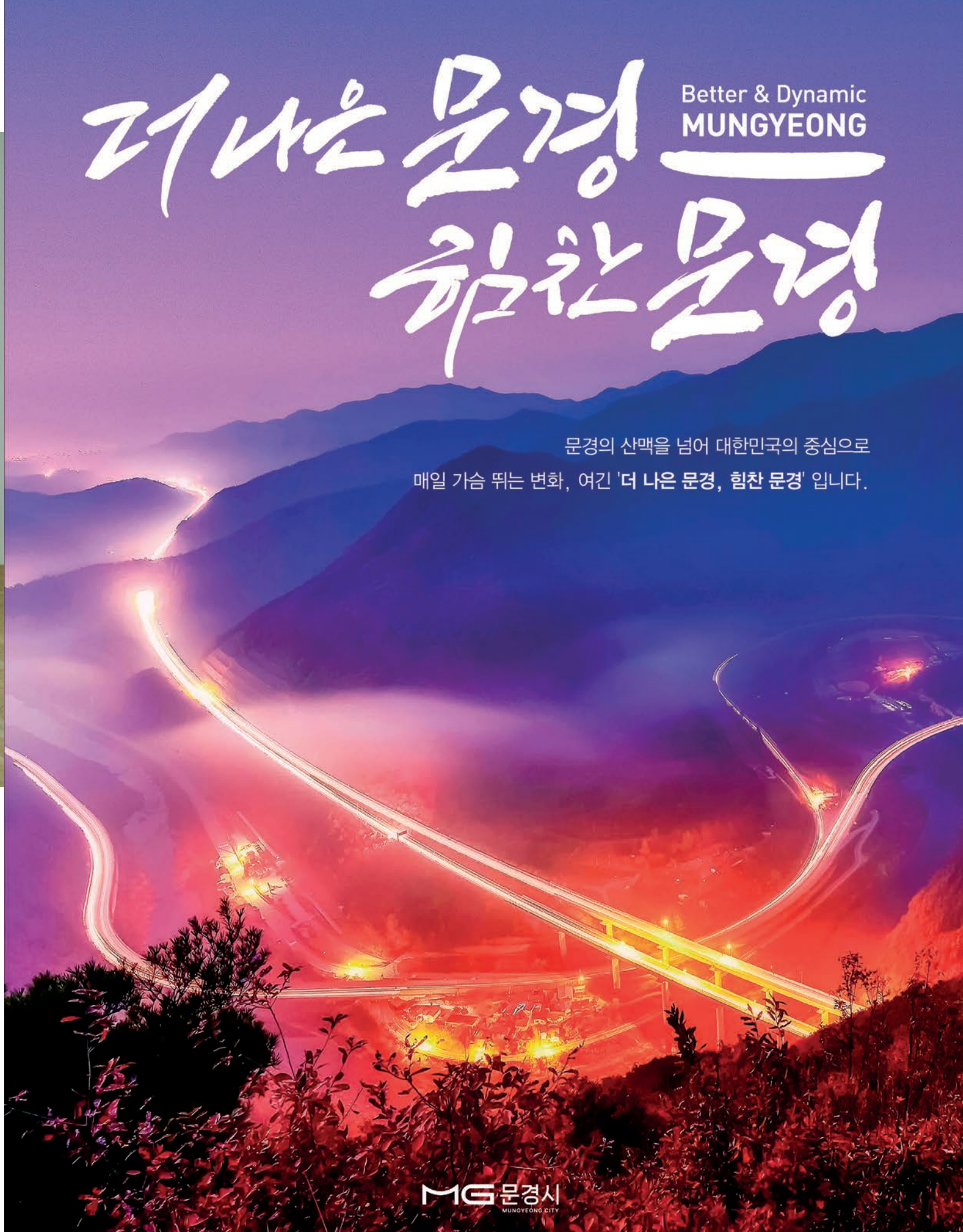
서영주(보컬·기타), 최승원(기타),
박재현(베이스), 신연태(드럼)로 구성된
록 밴드. 2018년 디지털 싱글 'Hymn of the
Birds'로 데뷔했다. 얼터너티브 록 장르를
기반으로 너드커넥션만이 낼 수 있는 소리를
고민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도전한다.
대표곡으로 '좋은 밤 좋은 꿈' 'Back in Time'
'그대만 있다면' 등이 있다. 세 번째 EP 앨범
<파도의 고점> 발매를 기념해 9월 5일까지
전국 클럽 투어를 진행한다.

© 유어썬더, 박스

더 나은 문경 힘찬 문경

Better & Dynamic
MUNGYEONG

문경의 산맥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매일 가슴 뛰는 변화, 여긴 '더 나은 문경, 힘찬 문경' 입니다.





경북 문경 단산의 활공장에서 내려다본 백두대간과 고요리 일대.